2025 지속가능통합보고서

# NHIS 2GETHER WITH YOU

# ABOUT THIS REPORT

**NH투자증권은 2018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왔으며,**
**2021년부터는 기존의 연차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합한**
**'지속가능통합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여**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통합보고서에는 NH투자증권의 주요 활동과 성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 NH투자증권 지속가능통합보고서**

**발행처** NH투자증권(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NH금융타워(타워 2)
**발행인** 윤병운
**발행일** 2025년 6월
**문의처** NH투자증권 ESG추진부
**전화** +82-2-768-7904
**홈페이지** www.nhqv.com
**이메일** nhis.esg@nhqv.com


## 보고서 작성 기준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국제 보고 기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의 부합(in accordance with)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산업 특성에 따른 주요 이슈를 반영하고자 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투자은행 및 중개업(Investment Banking & Brokerage), 증권업(Securities) 공시 주제 및 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권고안에 따라 기업 재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이슈를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보고위원회(IIRC,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의 IR Framework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보고 기간 및 보고 범위

본 보고서의 보고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일부 성과에 한해 2025년 1분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고 범위는 NH투자증권의 본사 및 영업점 등 국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요주제인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금융 및 플랫폼 강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정보보호 강화 이슈에 대해서는 종속기업인 NH선물과 NH헤지자산운용의 데이터를 포함했습니다.

## 보고서 검증

본 보고서는 이사회의 검토를 거쳤으며, 작성 프로세스 및 데이터의 신뢰성과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검증기관인 DNV로부터 제3자 검증을 받았습니다. 검증에 관한 세부사항과 검증 의견은 145-146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Forward-looking Statements

본 보고서는 현재 또는 과거 시점뿐 아니라 미래의 상황과 관련된 예측 진술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실제 결과가 이러한 미래 예측 진술에서 명시되거나 암시된 내용과 크게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NH투자증권은 법적 또는 규제상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정보의 발생, 향후 사건이나 기타 상황 변화로 인해 미래 예측 진술을 업데이트 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COVER STORY

NH투자증권은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과 경영의 투명성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NH투자증권의 코퍼레이트 컬러와 그레이톤 컬러의 대비를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사색 구획을 활용해 상승하는 방향성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향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또한 '2GETHER'의 '2'에 색을 강조하여, 고객과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동반 성장의 의미를 표지 디자인에 반영하였습니다.

### INTERACTIVE 사용자 가이드

본 보고서는 보고서 내 관련 페이지로의 이동 기능이 포함된 인터랙티브 PDF로 발간되었습니다.

목차로 이동

# CONTENTS

## N2 SUSTAINABILITY MAGAZINE


ABOUT THIS REPORT 02
CONTENTS 03
대표이사와의 만남 04

**PART1. N2의 지속가능경영을 정의하다**

Sustainable Strategy 06
Sustainable Journey 07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다 08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다 10
주주환원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다 12

**PART2. 이해관계자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열다**

농업을 말하고 농촌을 생각하다 14
모두를 위한 투자문화를 확산하다 18
기업과 시장을 잇는 소통의 장을 열다 22


## INTRODUCTION


회사개요 25
사업소개 31
Value Chain 34


## SUSTAINABILITY FRAMEWORK


지속가능경영 36
지속가능금융 37
Sustainable Highlights 39


## MATERIAL TOPICS


중대성 평가 41
중요이슈 분석 46
이해관계자 참여 47


## SUSTAINABILITY PERFORMANCE


기후변화 대응 FOCUS 49
환경책임경영 63
디지털 금융 및 플랫폼 전략 FOCUS 65
고객중심경영 68
금융소비자 보호 FOCUS 70
정보보호 FOCUS 74
인재경영 78
동반성장 82
사회책임경영 84
이사회 책임경영 86
윤리·준법경영 89
리스크 관리 91


## APPENDIX


재무성과표 94
지속가능경영 DATA 105
GRI CONTENT INDEX 128
SASB INDEX 131
POLICY BOOK 133
UNGC 142
UN SDGs 143
제3자 검증의견서 145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147
주요 수상내역 및 협회 가입 현황 148

# 대표이사와의 만남

## 안녕하십니까,
## NH투자증권 대표이사
## **윤병운입니다.**

**2025년 경영환경은 대내외 경제·정치적 변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NH투자증권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단기 성과를 넘어서, 고객과 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속가능한 가치를 실현하는**
**책임 있는 금융회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함께 실천하는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NH투자증권은 내실 있는 경영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신뢰받는 증권사로 꾸준히 나아가겠습니다.**

2025년 6월 대표이사 **윤병운**



### Q 2024년 NH투자증권의 주요 경영 성과와 사업 부문별 실적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4년은 NH투자증권이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경영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룬 한 해였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단기 실적에 치우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 구축과 구성원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경영의 결실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2028년까지 자기자본이익률(ROE) 12%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 최적화, 조직 체질 개선, 내부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IB·WM 등 주요 사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업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 Q 수익성 외에 NH투자증권이 조직 내부적으로 강조하는 가치가 있다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실현해나가고 계십니까?

NH투자증권은 외적인 수익성뿐 아니라, 조직문화와 공동체 의식의 강화를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과 중심의 경영만큼이나 조직 내부의 화합과 협업을 중요한 경쟁력으로 보고 있으며, 실질적인 실행을 통해 구성원의 만족도와 몰입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평적이고 유연한 소통 문화를 정착시키고,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협업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내 제도와 소통 채널을 운영하며, 구성원 간 신뢰와 존중의 문화를 일상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생과 협력의 노사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노동조합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직원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 복지, 근무환경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 Q 지속가능경영 측면에서 NH투자증권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 영역은 무엇입니까?

NH투자증권은 지속가능경영을 경영의 핵심 원칙으로 삼아, 장기적 가치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세 가지 전략 영역을 중심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후위기와 저탄소 전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축 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녹색채권 및 지속가능채권 투자, 친환경 프로젝트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녹색금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전략과 리스크 관리 체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후 리스크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금융 접근성 확대를 통해 포용금융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다양한 고객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상담과 상품,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서비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 소외 없이 누구나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채널 전반에 걸친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책임 있는 의사결정으로 실행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전략과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있으며, 책무 구조 정립을 통해 경영진과 실무조직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실행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경영이 일회성 활동에 머물지 않고, 조직 내 일상적 의사결정과 실천으로 내재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Q 2025년 NH투자증권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경영 과제와 중장기 비전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2025년 NH투자증권은 사업 부문별 핵심 역량 강화와 전략적 협업을 통해 조직 시너지를 높이고,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추구하겠습니다.

리테일 사업 부문은 초부유층 고객 대상 대면 채널 강화와 디지털 채널 고도화를 병행하여, 고객 중심의 투자 플랫폼으로 도약하겠습니다. IB 사업 부문은 글로벌 세일즈·구조화 및 인프라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 지배력 확대를 통해 수익성 중심의 성장을 이어갈 것입니다. 운용 사업 부문은 세일즈 조직과 협업해 운용자산 규모를 확대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Wholesale 사업 부문은 기관고객에게 맞춤형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량을 제고하고, OCIO 사업 부문은 신규 기관고객 확보를 통해 사업 기반과 수익성을 함께 강화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은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Q NH투자증권의 모든 이해관계자분들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NH투자증권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도 고객, 주주, 임직원 및 지역사회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업의 본질적 책무입니다. 당사는 재무적 성과는 물론 비재무적 가치 창출에도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책임감 있는 실행과 투명한 소통, 장기적인 시각으로 금융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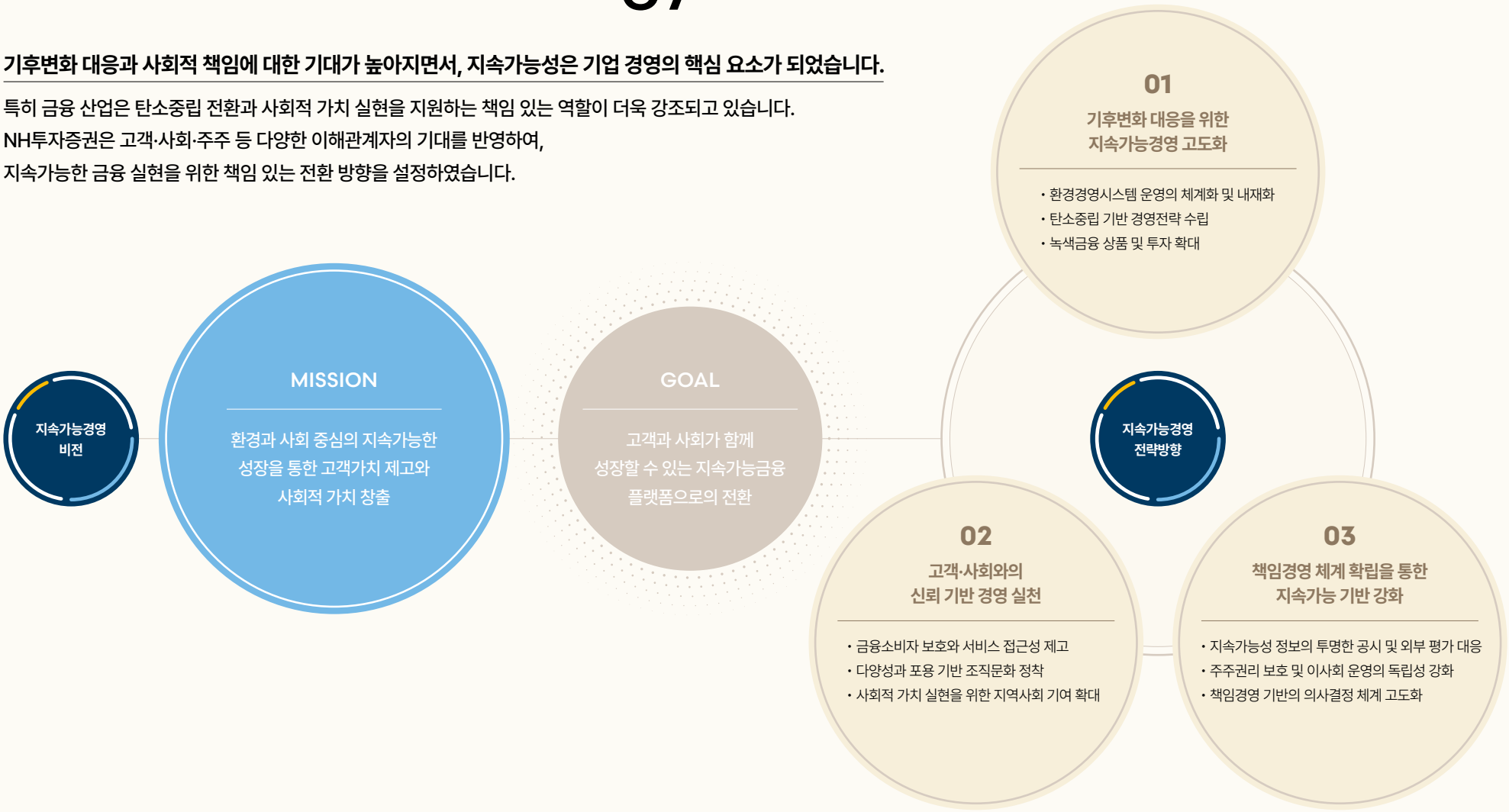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며, 모든 구성원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지속가능경영의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여정에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Part 1. N2의 지속가능금융을 정의하다

# Sustainable Strategy

**기후변화 대응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지속가능성은 기업 경영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금융 산업은 탄소중립 전환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원하는 책임 있는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고객·사회·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금융 실현을 위한 책임 있는 전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Part 1. N2의 지속가능금융을 정의하다

# Sustainable Journey

**1969년 회사설립 이후 NH투자증권은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혁신과 고객 중심의 가치 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 2010~2020

**2011** UNGC 가입
**2018**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2019** 국내 증권사 최초 'ESG 리포트' 발간
**2020** 'MK-iSelect AI ESG 지수' 개발

## 2021

- ESG추진팀 신설
- 지속가능협의회 설치
- 지속가능통합보고서 발간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준법경영시스템 'ISO 37301' 인증 취득
- 국내 증권사 최초 ESG 원화 채권 발행
- 상생채권신탁시스템 개발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득

## 2022

- ESG추진부 승격
- ESG위원회 출범
- TCFD 지지 선언
-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정보보안경영시스템 'ISO/IEC 27001' 인증 취득
- 범농협 애그테크상생혁신 펀드 출자
-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실천 우수기업 선정
- 'iSelect-WG 그린에너지 ESG 지수', 'iSelect-WG 탄소중립 ESG 지수' 개발

## 2023

- 주요 ESG정책 제정
- 탄소금융부 신설
- K-RE100 가입
- REC 구매 계약 체결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개인정보보호경영시스템 'ISO/IEC 27701' 인증 취득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선정
- 4EN과 바이오차(Biochar) 생산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 사업 추진
- SK임업과 동티모르 고효율 쿡스토브 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 장애인 표준사업장 브라보비버경기, 브라보비버인천 지분투자

## 2024

- ESG본부 신설
- 환경부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 환경부 '배출권 거래 중개 시스템 도입 시범사업 참여자' 단독 선정
- CoREi(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 Corporate Renewable Energy Initiative) 가입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물품 취약계층 기부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고등학교 문화예술 교육 후원
-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리드(LEAD) 그룹 선정
- 장애인 표준사업장 브라보비버부산 지분투자
- REC 및 녹색프리미엄 구매
- 'iSelect AI 전력설비투자 지수', 'iSelect 미국AI전력핵심인프라 지수' 개발
- 'N2 전력인프라 Top5 ETN' 상장
- 한국자폐인사랑협회 'Autism Friendly Award' 기업 선정
- '2024년 대한민국 농식품 ESG 경영대상' 농촌진흥청장상 수상
- '2024 THE ESG AWARDS' 환경 부문 대상 수상
- 기업가치 제고계획 발표
- 자기주식 소각
- 아시아 최초 UN 기후기금(GCF) 운용기관 선정
- 증권업계 최초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 'APEC CBPR' 취득
- 희망농업혁신펀드 출자

## 2025

- 장애인 표준사업장 하트하트아트앤컬쳐 지분투자
- 저탄소 벽돌 생산 투자를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 사업 추진
-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Part 1. N2의 지속가능금융을 정의하다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다

NH투자증권은 2023년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처음으로 정량 평가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SV') 측정은 당사의 사업과 활동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효과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도출된 결과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목표 수립과 자원 배분의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되며, 향후 전략과 투자 의사결정에도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사회적 가치 측정 원칙

NH투자증권은 5가지 기본 원칙에 따라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 과정에서는 객관성과 균형성을 바탕으로 가치가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농협 고유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농업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NH농협금융이 자체 개발한 차별화된 모델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NH투자증권의 지속가능경영 활동 성과를 투명하고 일관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❶ 객관적 측정**

제3자 관점에서 검증 가능한 기준값과 방법론을 적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측정합니다.

**❷ 연도별 결과 중심 측정**

수혜자에게 발생한 직·간접적인 성과는 활동 기간에 따라 안분하고, 해당 연도의 성과만을 사회적 가치로 측정합니다.

**❸ 중복보상 배제**

창출된 성과 중 시장에서 이미 보상된 부분은 제외하고 측정합니다.

**❹ 균형적 측정**

성과의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측정합니다.

**❺ 농업적 가치 분류 측정**

농업에 기여한 활동을 별도로 분류하여 측정합니다.

## 사회적 가치 측정 종합 결과

NH투자증권은 2023년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통해 약 3,368억 원 규모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였습니다. 해당 가치는 환경(E)·사회(S)·농업(A)·지배구조(G)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산출했습니다.

먼저 환경(E) 영역은 친환경 금융과 친환경 활동을 포함하며, 사회(S) 영역은 기술금융 투자, 사회공헌 프로그램,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 임직원 복리후생으로 구성됩니다. 농업(A) 영역에는 농업지원사업비, 농촌사회 지원사업이 포함되고, 지배구조(G) 영역은 배당금으로 구성됩니다.

**3,368억 원**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

### GOVERNANCE

지배구조 영역의 사회적 가치는 배당금(비지배지분)을 기준으로 측정했습니다.

배당
**1,213억 원**

**GOVERNANCE**

지배구조 영역 성과
**1,213억 원**

## ENVIRONMENT

환경 영역의 '친환경 금융'은 신재생에너지와 업사이클링 관련 투자 활동을 기준으로 가치를 측정했습니다. '친환경 활동'은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나무 심기, 서울 생태숲 조성을 위한 묘목 기부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과 NH투자증권 내부의 친환경 사업장 조성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도출했습니다.

**친환경 활동**
**13억 원**

**친환경 금융**
**7억 원**

**[측정 예시]**

| | |
|---|---|
| 1단계 | **신재생에너지 투자의 사회적 가치 측정**<br>전체기간 사회적 가치 총액산출<br>= 총 전기생산량 × (표준 탄소배출계수 - 발전 유형별 탄소배출계수)[1]<br>× 탄소의 사회적비용[2] |
| 2단계 | **기여도 기반 성과 배분**<br>NH투자증권 기여 사회적 가치 측정<br>= 전체기간의 사회적 가치 총액 x NH투자증권 기여도 ÷ 성과배분 대상기간 |

ENVIRONMENT

환경 영역 성과
**20억 원**

SOCIETY

사회 영역 성과
**535억 원**

AGRICULTURE

농업 영역 성과
**1,601억 원**

## SOCIETY

사회 영역의 '기술금융 투자'는 신기술 및 성장산업 투자 활동을 바탕으로 가치를 측정했습니다. '임직원 복리후생'은 임직원과 가족을 위한 의료비, 학자금, 건강검진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사회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37개 사내 봉사단의 활동을,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은 정보보안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임직원 교육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도출했습니다.

**기술금융 투자**
**134억 원**

**임직원 복리후생**
**234억 원**

**사회공헌 프로그램**
**35억 원**

**금융소비자 보호**
**132억 원**

**[측정 예시]**

**사회 영역 사회적 가치 측정**
① R&D활동 투자(대출)로 인한 부가가치
= 2023년 산업별 투자 실행금액 × R&D기여율[3] × 부가가치 유발계수[4] × 사업화 성공률[5]
②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사회적가치 = 봉사활동 투입시간 x 2023년 최저임금

## AGRICULTURE

농업 영역의 '농업지원사업비'는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따른 간접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농촌사회 지원사업'은 농촌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활동을 포함하며, '기타' 영역에서는 사회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애그테크 스타트업 지원사업 등 농업 관련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를 도출했습니다.

**[측정 예시]**

**농업 영역 사회적 가치 측정**
농업지원사업비 지급으로 인한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사회적 가치
= 농업지원사업비 x 항목별 proxy[6]

**기타**
**23억 원**

**농촌사회 지원사업**
**44억 원**
교육비, 보급선전비, 조사연구비

**농업지원사업비**
**1,533억 원**
영농지원비, 조합육성비

1) 에너지온실가스 종합정보 플랫폼
2) EPA Report on the Social Cost of Greenhouse Gases: Estimate Incorporating Recent Scientific Advances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4) 한국은행 통계정보 보고서의 산업별 부가가치 유발계수
5)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화 성공률
6) Holcim integrated P&L 내 Community development/other projects multiplier 및 G.Psacharopoulos and H.A.Patrinos, Returns to investment in educations: a further update (2004)

Part 1. N2의 지속가능금융을 정의하다

#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다

## 기후금융 확대로 탄소감축 실현에 기여

NH투자증권은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며,
배출권 거래, 감축사업 투자, 국제기구 협력 등 기후금융 전반에서 실행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배출권 위탁매매 시범사업자로 단독 선정되어 국내 탄소시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테크 기업 투자와 바이오차 기반 감축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UN 산하 녹색기후기금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탄소중립 시장에서도 책임 있는 금융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탄소금융 추진 체계

NH투자증권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금융 기반 마련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2022년 출범한 탄소금융 TF를 2023년에 운용사업부 산하 탄소금융부로 개편하여 탄소금융을 미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배출권 트레이딩, 탄소 감축사업, 국제기구 협력의 세 영역을 중심으로 탄소금융의 구조적 기반을 갖추고, 국내외 시장에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저탄소 기술 기반 감축사업 투자, 그리고 글로벌 기후기구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NH투자증권은 정책·시장·국제 협력 측면에서 균형 잡힌 탄소중립 금융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탄소금융부 연혁

**2022**
- **May.** 탄소금융 TF 출범
- **Dec.** 탄소금융팀 신설

**2023**
- **Feb.** 탄소금융팀 R&R 설정
- **Jul.** 탄소금융부 승격
- **Nov.** 배출권거래제 시장조성자 선정

**2024**
- **Mar.** 위탁중개 시범사업자 선정
- **Jul.** GCF 기후테크펀드 운용기관 선정

### 탄소금융 핵심영역

**01 배출권 트레이딩**
- 배출권거래제 시장조성자 활동
- 배출권 위탁매매 시범사업 참여
- ETN 등 배출권 금융상품 개발
- 대량 배출권 협의매매 주선

**02 탄소감축 사업**
-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투자·주선·자문
- 우량 딜 파이프라인 및 글로벌 탄소시장 네트워크 구축
- 탄소배출권 사업화 One-Stop 지원

**03 국제기구 협력 사업**
- UN 녹색기후기금 기후테크펀드 설정
- 국내외 기후테크 기업 발굴 및 투자 집행
- 기후금융 관련 국제기구 파트너십 발굴

배출권 트레이딩 성과

## K-ETS 위탁매매 시스템 도입

NH투자증권은 배출권 시장의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배출권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환경부의 K-ETS[1] 위탁매매 시스템 도입 시범사업자로 단독 선정되어 2년간 탄소배출권 중개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국내 최초 위탁매매 플랫폼을 론칭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기금, 은행, 보험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배출권 시장 참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플랫폼 구축과 함께 고객 중개 서비스는 물론, 리서치 자료, 뉴스, 시황 등 투자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거래 편의성과 시장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 K-ETS란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orea Emission Trading System)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거래하는 제도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단독 시범사업자 지정

탄소감축 사업 성과

## 친환경 벽돌 생산기업 투자

2025년 1월, NH투자증권은 네팔의 저탄소 벽돌 생산기업 '이노씨에스알(InnoCSR)'에 전략적 지분 투자를 진행하여 탄소금융 사업 전략을 강화했습니다. 이노씨에스알은 굽지 않는 비소성 벽돌 제조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저탄소 벽돌 제조 솔루션 '굿브릭스(Good Bricks)'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이번 투자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저탄소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탄소배출권 사업의 우선 참여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이노씨에스알의 저탄소 벽돌 제조 솔루션 확대를 지원하며, 네팔, 파키스탄, 인도 등에서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기업 고객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사업
우선 참여권 확보

## 바이오차 탄소배출권 플랫폼 사업

바이오차(Biochar)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비료로 사용하면 작물 성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대기 중 탄소를 토양에 격리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농촌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증권사 최초로 바이오차 기반 탄소배출권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Case 1**

2024년 5월, NH투자증권은 경북 영덕울진축산농협과 탄소배출권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시설의 준공을 지원했습니다. 영덕울진축산농협 바이오차 시설은 조합의 생축사업에 특화된 농장형 시설로, 하루 평균 한우분뇨 10톤을 활용하여 약 2톤의 바이오차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분뇨 자원화를 통한 처리 부담 완화와 토양 개량 효과를 통해 한우 농가와 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Case 2**

2024년 11월 NH투자증권은 국내 바이오차 생산 기업인 우노에너지와 바이오차 기반 탄소배출권 발행 및 관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노에너지는 당진낙농축협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에 연간 2,000톤 규모의 축분 바이오차 생산시설을 완공했습니다. 생산된 바이오차는 당진자연세계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인근 농가와 영농단체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NH투자증권은 우노에너지와의 계약을 통해 연간 3,000톤 규모의 탄소배출권을 발행하고, 발행된 탄소배출권은 향후 해외 탄소시장 유통을 통해 국내 바이오차 기반의 고품질 탄소제거크레딧 발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증권사 최초 국내 바이오차
탄소배출권 사업 투자

국제기구 협력 사업 성과

## 기후금융 국제 파트너십 체결

NH투자증권은 2024년 UN 산하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으로부터 기후기술 이전 특화 펀드의 운용기관으로 아시아 최초로 선정됐습니다. 해당 사업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5개국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저탄소 교통, 지속가능 농업 등 녹색 기술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NH투자증권은 싱가포르 현지법인 'NH Absolute Return Partners(NHARP)'를 중심으로 '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KDB산업은행과 함께 공동 참여하고 있으며, 최대 2,800억 원 규모의 기후테크 펀드를 조성해 기후기술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NH투자증권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기후금융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확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글로벌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시아 최초
기후기술 이전 테크펀드 운용기관 선정

Part 1. N2의 지속가능금융을 정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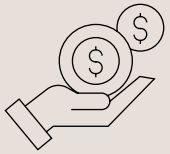
# 주주환원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다

## 지속가능한 수익성과 신뢰 기반의 주주환원 실현

NH투자증권은 자본 효율성과 주주가치 제고를 중심에 두고
지속가능한 재무성과와 선진화된 주주환원 기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핵심사업 중심의 사업구조 재편을 통해 ROE 12% 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측가능한 배당정책과 '先 배당액 확정, 後 배당기준일' 방식의 절차 개선을 통해
신뢰 기반의 주주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공시 이행체계와 전자투표제 운영을 통해
모든 주주가 경영 참여와 권리 행사를 공정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주환원 실행 계획

STEP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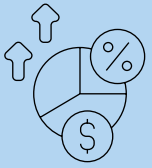
기본배당 500원을 보장·지급하여,
실적 하락시에도 최소 배당수익 보장

STEP 02



사업성과를 고려한 추가배당을 통해,
업계 최고의 주주환원 지속

STEP 03



필요시 자사주 매입 및 소각으로 주주들로 하여금
Capital gain(자본 이익) 추구 기회를 제공

## 예측가능한 주주환원 정책

NH투자증권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매년 업계 최고 수준의 배당성향과 시가배당률을 유지해 왔습니다. 2024년 12월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기본적으로 주당 최소 500원의 배당을 보장하고, 사업 성과에 따른 추가 배당을 지급함으로써 업계 최고 수준의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더불어, 필요시 자사주 매입과 소각으로 자본효율 최적화를 병행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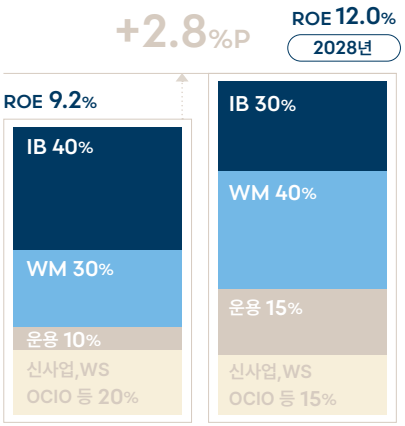


**기업가치제고 계획**
**2028년까지 PBR 1배 달성**

## 지속가능한 ROE 확보

NH투자증권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라 지속가능한 자기자본이익률(ROE) 12% 달성을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IB, WM, 운용 등 핵심사업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여 시장에서 요구하는 자본수익률(COE 10% 수준)을 충족하고, 여기에 신사업과 기존 사업(Wholesale·OCIO·자회사 등)의 수익을 더해 2028년까지 목표 ROE 12%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계획**




## 주주친화적 배당정책 및 절차

NH투자증권은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12월 결산 기말의 배당기준일을 정해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이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결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발생하는 배당 예측의 불확실성 문제를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은 투자자들이 배당금액과 배당수익률을 미리 파악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先 배당액 확정, 後 배당기준일' 방식으로 배당 절차를 개선하였으며, 이를 위해 정관을 개정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를 도입했습니다.

**변경 전** 先 배당기준일, 後 배당액 확정 최종 배당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 주식거래

| 12월 말 | 2~3월 | 3월 | 4월 |
|---|---|---|---|
| 배당기준일 (배당주주 확정) | 주총소집 이사회 결의 | 주주총회 배당액 확정 | 배당금 지급 |

**변경 후** 先 배당액 확정, 後 배당기준일 배당여부와 배당액을 알고 투자결정

| 2~3월 | 3월 | 3~4월 초 | 4월 |
|---|---|---|---|
| 주총소집 이사회 결의 | 주주총회 배당액 확정 | 배당기준일 (배당주주 확정) | 배당금 지급 |

## 전자투표제 실시

NH투자증권은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앞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주총회 개최 최소 2주 전에 소집 목적과 안건을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여, 회사 경영 현황과 주요 안건을 주주들이 미리 파악하고 검토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임시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와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해 주주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직접 참석이 어려운 주주들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결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투명한 공시 이행체계 구축

NH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2조에 따라 공시정보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내부정보의 중앙 관리와 적정한 공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시통제제도 관련 업무는 대표이사가 관장하며, 공시책임자가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총괄합니다.

또한 공시주관 부서의 공시담당자는 각 사업부서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시 관련 교육을 진행하며, 공시의무사항 및 제도의 신설·변경 사항 등을 제공하여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ROE 12% 확보**

**先 배당액 확정, 後 배당기준일**



Part 2. 이해관계자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열다

# 농업을 말하고 농촌을 생각하다

## 농업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실천

NH투자증권은 농업이 지닌 본질적 가치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고민합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농식품 스타트업 지원, 농촌 공동체와의 상생 활동 등
다양한 실천을 통해 농업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범농협의 일원으로서 농업과 지역사회가 건강하게 연결되고,
더 많은 이들이 농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참여와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희망농업혁신펀드**

**511억 원 규모 공동 조성**

**농촌지역 쌀 구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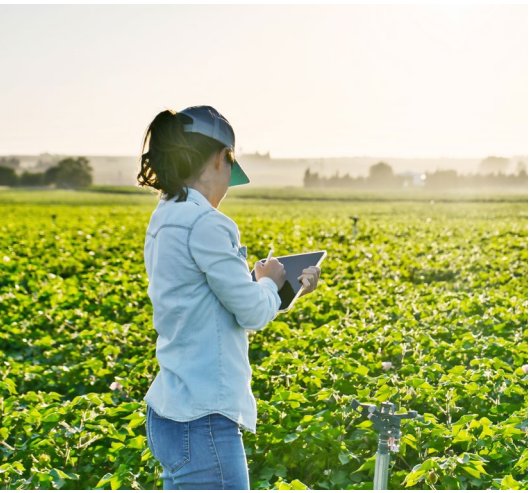
**30억 원 구매 · 기부**

### ❶ 청년농부사관학교 지원

NH투자증권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2018년부터 '청년농부사관학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졸업생의 창농 준비부터 영농 정착까지 다양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 돕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졸업생 100여 명에게 졸업식 기념으로 공구 세트를 지원하고, 우수사례 경연대회를 후원해 졸업생들이 영농 정착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❷ 농식품 라이브커머스

NH투자증권은 청년농부사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통해 온라인 농식품 판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총 3회의 라이브커머스 방송에 12개 농가가 참여했습니다. 농가와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적합한 홍보 효과를 제공했습니다. 라이브커머스는 복잡한 유통과정을 생략한 효과적인 판매 수단으로서, 농식품 직거래 판로 개척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청년농부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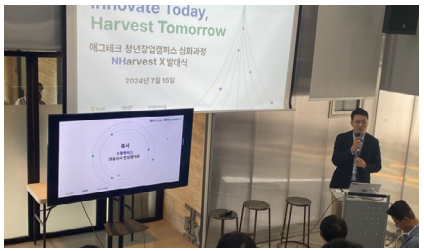
### 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진행

NH투자증권은 농협중앙회 창업농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식품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펀딩은 판로 개척이 필요한 청년농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비자가 투자금액에 대한 보상으로 농산물을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2017년 시작된 이래, 2024년 누적 기준으로 총 198개 농가와 37,821명의 소비자가 참여했으며, 펀딩 누적액은 13억 4,500만 원에 이릅니다.

NH투자증권은 청년농업인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농산물과 제품을 홍보하고, 자금 마련과 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농가에는 신규 판로 개척의 기회를, 소비자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NHarvestX 교육 제공

▲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 박람회

### ❹ 애그테크 청년창업캠퍼스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NH투자증권은 첨단 농업기술 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합니다. '애그테크[1] 청년창업캠퍼스'를 통해 첨단 농업기술인 애그테크 관련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농협중앙회와 함께 애그테크 청년창업 캠퍼스 심화과정 프로그램 'NHarvestX'을 운영하여 농산업 스타트업 11개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2025년에는 지원 대상을 30개사로 확대하고, 농업 혁신 기술이 실질적인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1) 애그테크(Ag-tech)는 농업(Agriculture)과 첨단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전통적인 농업에 생명공학, 인공지능(AI), 로봇 자동화 등 다양한 현대 기술을 융합한 첨단 농업기술을 의미

### ❺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 박람회

NH투자증권은 2024년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 박람회(AFRO)를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은행과 공동 주관하여 농식품 관련 스타트업을 소개하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애그테크,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250개사가 참여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청년농부 부스'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스타트업 간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했습니다.

2025년에는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을 주제로 대기업, 공공기관, 투자기관의 참여를 확대하여 농식품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 ❻ 범농협 애그테크 상생혁신 펀드 운용

NH투자증권은 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과 공동으로 '범농협 애그테크 상생혁신 펀드'를 조성하고, 총 530억 원 규모의 첨단 농업기술(애그테크)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펀드를 통해 농산물 인공지능(AI) 선별기, 자율주행 농기계 등 농업기술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투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업 일손 절감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❼ 희망농업혁신펀드 공동 조성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식량 안보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농업을 지속가능한 미래 첨단산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NH농협은행 등 농협금융그룹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2024년 4월, 총 511억 원 규모의 '희망농업혁신펀드'를 조성하고 이 중 151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펀드는 농촌 현장에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등 혁신 농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 김포 포도농가 봉사활동



### ❽ 범농협 농촌 일손돕기 프로젝트

NH투자증권은 범농협의 일원으로서 국가 주요 기간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ESG본부 직속으로 사회공헌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37개의 사내 봉사단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NH투자증권은 농협중앙회가 지정한 '범농협 한마음 농촌일손 지원의 날'을 맞아 농촌 일손돕기에 참여하였으며, 2024년 6월에는 김포 지역의 포도농가를 찾아 부족한 일손을 도왔습니다.

아울러 전국 31개 결연마을에서 총 1,081명의 임직원이 농번기 일손돕기에 참여한 것을 비롯해,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마을 숙원사업 지원, 농사 지원 및 장학사업 등 다양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 ❾ 농촌마을공동체 지원사업

NH투자증권은 인구 고령화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마을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2019년부터 마을 공동체를 대상으로 전기레인지, 냉장고 등 생활 필수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6개 군의 마을공동체에 냉장고를 지원했으며, 직접적 지원 규모는 약 4.5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냉장고 1,570대를 추가로 기부했습니다.

2025년에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8개 군의 마을 공동체를 대상으로 물품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 ❿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실천 활동

NH투자증권은 범농협의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에 참여하며, 우리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실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에는 '우리 쌀 꾸러미 나눔 행사'를 통해 본사 임직원과 여의도 파크원 입주사 직원을 대상으로, 국산 쌀로 구성된 식재료 꾸러미를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상 속에서 쌀 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2025년 3월에는 CJ프레시웨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본사에 농협쌀을 활용한 아침 간편식 제공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쌀 소비 확대와 임직원 아침 식사 지원을 함께 고려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편식은 본사 내에 비치된 제품을 임직원이 직접 구매·취식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며, 조리 후 배송을 포함해 5시간 이내 섭취하도록 하여 위생과 신선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우리 쌀 꾸러미 나눔 행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쌀 기부

### ⓫ 쌀 기부를 통한 농가 지원과 사회 환원

NH투자증권은 쌀 소비 확대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쌀 기부를 추진하였습니다. 국산 쌀의 소비 촉진은 가격 안정뿐 아니라, 쌀 생산 농가의 경영 여건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은 약 30억 원 규모의 국산 쌀을 직접 구매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사회복지회 등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였습니다. 기부된 쌀은 독거노인, 노숙인,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전달되어, 식생활 지원에 사용되었습니다.

쌀 기부는 농가 판로 확보와 쌀 소비 확대에 도움이 되었으며, 일상적인 방식으로 지역사회 지원을 실천하고자 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앞으로도 NH투자증권은 쌀 기부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Part 2. 이해관계자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열다

# 모두를 위한 투자문화를 확산하다

## 고객경험 확대와 소통 강화를 통한 투자문화 확산

NH투자증권은 '당신의 투자, 문화가 되다' 라는 슬로건 아래,
누구나 쉽고 자연스럽게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브랜드 캠페인과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투자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확산하고,
데이터 기반의 개인화 서비스와 정보 제공을 통해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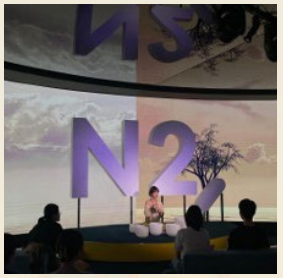
또한 연금과 해외주식 등 다양한 투자영역에서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 혁신을 이어가며,
일상 속에서 투자가 문화로 스며드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NH투자증권은 앞으로도 누구에게나 열린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투자문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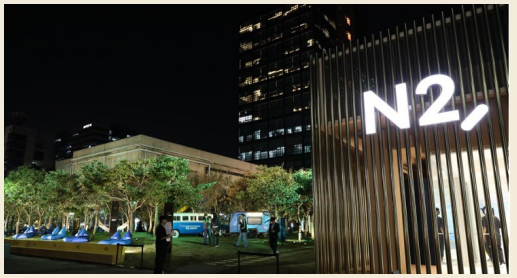
브랜드팝업 'N2, NIGHT'

**45,510명 방문**

KMAC 주관

**소비자가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 선정**




▲ 브랜드 팝업스토어 현장

### ❶ 브랜드팝업 운영을 통한 MZ세대와의 소통 강화

NH투자증권은 2024년 4월, 성수동에서 브랜드 팝업스토어 '자기성장의 시간, 밤에 투자하세요'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금융권에 대한 거리감을 낮추고, MZ세대와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한 브랜드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팝업스토어에는 총 45,510명이 방문했으며, 20대 참여자가 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방문자 대상 조사 결과, 종합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71점, 브랜드 이미지 선호도는 행사 전 대비 92% 상승, 향후 거래 의향은 91% 로 나타났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체질 진단과 F&B 제공, 싱잉볼 및 아로마 명상 체험, 음악 콘서트 등 다양한 자기 성장 활동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그로잉 나이트 (Growing Night)' 세션에서는 경제 유튜버의 자산 배분 강의, 투자 및 인문학 특강 등 금융 콘텐츠를 결합한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 '아우프글렛' 콜라보 디저트 메뉴




▲ 유튜버 '박곰희'의 그로잉 나이트 프로그램



▲ 나이트 러닝 프로그램

### ❷ NH투자증권 공식 유튜브 채널 대상 수상

NH투자증권은 2024년 자사 유튜브 채널 '투자로그인 by NH투자증권'으로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는 '소셜아이어워드'에서 금융혁신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소셜아이어워드는 SNS와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혁신적인 인터넷 브랜딩 및 정보서비스 채널을 선정해 시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소셜 인터넷 서비스 행사입니다.

투자로그인 유튜브는 '가능성을 키우는 업생(UP + 生)'을 콘셉트로, 주식 투자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투자의 진입장벽을 낮췄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NH투자증권은 앞으로도 미래 고객인 MZ세대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창의적인 콘텐츠 제공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 NH투자증권 유튜브 채널 '금융혁신대상' 수상







### ❸ 투자정보 제공 서비스 및 교육

NH투자증권은 투자자산에 대한 분석 역량과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폭넓은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전략, 해외주식 유망종목, 글로벌 채권 및 대체 투자 자산 분석은 물론, AI, 양자 컴퓨팅, 결제 산업, 우주·방위 산업 등 미래 산업과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콘텐츠까지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변화 속에서 고객의 특성과 니즈에 따라 차별화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 세미나, 대면 컨설팅 등 맞춤형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❹ 차트분석 AI '차분이' 서비스 출시

NH투자증권은 금융권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이미지 인식 기능을 활용한 차트 분석 서비스 '차분이'를 출시했습니다. 차분이는 글로벌 생성형 AI 기업인 Open AI사의 ChatGPT를 활용한 서비스로, 2024년 8월 특허 출원을 완료했습니다. 고객이 선택한 차트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정보를 쉽게 풀어 설명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인 나무증권에서 제공되며, 베타 서비스 오픈 첫날 약 2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 ❺ 월간나무 서비스

NH투자증권은 고객의 월별 투자 활동을 음악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월간나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월간나무는 고객의 투자 내역을 시각화하여 해당 기간의 시장 상황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한 뒤 이를 음악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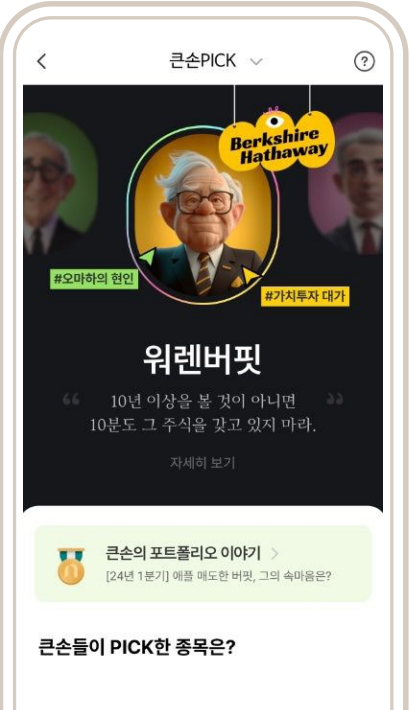
이를 통해 투자가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고객에게 긍정적이고 즐거운 경험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사용자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여 데이터 활용 방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고객에게 더욱 긍정적인 투자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 ❻ 월가의 투자대가 포트폴리오, 큰손PICK 서비스

NH투자증권은 해외주식 서비스 강화를 위해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내에 '큰손PICK'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큰손PICK은 월가 투자대가 5인이 운용하는 헤지펀드의 주식 보유 현황 보고서(13F 보고서)를 기반으로, 이들의 포트폴리오 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고객은 투자 대가들의 분기별 주요 종목과 비중 데이터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포트폴리오 구성 이유와 종목 매수·매도 배경을 설명하는 콘텐츠를 통해 투자 정보를 편리하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앞으로도 기관투자자 데이터를 추가 확보하여 투자 분석 및 종목 발굴 측면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큰손PICK 서비스 이용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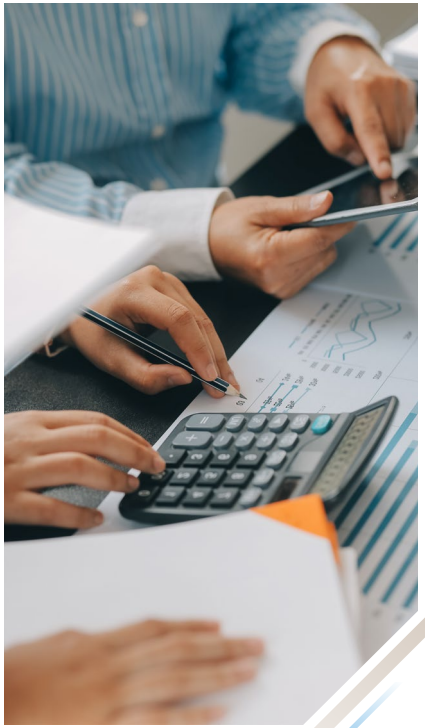


## ❼ 나의 자산진단 서비스

'나의 자산진단' 서비스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산분석 서비스입니다. NH투자증권의 계좌를 기본으로 타사 계좌를 연동해 고객의 자산배분 현황과 보유 상품 관련 상세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NH계좌분석, 수익률 비교분석, 자산배분 분석, 금융상품 분석 등 4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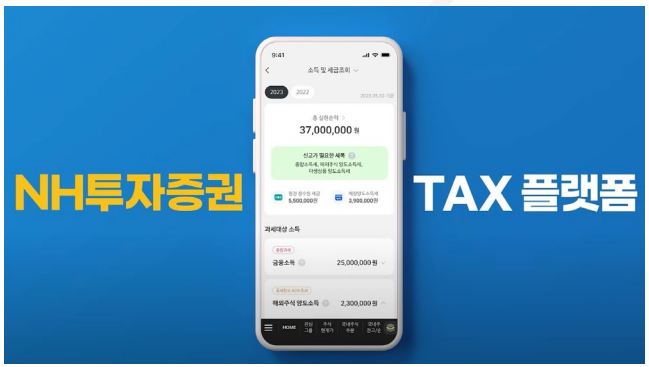
**나의 자산진단 서비스 종류 및 내용**

| | |
|---|---|
| NH 계좌분석 | 투자수익, 입출금 내역, 배당·이자 등 자산 변동 관련 내용을 계좌별, 기간별로 분석해 제공 |
| 수익률 비교분석 | 보유 계좌의 과거 수익률을 이용한 고객 맞춤형 지수를 생성해 각종 주가지수 및 주식, 금융상품의 수익률과 비교하는 시뮬레이션 기능 제공 |
| 자산배분 분석 |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NH투자증권 및 타사 계좌의 자산배분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해 제공 |
| 금융상품 분석 | 보유 중인 국내외 주식 종목에 대한 상세 분석 및 고객 포트폴리오에 대한 개괄적 분석 제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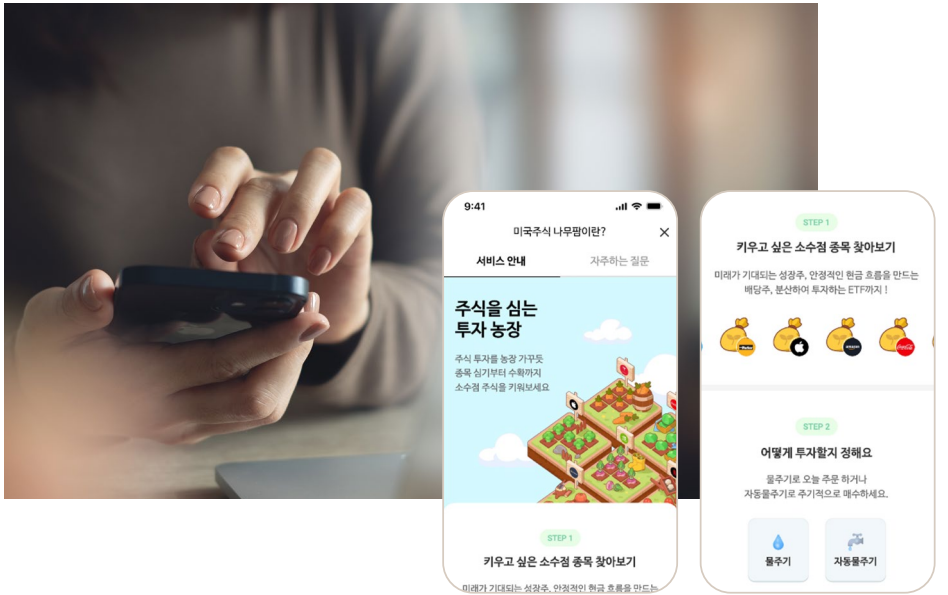





▲ NH투자증권 나무(NAMUH) 및 QV 서비스




▲ NH투자증권 Tax 플랫폼 서비스




▲ 나무팜 서비스 이용 화면

## ❽ Tax 플랫폼 서비스

NH투자증권은 고객의 세금관리를 위한 'Tax 플랫폼'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출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Tax 플랫폼 서비스는 투자 수익 중심 자산관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소득부터 세금까지 한 번에 확인하고 세금신고 대행과 세무 상담까지 연결할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입니다. 고객은 금융소득, 양도소득, 연금소득 등 다양한 소득 발생 현황과 함께 절세 상품 가입 내역, 절세 효과, 최신 절세 콘텐츠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실질적인 세금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Tax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기존에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제공되던 세금관리 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고, 비대면 고객까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고객이 자기 주도적으로 세금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선제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 ❾ 미국주식 나무팜 서비스

NH투자증권은 해외 투자가 어려운 고객을 위해 미국주식 투자 서비스 '나무팜'을 출시하였습니다. 나무팜은 농장을 가꾸는 콘셉트를 기반으로, 소액 투자와 간편한 환전 방식, 시간 부담을 줄인 구조를 통해 투자의 진입장벽을 낮춘 서비스입니다. 고객은 혁신적인 성장주나 안정적인 배당주 등 다양한 종목을 선택해 개인의 '종목 밭'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앱 주문과 적립식 주문 방식을 결합하여, 고객이 일상적인 투자 습관을 자연스럽게 형성하도록 지원합니다. 종목의 주문 체결부터 배당, 잔고 확인과 전환까지 모든 과정을 '종목 밭'에서 손쉽게 관리할 수 있어, 투자 경험의 편의성과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 ⑩ 해외주식 시세포착주문 서비스 출시

'해외주식 시세포착주문 서비스'는 해외주식의 시세가 고객이 설정한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주문이 실행되는 서비스입니다. 사용자는 원하는 감시 및 주문 조건을 등록할 수 있으며, 시세가 조건을 충족하면 매수·매도 주문이 자동으로 체결됩니다. 이 서비스는 미국, 중국, 홍콩, 일본 주식에 적용되며, 매수·매도 주문 외에도 타 종목 감시, 신규 편입, Buy&Sell 주문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감시 기간은 최대 30일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시차로 인해 실시간 시세 확인이 어려운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주식 플랫폼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⑪ 연금목표 모니터링 서비스 런칭

'연금목표 모니터링' 서비스는 고객이 원하는 은퇴 목표액을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자는 연금준비 진단을 통해 예상되는 은퇴시점까지 연금자산 목표 대비 부족한 금액을 점검할 수 있으며, 연간 누적 납입액과 운용 수익률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목표한 연금자산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NH투자증권 연금목표 모니터링 서비스 ▶





### ⑫ 업계 최초 비대면 연금수령체험

NH투자증권은 2024년 업계 최초로 비대면 '연금수령체험'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모든 연금계좌를 대상으로 절세를 고려한 연금 수령 방식을 추천하며, 연금 수령 시 활용 가능한 최적의 연금 개시 방법과 절세 방안을 제안합니다.

### ⑬ 토큰증권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발행·유통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증권사 간 토큰증권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NH투자증권은 건전한 토큰증권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2023년 'STO(Security Token Offering) 비전그룹'을 발족하였으며, 해당 그룹은 금융사, 조각투자사업자, 블록체인 기술기업, 기초자산 평가사 등 다양한 업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기 8개사로 출범한 STO 비전그룹은 현재 14개사로 확대되었으며, 업권 간 의견을 수렴하여 토큰증권 제도와 사업에 대한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토큰증권의 자본시장 제도권 진입에 대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증권사 최초로 조각투자전용 제휴계좌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원화 결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6회에 걸쳐 미술품 기반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지원하였습니다.



Part 2. 이해관계자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열다

# 기업과 시장을 잇는 소통의 장을 열다

## 소통 중심 IR로 기업 신뢰와 투자 이해 제고

NH투자증권은 시장 참여자와 기업 간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IR(기업설명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투자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경영 전략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투자자는 기업의 가치를 심도 있게 이해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연결하는 정기 IR행사,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설명회, 경영진과 투자자 간의 전략 공유를 위한 포럼 행사 등을 통해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투자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THE C FORUM
참가자 60% 증가

중소·중견기업 설명회 개최
총 22회

### ❶ 상장·비상장기업 대상 IR 지원

NH투자증권은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장 단계의 기업들이 시장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업설명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 행사인 'NH Corporate Day'는 약 80개 기업이 참여한 대규모 행사로, 각 기업이 투자자와 직접 연결되는 기회를 제공하며 자본시장 내 소통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장기업은 경영 전략을 명확히 전달하고 주주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으며, 비상장기업은 IPO 준비와 전략적 투자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기업은 투자자와의 접점 형성을 통해, 기업가치에 대한 시장 인식을 높이고 향후 상장 과정에서의 이해도 제고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기업 규모와 성장 단계에 맞춰, 시장과의 소통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투자자 이해 증진을 동시에 고려한 설명회 기획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 특성에 맞춘 실효성 있는 IR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자본시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 THE C FORUM 행사




▲ NHIS Korea Corporate Day 행사

### ❷ 중소기업과의 투자 기회 연결

NH투자증권은 IR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정보 비대칭 해소와 투자 접근성 확대를 위한 맞춤형 기업설명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몰캡[1](소형주) 중심의 설명회를 통해 투자자와의 직접 소통 기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한 해 동안 총 22회의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참여 기업들은 헬스케어, 웨어러블 로봇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을 지닌 기업들로 구성되었으며,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투자자에게도 전략과 비전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NH투자증권은 기업 선정 시 산업의 성장성, 기업의 경쟁력, 정보 접근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 내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자와의 접점이 부족했던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소통 기회를 제공하고, 성장 잠재력을 시장과 연결하는 IR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투자자에게는 더 다양한 투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자본시장 전반의 균형 잡힌 정보 흐름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 스몰캡(Small Cap)이란 소형주(Small Capital)의 약자로 시가총액이 작은 중소기업을 의미

### ❸ 장기 전략 중심의 기업-투자자 소통

NH투자증권은 기업과 투자자 간의 단기 정보 교환을 넘어, 중장기 전략과 비전을 중심으로 한 심화된 소통 방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운영 중인 'THE C FORUM'은 국내 주요 기업의 C-level 경영진과 국내외 투자기관이 참여하는 포럼 기반 행사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성장 전략을 심층적으로 공유하는 장입니다.

2024년 5월 열린 두 번째 포럼은 중동과 아시아 국부펀드, 글로벌 연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확대되며, 전년 대비 등록 참가자 수가 60%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장기 전략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정교한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THE C FORUM은 2023년에 이어 연속 개최되었으며, 전략 중심의 기업-투자자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기업에는 명확한 메시지 전달의 기회를, 투자자에게는 신뢰 기반의 심화된 소통 환경을 제공하며, 장기적 관점의 투자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❹ 해외 기관투자자 대상 IR 확대

NH투자증권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투자 기반 확대를 위해, 해외 기관투자자와의 소통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에는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NHIS Korea Corporate Day'를 개최하고, 국내 주요 상장기업 9개사와 아시아 지역 40여 개 투자기관 간의 접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권 투자자에게 한국 기업의 전략과 성장 가능성을 직접 전달하고, 글로벌 자본시장과의 연결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여 기업은 해외 투자자와의 실질적인 소통을 통해 중장기적 투자 검토를 유도하고, 기업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앞으로도 주요 글로벌 금융 거점을 중심으로 IR 활동을 지속 확대하며, 국내 기업이 해외 자본과 전략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자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 THE C FORUM 행사





# INTRODUCTION


회사개요 25
사업소개 31
Value Chain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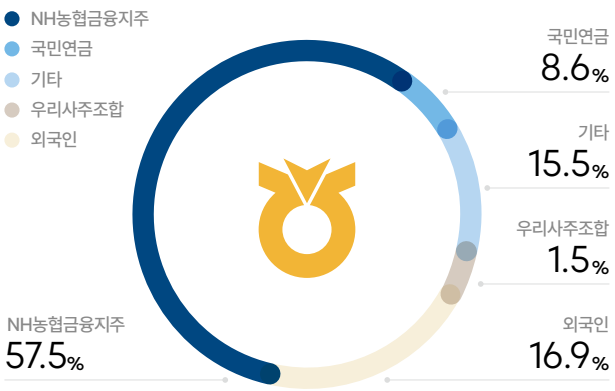
# 회사개요

## NH투자증권 프로파일

NH투자증권은 1969년 창립 이래 50여 년 동안 고객과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중심경영을 실천한 결과, 전 사업 부문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대표 종합금융투자회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NH투자증권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차별화된 서비스와 포괄적인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자본시장을 선도하는 종합금융 투자회사로 나아가겠습니다.

### 주주 현황

* 2024년 12월 말 기준




## AT A GLANCE

* 2024년 12월 말 기준



1969. 01
설립연월

3,128 명
임직원 수



62.4 조 원
총 자산

8.1 조 원
자기자본



국내신용등급 AA+
S&P A-
Moody's A3
신용등급

57 개
(영업소 4개 포함)
국내 영업점 수

8 개
(사무소 1개 포함)
해외 거점 수



9,011 억 원
영업이익

6,866 억 원
당기순이익

# 회사개요

## 연혁

### 1969-2000

**1969.01**
- 한보증권주식회사 설립

**1975.07**
- 생보증권 흡수합병, '대보증권'으로 사명 변경

**1983.11**
- 대보증권과 럭키증권 합병, '럭키증권'으로 사명 변경

**1995.03**
- 'LG증권'으로 사명 변경

**1999.10**
- LG종금과 합병, 'LG투자증권'으로 사명 변경

### 2001-2019

**2004.12**
- 최대주주 변경 (LG그룹 → 우리금융지주)

**2005.04**
- 우리증권과 합병, '우리투자증권'으로 사명 변경

**2014.06**
- 최대주주 변경 (우리금융지주 → NH농협금융지주)

**2014.12**
- NH농협증권과 합병, 'NH투자증권' 출범

**2015.01**
- NH투자증권 신주 교부

**2015.04**
- NH투자증권 비전 선포식 개최

**2015.05**
-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의 IT통합 완료

**2015.12**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취득

**2016.01**
- 입체적 자산관리 서비스 'QV(큐브)' 출시

**2016.04**
- 인사제도 및 노동조합 통합 완료

**2016.07**
-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 지분 취득 (지분율 10%)

**2016.08**
- 업계 최초 헤지펀드 운용업 진출 (NH앱솔루트리턴 제1호 출시)

**2016.12**
- 증권사 최초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득

**2017.08**
- 소비자가 뽑은 좋은 증권사 선정 (금융소비자연맹)
- 업계 최초 모바일 증권 '나무(NAMUH)' 평생 무료수수료 이벤트 실시

**2017.11**
- 초대형 투자은행 선정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2018.01**
- 베트남 현지법인 100% 자회사 편입

**2018.06**
- 단기금융업 인가 취득

**2018.07**
- 발행어음 판매 개시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 선정

**2019.05**
- 브랜드비전 (Investment Culture Creator) 선포

**2019.10**
- 국내 증권사 최초 ESG Report 발간

**2019.11**
-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조사 – 증권부문 1위

**2019.12**
- 헤지펀드 전문 운용자회사 'NH헤지자산운용' 설립

### 2020-2025

**2020.02**
-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디지털 혁신 및 AI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0.04**
- KAIST와 UX디자인 연구센터 설립

**2020.05**
- 브랜드 비전을 담은 복합 문화공간 '문화다방' 오픈

**2020.07**
- 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과 마이데이터(MyData) 활용을 위한 공동연구 MOU 체결

**2020.08**
- 카카오페이 인증 도입

**2020.10**
- 30억 원 이상 초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PB 서비스' 론칭

**2020.12**
- 오픈뱅킹 서비스 오픈

**2021.03**
- MZ세대 고객을 위한 팝업스토어 'NH슈퍼스톡마켓' 오픈

**2021.05**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득

**2021.11**
- 베트남 최대 인터넷은행 플랫폼 'Timo'와 MOU 체결

**2021.12**
- 대한민국 디지털경영혁신대상 대통령상 수상
- 2021년 연간 영업이익 1조 원 달성

**2022.04**
- 런던 현지법인 'NHIS Europe' 출범

**2022.05**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3기 전담운용기관 재선정
- ESG위원회 출범

**2022.07**
- 환경경영 국제표준 'ISO 14001' 인증 취득

**2022.08**
- 'Tax센터' 출범

**2022.10**
- 펀드수탁업무 개시

**2022.12**
- 종합자산관리 플랫폼 'NH올원 어카운트' 출시
- 정보보호 국제표준 'ISO/IEC 27001' 인증 취득

**2023.02**
- 토큰증권 협의체 'STO 비전그룹' 출범
- 업계 최초 바이오차(Biochar) 자발적 탄소배출권 사업 추진
- 업계 최초 '24시간 미국주식 매매 서비스' 제공
- 업계 최초 '다이렉트인덱싱 서비스' 출시

**2023.03**
- SK임업과 '글로벌 온실가스감축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MOU 체결

**2023.04**
- 업계 최초 앱테크 서비스 '시드(seed)' 오픈

**2023.08**
- 조각투자 사업자 지원을 위한 '투자계약 증권 All-in-One 서비스' 출시
- 안전보건 국제표준 'ISO 45001' 인증 취득

**2023.09**
- 글로벌 주식 중개 서비스사 '인스티넷 유럽'과 MOU 체결
- 토큰증권 증권사 컨소시엄 구성

**2023.10**
-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 'ISO/IEC 27701' 인증 취득

**2023.11**
- 비상장주식 거래 서비스 오픈
- K-RE100 가입
- 업계 최초 'TAX 플랫폼' 서비스 오픈

**2023.12**
- 배당기준일 변경 (先 배당액 확정, 後 배당기준일)

**2024.02**
- 베트남 현지법인 신규 MTS 'NHSV Pro' 출시
-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oREi) 가입

**2024.03**
- 환경부 '배출권 거래 중개 시스템 도입 시범사업 참여자' 단독 선정
- 증권업계 최초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 'APEC CBPR' 취득

**2024.04**
- 브랜드 팝업스토어 'N2, Night' 개최

**2024.06**
- '큰손PICK' 서비스 출시

**2024.07**
- 아시아 최초 UN 기후기금(GCF) 운용기관 선정
- 유튜브 채널 '투자로그인' 2024 소셜아이어워드 금융 혁신대상 수상

**2024.09**
- 금융권 최초 생성형 AI 활용 차트 분석 서비스 '차분이' 출시

**2024.10**
- 업계 최초 동남아 최대 대체거래소 (Alta Exchange) 회원 자격 획득

**2024.11**
-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보고서상(KRCA) 금융부문 우수상 수상

**2024.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
- 업계 최초 'AI 산학협력센터' 설립 MOU 체결

**2025.02**
- AI 기업 'Perplexity'와 투자 정보 서비스 도입 MOU 체결

**2025.03**
- 업계 최초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전략 고객선택권' 출시

# 회사개요

## 비전&핵심 가치

NH투자증권은 통합 출범 이듬해인 2015년 4월, '최고를 넘어, 새로운 역사를 여는 NH투자증권(Beyond the First New History, We are NHIS)'이라는 비전과 함께 핵심가치인 'ORIGIN'을 선포하였습니다. 'ORIGIN'은 고객지향(Orientation), 책임감(Responsibility), 혁신(Innovation), 글로벌(Global), 전문성(Intelligence), 네트워크(Networks)의 영문 머리글자를 조합한 것입니다. 이는 구성원 각자가 업무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 자본시장의 기준점이 되자는 신념을 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책임감 있는 경영활동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창의적 혁신과 독보적인 금융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며, 지속적인 비즈니스 확장으로 더 큰 가치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비전

Beyond the First

최고를 넘어

New History

자본시장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We are NHIS

대표 금융투자회사, NH투자증권

핵심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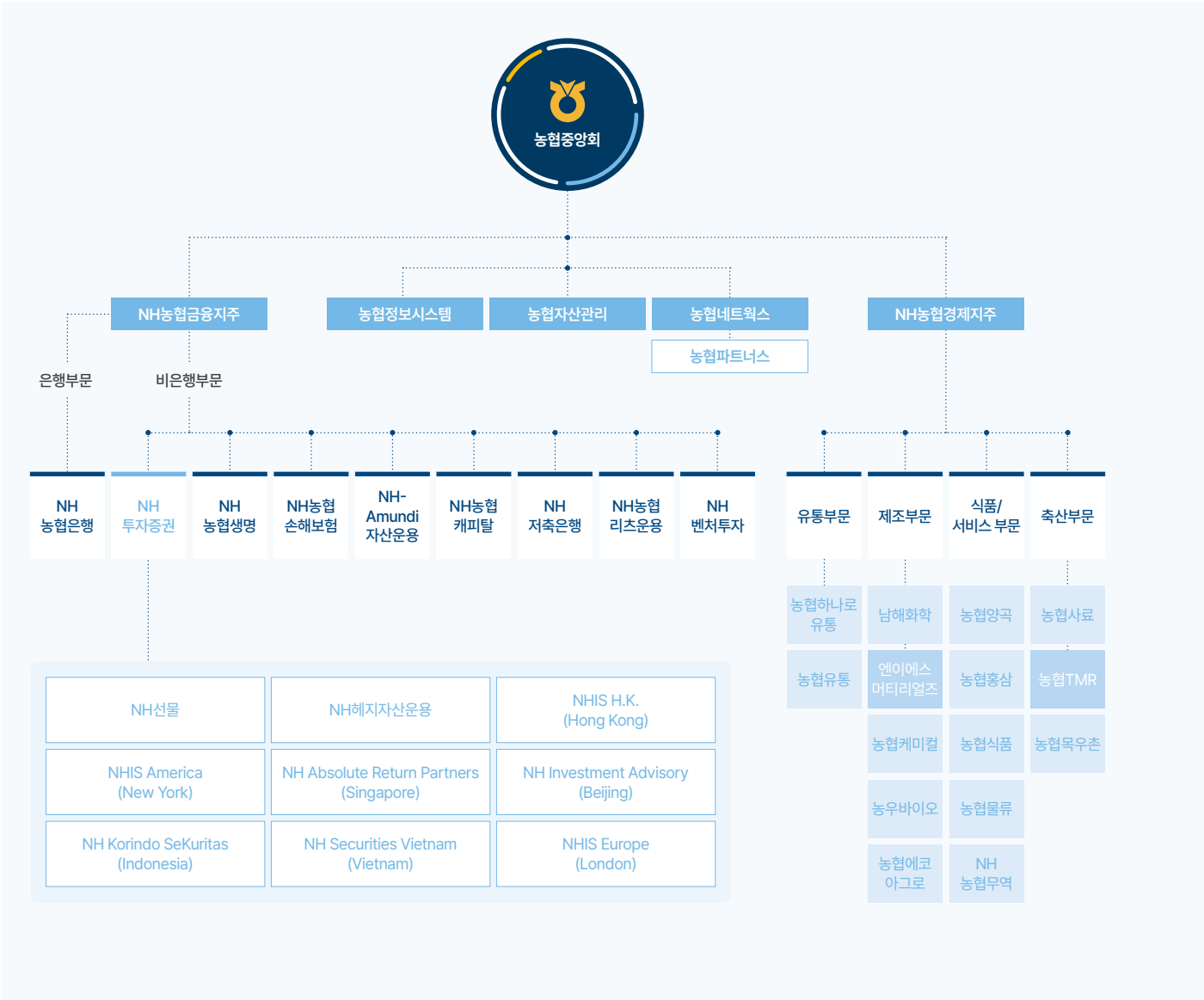
| O | R | I | G | I | N |
|---|---|---|---|---|---|
| **Orientation** 고객지향 | **Responsibility** 책임감 | **Innovation** 혁신 | **Global** 글로벌 | **Intelligence** 전문성 | **Networks** 네트워크 |
|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br>Our clients' interests always come first | 강한 책임감으로 신뢰를 쌓아간다<br>We build trust through strong responsibility | 창의적 사고로 혁신을 주도한다<br>We innovate through creative thinking | 글로벌 관점에서 기회를 창조한다<br>We create opportunities through global perspective | 독보적 전문성으로 금융솔루션을 제공한다<br>We provide financial solutions based on superior expertise | 협업을 통하여 시너지를 창출한다<br>We work together to generate synergy |

# 회사개요

## NH농협그룹 개요

농협은 농업인을 중심으로 출범한 대한민국의 대표 협동조합으로, 지속적인 조직 및 사업 정비를 통해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2012년 3월 농협중앙회는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여 NH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경제지주 등의 자회사로 사업구조를 개편하였습니다.

NH농협경제지주는 농업인이 영농활동에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생산·유통·가공·소비 등 다양한 경제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NH농협금융지주는 농협 본연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 확보와 수익 창출 외에도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대표 금융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 회사개요

##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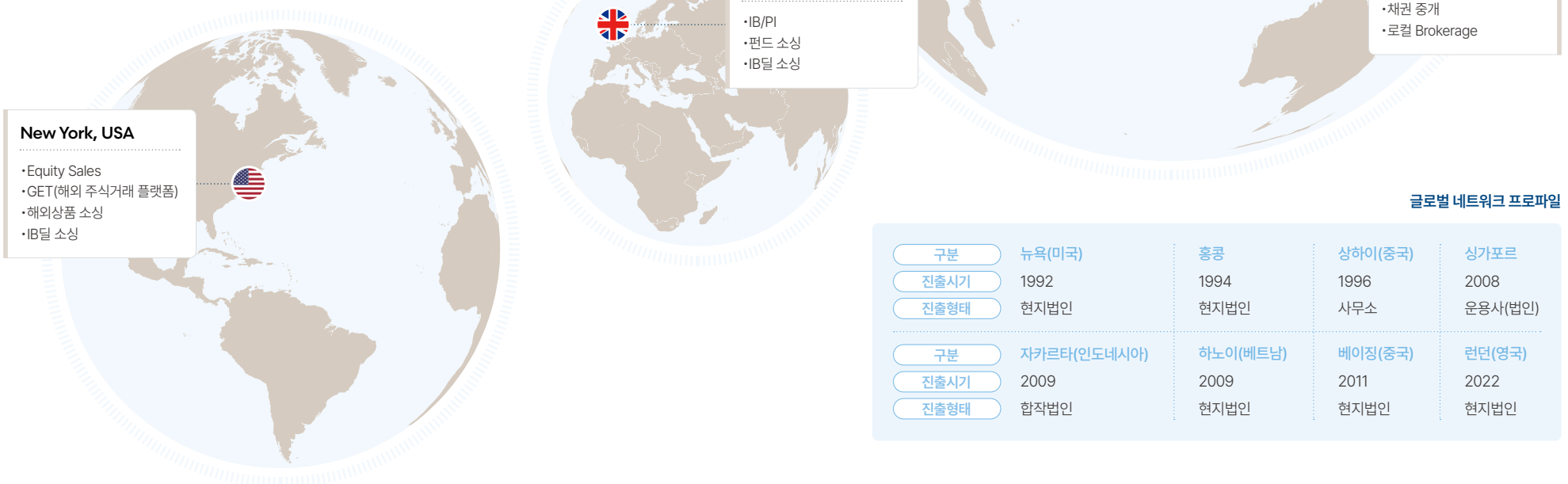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감사부문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ESG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Retail사업총괄부문
WM사업부
Digital사업부
IB1사업부
PE본부
리스크관리본부
IB2사업부
경영전략본부
리서치본부
운용사업부
Global사업본부
준법지원본부
Wholesale사업부
경영지원부문
금융소비자보호본부
OCIO사업부
O&T부문
정보보호본부

# 회사개요

## 글로벌 네트워크

NH투자증권은 1992년 뉴욕 진출을 시작으로 2024년 말 기준 8개의 해외거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기 주식 중개 위주였던 글로벌 사업은 현재 본사 사업부와의 협업을 통해 IB, 해외채권, 글로벌 상품 소싱 및 해외주식 중개 등으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며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성공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본사의 디지털 사업 역량을 기반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으며, 싱가포르 법인(NH ARP)은 2024년 7월 아시아 최초로 UN 산하 녹색기후기금(GCF)의 펀드 설립 및 운용기관으로 선정되어 펀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2025년에도 차별화된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내 증권업계에서 글로벌 사업을 선도하는 Top-tier 증권사로서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프로파일**

| 구분 | 뉴욕(미국) | 홍콩 | 상하이(중국) | 싱가포르 |
|---|---|---|---|---|
| 진출시기 | 1992 | 1994 | 1996 | 2008 |
| 진출형태 | 현지법인 | 현지법인 | 사무소 | 운용사(법인) |

| 구분 | 자카르타(인도네시아) | 하노이(베트남) | 베이징(중국) | 런던(영국) |
|---|---|---|---|---|
| 진출시기 | 2009 | 2009 | 2011 | 2022 |
| 진출형태 | 합작법인 | 현지법인 | 현지법인 | 현지법인 |

# 사업소개

## WM사업부

### 사업소개

WM사업부는 리테일 HNW[1] 고객을 대상으로 Advisor의 인적 서비스 중심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HNW 고객 자산관리를 전담하는 4개의 지역본부와 UHNW[2]에 특화된 서비스 점포인 Premier Blue본부를 운영하며, 총 5개 본부, 53개 영업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산관리 서비스의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인적서비스 채널을 '대형·금융센터'와 '지역거점센터'로 구분하여 고객의 자산규모와 투자스타일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형·금융센터에서는 고액자산가를 위한 '패밀리오피스서비스'와 같은 전문적이고 특화된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탁자산 100억 원 이상의 초고액 자산가들이 겪는 변화와 고민에 주목하여 전통적인 자산관리뿐 아니라 IB 연계 자문과 가문 관점의 비재무적 니즈까지 충족시키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10월 도입된 패밀리오피스 서비스의 누적 이용 가문 수는 2024년 기준 77가문 증가하여 총 141가문을 기록했습니다.

지역거점센터는 NH투자증권의 슬로건인 "당신의 투자, 문화가 되다" 아래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지역 세미나, 생애자산관리 교육 프로그램인 '100세시대 아카데미-명사특강' 등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상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추진방향

법인 오너 중심의 영업기반 확대 및 패밀리오피스 서비스 강화를 위해 Premier Blue본부와 WM법인본부를 통합하여 UHNW 고객의 자산관리에 더욱 집중할 계획입니다. NH투자증권의 경쟁력인 IB 및 OCIO사업부와 협업하여, 법인의 자금조달, 기관전용 IB상품을 활용한 자금운용, OCIO[3] 위탁 운용 서비스 등 기관투자자 수준의 PIB[4]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과 기업 오너의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솔루션 체계를 마련하고, 차세대 CEO를 위한 자녀교육, 가업 승계 및 기부·재단설립 관련 자문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리테일 자문 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HNW 고객을 위한 통합적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금융상품 중심의 AST(Advisory Solution Team: 펀드, ELS, 채권, Wrap, Tax, 투자정보 지원 팀)에 주식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부동산, 절세, 퇴직연금 등 다양한 분야로 자문 서비스를 넓혀가겠습니다. 차별화된 대면 컨설팅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투자의견을 제시하고, 시의적절한 투자제안과 콘텐츠를 통해 고객의 초개인화된 니즈를 충족할 것입니다. 또한 화상상담 시스템 운영과 지역거점센터의 AST 컨설턴트가 상주하는 'Focus Day'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컨설팅 접근성을 높여가겠습니다.

* 2024년 12월 말 기준

패밀리오피스서비스 누적
141 가문

총 고객자산
168.1 조 원
* 위탁자산 및 금융상품자산 포함

1억 원 이상 고객 수
209,010 명

## Digital사업부

### 사업소개

Digital사업부는 디지털 채널 중심의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Digital플랫폼본부'와 'Digital자산관리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Digital플랫폼본부는 플랫폼 고객을 위한 서비스 기획, UI·UX 개선 및 콘텐츠 개발을 담당하며, 애자일(Agile) 방식의 신속한 대고객 서비스 개발을 주요 미션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Digital자산관리본부는 '자산관리 니즈 고객 발굴'과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역할을 세분화하여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전문적인 투자 상담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업부 직속으로 '디지털영업추진부'와 'AI솔루션부'를 신설하여 고객 전략 및 중장기 사업 로드맵에 따른 고객 기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생성형 AI(Gen AI) 서비스 개발 및 효과적인 도입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Digital사업부는 생성형 AI 기반으로 복잡한 차트 이미지를 쉽게 해석해주는 '차분이', 글로벌 투자 대가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큰손Pick', 게임 요소를 접목해 금융 활동 몰입도를 높이는 '나무팜', 생활 밀착형 금융 플랫폼 'MTS'[5] 등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 지원 강화, 일상생활과 금융서비스의 융합, AI 기반 서비스 고도화 등을 지속 추진하며 고객의 투자 경험과 금융 생활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 추진방향

Digital사업부는 글로벌 시장 투자 확대와 제도 변화 등 외부 환경에 대응하고 다변화된 고객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국내외 주식을 아우르는 Global Brokerage[6] 사업 체계 재편, 글로벌 플레이어와의 파트너십 확대, MTS UX의 편의성 개선 및 플랫폼과 Human Advisor를 결합한 하이브리드(Hybrid) 서비스 구축을 통해 글로벌 브로커리지 사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둘째, 연금 및 세제 혜택 상품 중심의 Lock-in 연금사업 모델을 강화하고, 외부 영업 채널 활용을 확대하며 연금 관련 UX 개선을 통해 변동성이 낮은 연금과 ISA 상품 투자를 늘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Cross-sell을 촉진할 수 있는 앵커(Anchor) 자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셋째, 국내외 이종 채널과의 제휴로 외부 고객을 적극 확보하는 'Acquisition', 고객 타겟별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실투자자 전환을 촉진하는 'Activation', 적립식 및 정기투자 중심 투자 지원과 AI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한 고객 유지 전략 'Retention',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통한 디지털 부유층 고객 확대 전략인 'Revenue' 단계를 실행하여 차별화된 고객 확대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 2024년 12월 말 기준

디지털 고객 수
5,238,665 명
* 나무/QV 비대면 계좌 누적 수

나무 MTS 20~30대 고객 비율
47.2 %

CHECK

1) 고액순자산보유자(HNW: High Net Worth)란 금융서비스 업계에서 특정 기준 이상으로 유동 자산을 유지하는 개인을 의미
2) 초고액 자산가(UHNW: Ultra High Net Worth)란 투자가능한 금융자산이 30억 원 이상인 개인을 의미
3) OCIO(Outsourced Chief Investment Officer)란 전문가가 자산보유자의 자금을 위탁 받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서비스
4) PIB란 프라이빗뱅킹(PB)과 투자은행(IB)이 결합된 용어로, 기업가와 자산가를 대상으로 종합 자산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
5)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obile Trading System)의 약자로 금융투자를 위한 플랫폼을 의미
6) 글로벌 브로커리지(Global Brokerage, GBK)란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종목에 투자하는 방식

# 사업소개

## IB1/2사업부

### 사업소개

IB1사업부는 기업자문, 인수금융, 직접금융시장 조달 등 다양한 기업금융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DCM(Debt Capital Market)과 ECM(Equity Capital Market) 리그테이블에서 최상위권(Top-tier)의 지위를 유지하며, 축적된 노하우와 강력한 고객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들의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IB2사업부는 대체자산 소싱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외 대체자산 시장의 전문성을 갖춘 리딩 플레이어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2024년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주거 및 비주거시설 전반에 걸친 폭넓은 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부동산 금융 전 영역에서 시장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며 업계 내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기술 투자 확대의 일환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압해 풍력발전소 지분 투자, 자원순환 관련 지글러 4차 충청도 선별장 지분 인수 등을 통해 녹색금융 분야의 투자 저변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부동산 블라인드펀드 GP 운용을 개시하는 등, 사업 영역의 다각화를 통해 대체투자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 추진방향

2025년 IB1사업부는 전통적인 IB 사업 영역을 넘어 시장 전반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IPO, 증자, 블록딜, 주식연계채권 등 ECM(Equity Capital Market) 상품에 대한 신디케이션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의 외화채권 및 역외 외화조달 관련 DCM(Debt Capital Market) 영업을 전담하여 고객의 외화시장 접근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부가 인수한 우량 딜을 사내 및 범농협 계열사로 공급하여 양질의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수익성 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IB2사업부는 2024년의 고금리 지속과 부동산 PF 부실 우려 등 어려운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자산 및 시장 모니터링 강화, 충당금 추가 설정, 부동산 PF ABCP[1] 매입 프로그램 지속 참여 등 리스크 관리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철저한 리스크 관리 하에 선별적 인수를 진행하고, 인수한 딜에 대해서는 셀다운(Sell-Down, 인수 후 재매각)을 적극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수익 성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IB2사업부는 부동산을 비롯한 다양한 대체자산 투자 전 단계에 걸친 금융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업계를 선도하는 토탈 서비스 플레이어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겠습니다.

* 2024년 12월 말 기준

여전채 FB 대표주관 순위
29.8 %(점유율) 1위

일반회사채 SB 대표주관 순위
19.9 %(점유율) 2위
* ABS, FB 제외

유상증자 대표주관 순위
15.9 %(점유율) 2위

IPO 대표주관 순위
12.0 %(점유율) 4위

## 운용사업부

### 사업소개

운용사업부는 안정적인 운용 역량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상품을 제공하며, GlobalFI본부, Client솔루션본부, 전략운용본부 등 총 3개의 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lobalFI본부는 채권 운용 및 중개 등 채권 관련 비즈니스를 담당하며, 자금의 운용 목적에 따라 대고객북과 Prop북 전담 부서로 재편하여 자금 성격별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Client솔루션 본부는 ELS[2], DLS[3] 등 파생결합상품과 Swap[4]과 같은 장외파생상품을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를 수행합니다. 파생결합상품의 구조 설계부터 가격 결정, 고객 공급 및 구조별 Pay-Off 운용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략운용본부는 고유계정을 활용해 주식과 메자닌(Mezzanine)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합니다. 시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경제 및 금융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차별화된 투자전략을 바탕으로 유망 투자자산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투자뿐 아니라 효과적인 회수 전략을 병행하여 안정적인 투자 사이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추진방향

운용사업부는 고객 자산의 성장을 돕는 최적의 상품 제공과 안정적 운용 역량을 통해 시장 지위를 확고히 하고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사업 모델을 완성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벤치마크를 초과하는 운용 성과를 달성하고, 초과 수익의 적정성을 면밀히 평가하여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운용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용 성과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달정책 참여도를 확대하여 사업 모델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참여를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고 운용 수익을 창출하는 등 신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양한 구조의 파생결합상품 운용 역량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업계를 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사 FX[5] 통합 창구로서 환전 서비스 등 FX 관련 사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통해 실거래 기반으로 외환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야간 환전 등 폭넓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은 고객 Flow 확대를 통해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 2024년 12월 말 기준

채권운용규모
16.4 조 원

외국인 채권 투자자 원화채권 증개 규모
12.5 조 원
2023년 대비 약 300% 이상 증가

FX/CRS[6]/IRS[7] 거래 잔고
5.7 조 원
2023년 대비 약 100% 증가

CHECK

1) ABCP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sset Backed Commercial Paper)의 약자로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
2) ELS란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의 약자로 주가지수나 주식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률 결정
3) DLS란 파생결합증권(Derivatives Linked Securities)의 약자로 이자율, 환율, 금, 원유 등의 기초자산 변동에 따라 수익률 결정
4) Swap이란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으로,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일대일 계약으로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의미
5) FX란 Foreign eXchange의 약자로 외환을 이용한 금융거래상품을 의미
6) CRS란 Currency Rate Swap의 약자로 계약상대방이 서로 다른 통화의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거래를 의미
7) IRS란 Interest Rate Swap의 약자로 계약상대방이 동일통화의 명목원금에 대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교환하는 거래를 의미

# 사업소개

## Wholesale사업부

### 사업소개

Wholesale사업부는 국내 주요 공모·사모 자산운용사, 국민연금· 사학연금과 같은 연기금, 보험사·은행 등 자금 운용기관을 비롯하여 Long Fund, Hedge Fund, 글로벌 IB까지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부 내 기관Coverage 본부는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위탁영업을 담당하며, 오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확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년 국내 기관 영업 업계 1위를 목표로 안정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Passive솔루션본부는 INDEX 투자 중개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다양한 Passive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지속 성장 중인 ETF 시장에서 LP(유동성공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Prime Brokerage본부는 사모펀드에 대한 PBS[1] 전담 계약체결 및 위탁영업, 신용공여 서비스와 함께 Swap 거래, 대차·대여 중개 등 사모펀드 및 전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추진방향

Wholesale사업부는 업계 최고의 고객 네트워크와 최적의 시스템, 장기간 축적된 레퍼런스 및 전문 솔루션 제공 역량을 바탕으로 주요 비즈니스 영역에서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관 고객 중개 비즈니스에서 확고한 1위 자리를 유지하면서 신규 사업의 안정화 및 추가 비즈니스 기회 발굴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년에는 국내 주식시장 공매도 전면 금지로 인해 대차솔루션[2] 및 SWAP 등 주요 사업 분야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공매도 제도 전면 개편에 맞춰 내부통제와 시스템을 재정비하였으며, 2025년 2분기 공매도 재개를 대비하여 영업 정상화 및 글로벌 IB와의 협력을 통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ETF LP·Market Making 시장의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당사의 LP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단기 성과보다는 핵심 고객에 집중하고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여 중장기적으로 수익 기반을 확대하고 Wholesale 플랫폼을 더욱 견고히 구축할 예정입니다.

* 2024년 12월 말 기준

수탁잔고
15 조 원
2023년 대비 3배 성장

PBS 헤지펀드 AUM[3] 순위
1 위
2022년 대비 2배 성장

CHECK
1) PBS란 Prime Brokerage Service의 약자로 증권사가 고객사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의미
2) 대여자에게 주식, 채권을 빌려 대차 수요자에게 중개해주는 비즈니스
3) AUM이란 운용자산(Assets Under Management)의 약자로 금융기관이 고객을 대신하여 관리하는 모든 금융 자산의 가치를 의미

## OCIO사업부

### 사업소개

OCIO사업부는 고객의 자산관리 및 운용을 전담하고 있으며, 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운용부문과 신규 고객 발굴 및 대고객 서비스를 담당하는 마케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자산운용 역량과 상품군에 대한 풍부한 투자경험을 바탕으로, 주택도시기금을 비롯한 정부 주요 대형기금, 공공기관, 공제회, 일반법인, Family Office 등 다양한 고객의 OCIO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형기금뿐만 아니라 중소형 법인, Family Office, 거액 자산가 등 폭넓은 고객층의 투자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OCIO업계의 대표 플랫폼 플레이어로서 고객 니즈를 충족하는 다양한 투자솔루션을 제공하여, 자본시장 내 '1st Tier Platform Player'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 추진방향

NH투자증권은 OCIO 시장 성장에 발맞추어 마케팅 및 운용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자산운용사 중심의 기존 OCIO 산업구조를 재편할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총 5건의 공개경쟁 입찰 중 4건을 수주하며 NH OCIO의 운용 안정성, 뛰어난 성과 및 고객 자문 서비스의 우수성을 고객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자산운용사와 경쟁했던 금융투자협회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단독 선정되어, OCIO 운용 역량의 경쟁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앞으로 NH투자증권은 AUM 확대, 운용 역량 강화, 사내 시너지 극대화를 통해 미래 수익 창출 기반을 확보하고 회사의 성장 가치에 기여할 것입니다. 2025년에는 기금형 OCIO 마케팅을 강화하고 일반형 OCIO 고객 유치를 확대하여 AUM 증대에 더욱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형기금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는 다른 투자 수요를 가진 일반 법인 및 HNW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최적의 자산 배분을 통해 초과 수익을 극대화하고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변동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산운용사 대비 우수한 운용 경쟁력을 지속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 2024년 12월 말 기준

OCIO 운용규모
6.6 조 원

# Value Chain

NH투자증권은 비즈니스 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가치를 높이는 책임 있는 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INPUT | | OUTPUT | |
|---|---|---|---|
| **재무적 자본** | | | |
| 62조 4,271억 원<br>총자산 | 8조 1,194억 원<br>자기자본 | 6,866억 원<br>당기순이익 | 6,867억 원<br>지배주주순이익 |
| 8조 1,144억 원<br>지배주주지분 | | 3,293억 원<br>주주배당금 | 9,387억 원<br>이자비용 |
| | | 2,382억 원<br>정부법인세 | |
| **인적 자본** | | | |
| 3,128명<br>임직원 수 | 272명<br>신규채용 | 81시간<br>임직원 1인당 평균 교육시간 | 43.1%<br>여성임직원 비율 |
| | | 33.9%<br>여성관리자 비율 | |
| **지적 자본** | | | |
| 251억 원<br>디지털 혁신 투자금액 | 6건<br>외부 디지털 역량 확보(산학협력, MOU) | 7개[1]<br>빅데이터, AI, 모바일 플랫폼 기반 서비스 론칭 | NH테크보드(Chat GPT) 운영<br>내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NH테크보드 운영 |
| **사회적 자본** | | | |
| 6,426명<br>사회공헌 참여인원 수 | 24개<br>중소농가 육성 크라우드 펀딩 지원 농가 수 | 66억 원<br>사회공헌 금액 | 1억 4,640만 원<br>천사펀드 지원금액 |
| 3회<br>중소농가 육성 라이브커머스 개최 수 | 6개군 마을공동체 지원<br>농촌마을 지원사업 | 2억 1,371만 원<br>중소농가 육성 크라우드 펀딩 금액 | 1,814만 원<br>중소농가 육성 라이브커머스 금액 |
| | | 4억 5,000만 원<br>농촌마을 지원사업 가치창출액 | |
| **자연 자본** | | | |
| ESG위원회 운영, 탄소금융부 승격 등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 강화 | 지속가능성 기반 투자원칙 운영 | 1조 3,180억 원<br>녹색금융 투자금액 | 탄소배출권 거래시장(K-ETS) 시장조성자 지정 |
| | | 증권사 최초 바이오차(Biochar) 기반 탄소배출권 프로젝트 투자 | |
| **제조 자본** | | | |
| 57개(영업소 4개)<br>국내 영업점 | 현지법인 8개(사무소 1개)<br>해외 현지법인 | 2023년 7.6조 원 → 2024년 8.1조 원<br>자본 확대 | 2023년 15개 → 2024년 16개<br>금융센터 오픈 |

1) 배당서비스, 발행어음 모으기, 배당주는 나무 AI, 미국주식 양도 소득세 레이더, 나무팜, 공모주 근황 월드컵, 차트분석 AI



# SUSTAINABILITY FRAMEWORK


지속가능경영 36
지속가능금융 37
Sustainable Highlights 39

# 지속가능경영

##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

NH투자증권은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 과정을 점검하고, 이사회의 감독과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협의회는 지속가능경영 과제의 실행 계획을 논의하고, 이행 현황 및 주요 이슈를 점검하는 실무 협의체입니다. ESG본부와 그 산하의 ESG추진부는 실무조직으로 참여하여, 지속가능경영 관련 주요 과제의 실행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 체계**

* 2025년 3월 말 기준




## ESG위원회

ESG위원회는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실행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정책의 관리와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협의회로부터 주요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이행 현황에 대한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ESG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되어 경영 전반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 ESG위원회는 지속가능경영 이슈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춘 4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속가능경영 활동, 중대성 평가 결과, 탄소중립 추진과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 총 3회의 ESG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평균 참석율은 92%입니다.

**2024년 ESG위원회 운영현황**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
| 2024. 04. 19. | • ESG 중대성 평가 결과 보고<br>•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추진과제 보고 |
| 2024. 07. 18. | • 2024년 지속가능통합보고서 발간 보고 |
| 2024. 11. 22. | • 탄소금융 비즈니스 현황 보고<br>• 기후 시나리오 분석 수행 계획 보고<br>• 2025년 지속가능통합보고서 발간 계획 보고 |

## 지속가능협의회

지속가능협의회는 지속가능경영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경영지원부문장 및 본부장급의 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금융 분야에 대한 이해를 갖춘 외부 위원을 선임하여, 회사의 정책 및 실행 방향에 전문성과 다양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총 3회의 지속가능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주요 이슈를 논의하였습니다.

## ESG본부

NH투자증권은 2024년 경영지원부문 내 ESG본부를 신설하고 조직을 재정비하여 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를 고도화하였습니다. ESG본부 산하에 ESG추진부와 홍보실을 편제하여 대외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강화하고, 전사적인 사회공헌 활동 추진을 위해 사회공헌단을 추가 편입하였습니다.

# 지속가능금융

## 지속가능성 기반 투자원칙

NH투자증권은 투자 및 사업 운영 과정에서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으며, 의사결정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 요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환경사회투자정책'에 따라, 투자 실행 전 해당 거래가 환경오염이나 인권침해 등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사회와 시장에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함께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를 기준으로 삼아, 투자가 해당 목표에 부합하고, 환경·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뿐 아니라 인권 보호, 산업안전, 지배구조의 건전성 등 주요 지속가능성 이슈 전반에 대한 대응 여부도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UN SDGs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 총 32건의 투자를 심사하였습니다. 사전 검토부터 중대이슈 점검까지 총 128건의 투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중 컨트로버셜 이슈가 식별된 14건에 대해 심화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투자 이후에도 대상 기업의 주요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사후관리 역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앞으로도 재무적 수익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까지 고려한 판단을 통해 지속가능한 금융을 실현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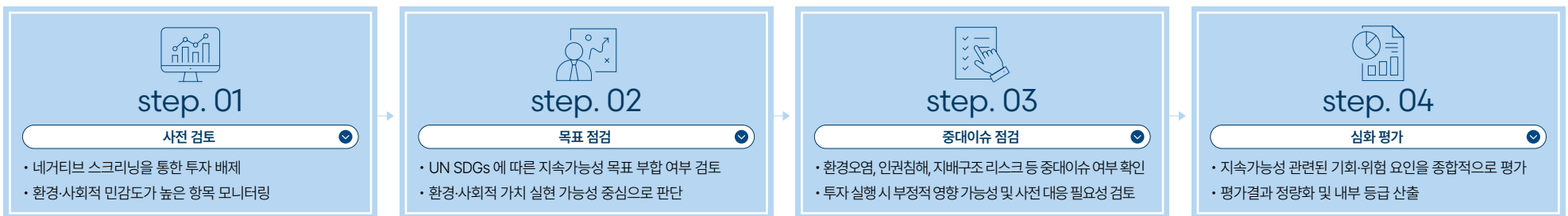
NH투자증권은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투자 판단을 위해 특정 산업과 활동에 대한 투자 제한 기준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인류 건강, 생태계 보전, 인권 및 윤리 등의 관점에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투자를 배제하거나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자 배제 기준은 영향 수준과 사회적 민감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비인도적 용도의 무기, 신규 석탄 발전 사업, 생태계 훼손 가능성이 높은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투자에서 배제하며, 담배, 도박, 동물실험, 인권침해 위험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매출 비중이나 사업 연계성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스크리닝 기준**

| 구분 | 내용 | 위험관리 |
|---|---|---|
| 무기 | • 수출 금지 상품 목록에 관한 EU 규정 중 사형, 고문 또는 기타 비인도적이거나 잔인한 처벌 또는 행위를 위한 용도의 장비를 생산, 판매, 구입하는 기업 | 즉시 배제 |
| 석탄 | •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관련 프로젝트 | |
| 생태계 훼손 위험 | • 불법적 벌목, 야생동물 밀거래, 국립 야생동물 구역 개발 등 육상 생태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br>• 다이너마이트 등 화학약품을 사용한 어업활동 등 해양 생태계 파괴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 | |
| 담배·도박 | • 담배, 도박, 주류 및 성인 엔터테인먼트 등과 연계된 사업 | 점진적 배제 |
| 동물실험 | • 동물 실험 및 살아있는 동물 수출 관련 투자 및 사업 | |
| 인권침해 위험 | • 현대판 노예제도 및 아동노동의 위험 소지가 있는 투자 및 관련 사업 | |

**지속가능성 투자 심사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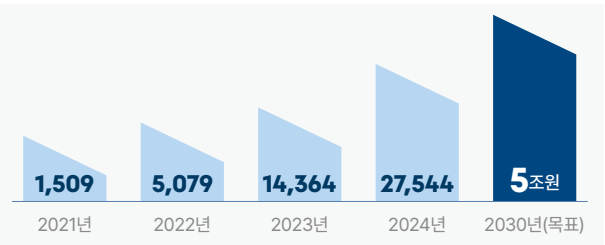
# 지속가능금융

## 녹색금융 확대

NH투자증권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금융 활동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금융의 분류 기준으로 K-Taxonomy를 적용하고 있으며 K-Taxonomy의 6대 환경목표에 부합하는 녹색 프로젝트의 인수, 주선 및 PF 실적을 축적하며 실질적인 녹색금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총 5조 원 규모의 녹색금융을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인프라, 에너지 효율화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녹색금융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한 전략적 금융 수단입니다. NH투자증권은 녹색금융을 실질적인 투자와 금융활동으로 확장하며, 관련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기후 리스크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뒷받침하는 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녹색금융 실적 및 목표** 누적실적 기준 (단위: 억 원)




CASE

### 루프탑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NH투자증권은 2024년 12월 GS에너지와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루프탑 태양광 발전사업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NH투자증권은 GS에너지 자회사인 '넥스트리뉴어블스솔루션(NRS)'이 추진한 국내 약 18MW 규모의 직접전력공급사업(PPA)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성공적으로 주선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루프탑 태양광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며, 탄소금융 사업의 금융 조달을 위한 주선사 역할을 적극 수행할 예정입니다.

## 지속가능채권 인수 및 투자

NH투자증권은 2021년 ESG 채권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증권사 최초로 1,100억 원 규모의 원화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했습니다. 발행 자금은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건축물 등 환경 분야와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되었습니다. 이후 NH투자증권은 기후변화 대응과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지속가능채권(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의 인수 및 투자 활동을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지속가능채권에 대한 2024년 투자 실적은 총 9,871억 원이며, 인수 실적은 약 1조 950억 원입니다. NH투자증권은 지속가능한 금융을 실현하고 시장의 긍정적 순환에 기여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가능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2024년 지속가능채권 인수내역** 단위: 억 원

| 채권명 | 채권구분 | 발행일 | 인수 금액 |
|---|---|---|---|
| LG에너지솔루션 3-1 | 녹색채권 | 2024.02.16 | 800 |
| LG에너지솔루션 3-2 | 녹색채권 | 2024.02.16 | 150 |
| LG에너지솔루션 3-4 | 녹색채권 | 2024.02.16 | 100 |
| 에스케이온 5-2 | 녹색채권 | 2024.03.07 | 150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28-1 | 녹색채권 | 2024.06.26 | 150 |
| 포스코퓨처엠 22-1 | 녹색채권 | 2024.07.24 | 2,200 |
| SK지오센트릭 22 | 녹색채권 | 2024.07.31 | 400 |
| 주택도시보증공사 1 | 사회적채권 | 2024.11.26 | 7,000 |

**2024년 지속가능채권 투자내역** 단위: 건, 억 원

| 채권구분 | 매매 건수 | 매매 금액 |
|---|---|---|
| 녹색채권 | 24 | 2,700 |
| 사회적채권 | 36 | 6,471 |
| 지속가능채권 | 6 | 700 |
| 합계 | 66 | 9,871 |

## 지속가능성 지수 개발

NH투자증권은 심도 있는 리서치 역량을 활용하여 자산관리와 트레이딩 분야에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초로 국내 주요 15개 기업을 대상으로 비재무성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지속가능성 중심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혁신적인 지수와 상품 개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Select ESG 지주회사 지수' 개발과 'iSelect-WG 그린에너지 ESG ETN' 상품 출시를 통해, 관련 시장의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에너지 효율화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로 구성된 지수 라인업을 새롭게 개발하고, 사회 및 거버넌스 측면에서 투자자와 주주에게 이익 환원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로 구성된 지수를 선보였습니다. AI 기술 확산으로 인해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은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소비 효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NH투자증권은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로 구성된 지수를 개발하고, 'KODEX AI전력핵심설비 ETF', 'KODEX 미국 AI전력 핵심인프라 ETF', 'N2 전력인프라 TOP5 ETN' 등 상장지수상품의 기초지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HANARO 주주가치성장코리아액티브 ETF' 등 저평가된 프리미엄 기업이나 배당 및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가치 향상에 주력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추종하는 ETF 상품에 기초지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앞으로도 전문적인 지속가능성 분석을 기반으로 투자자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지수 및 투자상품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투자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 Sustainable Highlights

2024년 녹색금융 투자 금액

2조 7,544억 원

(2021년부터 누적 투자 금액 기준)

2030년 녹색금융 투자 목표

누적 5조 원 목표 설정

포트폴리오 금융배출량 산정

170 만$tCO_2eq$

(202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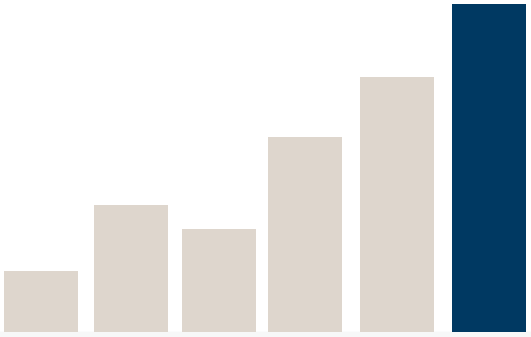
소비자가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

증권사 최초 3년 연속

NO.1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측정 및 보고

총 3,368억 원 창출



증권업계 최초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

APEC CBPR 취득

2030년 금융배출량

31.1%

감축 목표 설정

(Baseline: 2023년)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A-

(Leadership 등급)

CDP

한국ESG기준원

A

ESG 통합 등급

# MATERIAL TOPICS


중대성 평가 41
중요이슈 분석 46
이해관계자 참여 47

# 중대성 평가

NH투자증권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이중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 중대성 평가는 기업의 경영 활동으로 발생한 이슈가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Impact Materiality)과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적 영향(Financial Materiality)을 모두 고려하는 개념입니다. 도출한 중요이슈와 관련하여 NH투자증권이 사회, 환경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외부 환경이 NH투자증권의 재무적 위험 및 기회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기 위해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IRO 분석(Impact, Risk, Opportunity)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4대 핵심 중요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이중 중대성 평가로 도출한 핵심 중요이슈는 조직의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 활용하며, 지속가능통합보고서를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이중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 step. 01

**이슈 풀 구성**

**국내외 스탠다드 및 지속적인 중요이슈 검토,
이슈 풀(Long-list) 구성**

**이슈 정보 수집**

- GRI, DJSI, MSCI, SASB 등 이니셔티브 검토
- 과거 우선순위 높게 도출된 이슈

**32개 이슈 풀(pool)**



### step. 02

**중요이슈 도출**

**내부 전략 및 외부 환경 적용 테스트,
중요이슈(Short-list) 도출**

**중요도 테스트**

- 내부 지속가능성 관련 전략 분석
- 미디어 분석
- 국내외 Peer 벤치마킹
- ESG 관련 표준 및 평가지표 분석
- 국내외 법·규제 분석

**10개 중요이슈**



### step. 03

**영향 식별 및 평가**

**환경·사회 영향과 재무적 영향 식별,
식별된 유형에 따라 IRO 분석**

**이슈별 주요 영향 식별**

- 영향 특성(긍정·부정, 실재·잠재),
  영향의 발생 범위 및 영향 시점 식별

**식별한 영향 기반 평가**

- 영향 중대성 평가
  - 영향의 발생 가능성, 심각성 평가
- 재무 중대성 평가
  - 기업가치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평가



### step. 04

**핵심 중요이슈 선정 및 보고**

**우선순위 및 지속가능성 주제별 영향을 반영한
핵심 중요이슈 도출**

**영향의 크기 분석**

- 영향평가 정량화 및 종합 분석
- 영향의 구간 및 우선순위 식별
- 환경, 사회, 거버넌스 영역별 상위 영향 검토

**4개 핵심 중요이슈**

# 중대성 평가

2024년 중대성 평가 결과 총 10개의 중요이슈(Short-list)를 도출하였습니다. 이후 이슈별 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사회적 영향과 재무적 영향 모두에서 중요성이 높은 4개의 핵심 중요이슈를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NH투자증권의 핵심 중요이슈는 기후변화 대응 강화, 디지털 금융 및 플랫폼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정보보안 및 고객정보 보호입니다.

NH투자증권이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이슈는 정보보안 및 고객정보 보호로 분석되었으며, 재무적 영향이 가장 큰 이슈는 금융소비자 보호로 분석되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정기적인 중대성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고, 선정된 핵심 중요이슈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그 성과를 이해관계자와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 2024년 중대성 평가 결과

| 핵심 중요이슈 | | GRI Index | 보고 페이지 |
|---|---|---|---|
| 환경 | 기후변화 대응 강화 | 201-2 / 302-1 / 302-3~4 / 305-1~5 | 49-62p |
| 비즈니스 | 디지털 금융 및 플랫폼 강화 | Non-GRI | 65-67p |
| 사회 | 금융소비자 보호 | Non-GRI | 70-73p |
| 사회 | 정보보안 및 고객정보 보호 | 418-1 | 74-77p |

| 보고이슈 | | GRI Index | 보고 페이지 |
|---|---|---|---|
| 사회 | 임직원 역량강화 및 교육 | 404-1~2 | 79-80p |
| 사회 | 고객만족도 제고 | Non-GRI | 68-69p |
| 거버넌스 | 컴플라이언스 준수 | 205-2~3 | 89-90p |
| 거버넌스 | 통합 리스크 관리 | Non-GRI | 91-92p |
| 거버넌스 | 지배구조 건전성 강화 | Non-GRI | 36p, 86-88p |
| 비즈니스 | 녹색금융 비즈니스 추진 | Non-GRI | 37-38p |

영향의 크기 : ●●● 영향수준 '큼' ●● 영향수준 '보통' ● 영향수준 '작음'

| 이슈 | 사회·환경적 영향 (Impact) | 설명 | 영향 중대성 | | | | | 재무적 영향 (Risk / Opportunity) | 설명 | 재무 중대성 | | |
|---|---|---|---|---|---|---|---|---|---|---|---|---|
| | | | 영향 크기 | 실재/잠재 | 긍정/부정 | 영향 범위 | 발생 시기 | | | 영향 크기 | 위험/기회 | 발생 시기 |
| 기후변화 대응 강화 | 고탄소 자산 지속 투자에 따른 기후변화 가속화 | 금융회사는 투자 활동을 통해 고탄소 산업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산업의 성장을 지원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후변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잠재 | 부정 | 주주 및 투자자 고객 지역사회 | 중기 | 기후변화 대응 미흡에 따른 투자자 이탈 |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고탄소 산업에 투자한 기업에서 이탈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기후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투자 포트폴리오의 탄소배출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리스크 | 장기 |
| | 저탄소 투자 확대 및 금융배출량 관리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기여 | 금융회사는 투자 자산의 탄소배출량을 관리하고, 저탄소 기업 및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기후변화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장기적으로 지구 온난화 속도 저감에 기여합니다. | ●● | 실재 | 긍정 | 고객 정부 및 유관기관 | - | 저탄소 포트폴리오 전환을 통한 장기 수익 확보 | 금융회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탄소 자산 비중을 줄이고, 저탄소 산업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전환 속도가 빠른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 ●● | 기회 | 장기 |

# 중대성 평가

| 이슈 | 사회·환경적 영향 (Impact) | 설명 | 영향 중대성 | | | | | 재무적 영향 (Risk / Opportunity) | 설명 | 재무 중대성 | | |
|---|---|---|---|---|---|---|---|---|---|---|---|---|
| | | | 영향 크기 | 실재/잠재 | 긍정/부정 | 영향 범위 | 발생 시기 | | | 영향 크기 | 위험/기회 | 발생 시기 |
| 정보보안 및 고객정보 보호 | 정보보호 체계 강화 및 인증 확보를 통한 보안 리스크 예방 | 금융기업은 고객의 민감한 금융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정보보호체계의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사이버 공격, 해킹 등 전자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 고도화와 인증 확보는 고객 보호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뢰성 확보에도 중요합니다. | ●●● | 잠재 | 긍정 | 고객 | 단기 | 규제 기준 충족 및 리스크 관리 역량 향상을 통한 재무 손실 예방 | 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감독 기준을 충족하는 시스템 구축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보안 사고에 따른 재무적 손실을 예방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 | 기회 | 중기 |
| | 고객정보 유출 사고 발생에 따른 고객 불안 및 사회적 영향 확산 | 고객정보 유출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고객의 불안감 확산과 함께 기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에 대한 외부의 평가로도 연결됩니다. | ●●● | 잠재 | 부정 | 고객<br>지역사회 | 단기 | 기업 신뢰도 저하로 인한 고객 이탈 |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이나 기술적 사고 발생 시, 고객 신뢰 하락과 브랜드 가치 훼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객 이탈과 장기적인 재무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리스크 | 단기 |
| 금융소비자 보호 |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을 통한 금전 피해 예방 |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 서비스 제공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기업의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됩니다. 금전 피해 예방과 책임 있는 금융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 | 잠재 | 긍정 | 고객<br>지역사회 | 단기 |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법적 리스크 감소 | 컴플라이언스 체계 및 내부 감시 기능 강화를 통해 금융기업은 법적 분쟁 및 규제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고객 신뢰 유지와 재무 안정성 확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 기회 | 단기 |
| |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 내부통제 미흡은 부정 거래, 고위험 상품의 오판매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과 금융시장 신뢰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관련 시스템의 정기적 점검과 강화가 요구됩니다. | ●● | 잠재 | 부정 | 고객 | 단기 | 법적 제재 및 평판 하락에 따른 재무 악화 | 내부통제 실패는 감독기관의 제재, 평판 악화, 고객 신뢰 하락, 투자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지속가능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 | 리스크 | 단기 |
| 임직원 역량강화 및 교육 | 임직원 전문성 향상에 따른 산업·경제 발전 기여 | 직무와 직급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 제공은 임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유도하며, 업계 전반의 역량 수준 제고로 이어집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산업 생산성 향상과 경제 발전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 | 실재 | 긍정 | 임직원<br>고객<br>지역사회 | - | 임직원 역량 개발을 통한 생산성 및 수익 향상 | 역량 개발은 업무 효율성 증대와 함께 고객 대응 능력, 문제 해결 역량 향상으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성과는 고객 만족도 제고를 통해 장기적인 수익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 | 기회 | 중기 |
| | 비즈니스 모델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 지속가능금융 관련 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환경 및 사회 이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친환경 상품 개발 및 포용금융 확대 등의 활동이 촉진됩니다. 이는 조직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정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 | 잠재 | 긍정 | 임직원<br>지역사회 | 중기 | 실효성 부족한 교육 운영에 따른 조직 생산성 저하 | 교육 프로그램이 단기성과 중심의 형식적 운영에 그칠 경우, 자원의 낭비뿐 아니라 실제 업무성과와의 연계성이 떨어져 조직 전반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 투자 대비 효과가 미흡해질 수 있습니다. | ●● | 리스크 | 단기 |

# 중대성 평가

| 이슈 | 사회·환경적 영향 (Impact) | 설명 | 영향 중대성 | | | | | 재무적 영향 (Risk / Opportunity) | 설명 | 재무 중대성 | | |
|---|---|---|---|---|---|---|---|---|---|---|---|---|
| | | | 영향 크기 | 실재/잠재 | 긍정/부정 | 영향 범위 | 발생 시기 | | | 영향 크기 | 위험/기회 | 발생 시기 |
| 고객만족도 제고 | 소비자와의 소통 증진을 통한 서비스 품질 개선 | 금융기업은 고객 만족 향상을 위해 소비자와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의 요구와 피드백을 상품 및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고객 중심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함께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 | 실재 | 긍정 | 고객 | - | 고객 가치 극대화를 통한 수익 창출 | 높은 고객 만족도는 브랜드 신뢰도 상승으로 이어지며, 충성 고객의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을 유도합니다. 이는 고객과의 장기적 관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 | 기회 | 중기 |
| | 금융 접근성 격차에 따른 불평등 심화 | 특정 고객층을 중심으로 한 상품 및 서비스 차별화 전략은 정보취약계층, 장애인, 소수자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융 포용성이 저해되며, 사회적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 잠재 | 부정 | 고객 | 중기 | 서비스 품질 유지에 따른 운영 비용 증가 | 고객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인력, 시스템, 고객 응대 체계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운영 비용이 상승하고, 과도한 서비스 제공이 오히려 수익성 저하나 고객 이탈로 연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 | 리스크 | 중기 |
| 컴플라이언스 준수 | 금융사고 예방 지속적 관리에 따른 경제 안정 기여 | 금융기업은 엄격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자금세탁, 내부자 거래, 시장 조작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자금의 유입을 억제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건전한 경제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 ●●● | 잠재 | 긍정 | 고객 임직원 지역사회 | 단기 | 평판 관리 및 신뢰 확보를 통한 재무이익 훼손 방지 | 컴플라이언스 관리 체계는 법적 위반으로 인한 제재 및 평판 리스크를 방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관리 활동은 고객 신뢰를 유지하고 브랜드 가치를 보호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 | 기회 | 중기 |
| |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한 사회 신뢰 제고 | 규제 준수는 시장 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며, 기업 간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사회 전반의 신뢰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 | 실재 | 긍정 | 고객 지역사회 | - | 규제 부담 증가에 따른 경쟁력 약화 | 과도한 규제 이행 요구는 일부 지역에서 경쟁사의 유연한 전략 실행에 비해 기업의 대응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시장 점유율이 축소되거나 사업 기회 확보에 제약이 발생하는 등 재무적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 | 리스크 | 중기 |
| 지배구조 건전성 강화 | 지속가능성 리스크 대응 미흡으로 인한 이해관계자 신뢰 저하 |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할 경우,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 저하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평판 악화 및 기업과의 관계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 잠재 | 부정 | 주주 및 투자자 고객 | 중기 | 환경·사회 이슈 확산 및 규제 대응 부족에 따른 재무 부담 증가 | 환경 및 사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부정적 언론 보도, 소비자 불매, 규제 대응 비용 증가 등 재무적 부담 요인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브랜드 가치 하락과 수익성 저하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 ●● | 리스크 | 중기 |
| | 지속가능경영 성과 공시를 통한 알 권리 보호 | 기업은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장기 전략에 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신뢰 기반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책임있는 경영활동을 외부에 명확히 전달하는 공시는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수단이 됩니다. | ●● | 실재 | 긍정 | 주주 및 투자자 고객 지역사회 | - | 투자자 유입 증가에 따른 재무성과 개선 |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그 성과를 체계적으로 공시하는 기업은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기관 및 개인 투자자의 유입으로 이어져 자본 조달이 용이해지고, 장기적 재무성과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 | 기회 | 중기 |

# 중대성 평가

| 이슈 | 사회·환경적 영향 (Impact) | 설명 | 영향 중대성 | | | | | 재무적 영향 (Risk / Opportunity) | 설명 | 재무 중대성 | | |
|---|---|---|---|---|---|---|---|---|---|---|---|---|
| | | | 영향 크기 | 실재/잠재 | 긍정/부정 | 영향 범위 | 발생 시기 | | | 영향 크기 | 위험/기회 | 발생 시기 |
| 통합 리스크 관리 | 지속가능한 투자 활성화를 통한 책임 투자 확산 | 금융기업은 환경·사회적 요소를 포함한 비재무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투자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책임 있는 자금 운용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기반이 되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금융 생태계 확대에 기여합니다. | ●● | 잠재 | 긍정 | 주주 및 투자자 고객 | 중기 | 위기 대응 역량 향상을 통한 재무 손실 예방 |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는 다양한 유형의 리스크를 사전에 인식하고 대응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적시 대응 능력은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 | 기회 | 장기 |
| | 리스크 회피 접근으로 인한 산업 위축 |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리스크 회피는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제한하고, 일자리 및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 | 잠재 | 부정 | 주주 및 투자자 지역사회 | 중기 | 리스크 관리 고도화에 따른 운영 부담 증가 | 리스크 관리 고도화 과정에서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면서, 관리체계가 복잡해지고 운영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사결정 지연, 인적·물적 자원 소모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조직 운영비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 ● | 리스크 | 중기 |
| 디지털 금융 및 플랫폼 강화 | 소비자 금융거래 접근성 제고를 통한 이용 효율성 향상 | 금융기업은 디지털 금융 및 모바일 플랫폼 역량 강화를 통해 금융거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비대면 계좌 개설 및 투자 서비스 확대는 금융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계층의 금융 참여를 확대합니다. | ●●● | 실재 | 긍정 | 고객 | - | 초기 투자 및 시스템 운영에 따른 비용 증가 | 디지털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고 플랫폼을 강화하는 데에는 기술 개발, 서버 인프라 구축, 소프트웨어 도입 등 초기 투자비용이 수반됩니다. 보안 강화, 데이터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등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에 따른 운영 비용은 기업의 재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 | 리스크 | 중기 |
| | 디지털 소외로 인한 금융 불평등 심화 | 비대면 중심의 금융거래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 저소득층, 장애 고객 등 정보취약계층의 금융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금융 포용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 | 실재 | 부정 | 고객 지역사회 | - |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한 시장 확대 | 금융 플랫폼을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관리, 인공지능 기반 분석,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 등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확장은 수익 모델을 다변화하고, 시장 확대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 | 기회 | 중기 |
| 녹색금융 비즈니스 추진 | 탄소배출권 사업 운영 및 시장 조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 | 금융기관이 탄소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경우, 시장 유동성 증가, 감축 인센티브 확산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합니다. | ●● | 잠재 | 긍정 | 정부 및 유관기관 지역사회 | 중기 | 신사업 추진을 통한 중장기 수익 확보 | 배출권 거래 및 기후 관련 금융 상품 등 신사업 추진은 새로운 수익 모델 확보와 투자 다각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정책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을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무성과 창출이 기대됩니다. | ●● | 기회 | 중기 |
| | 친환경 지수 및 ETN 상품 출시를 통한 친환경 기업 자금지원 기여 | 증권사가 친환경 기업 중심의 지수 및 ETN 상품을 개발하면, 투자 접근성이 향상되고 해당 기업의 자금 조달이 활성화됩니다. 이는 친환경 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장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전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 | 실재 | 긍정 | 주주 및 투자자 고객 지역사회 | - | 친환경 금융 수요 저조 및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 증가 | 친환경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정책 환경이 급변할 경우 기업은 수익성 저하 및 전략 수정 부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은 해당 비즈니스의 재무 리스크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 ● | 리스크 | 중기 |

# 중요이슈 분석

NH투자증권은 기업 가치와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중요이슈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분석된 핵심 중요이슈는 기후변화 대응 강화, 정보보안 및 고객정보 보호, 금융소비자 보호, 컴플라이언스 준수, 지배구조 건전성 강화, 통합 리스크 관리, 디지털 금융 및 플랫폼 강화입니다. 해당 이슈는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리스크 관리의 핵심 기반으로 활용하며, 이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관리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색상표기: 3년 연속 중요이슈

| 영역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 중요이슈 10개 | 중요이슈 12개 | 중요이슈 10개 |
| 환경 | 기후변화 대응 강화 | 기후변화 대응 강화 | 기후변화 대응 강화 |
| 사회 | 고객정보 보호 | 고객 개인정보 보호 | 정보보안 및 고객정보 보호 |
|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 금융소비자 보호 |
| | 임직원 인권 및 다양성 확보 | 임직원 인권 및 다양성 확보 | |
| | | 역량 개발 및 교육 | 임직원 역량강화 및 교육 |
| | | 인재채용 및 이직 | |
| | | | 고객만족도 제고 |
| 거버넌스 | 윤리·컴플라이언스 준수 | 윤리·컴플라이언스 준수 | 컴플라이언스 준수 |
| | 지배구조의 건전성 확보 | 지배구조의 건전성 확보 | 지배구조 건전성 강화 |
| | 통합 리스크 관리 | 통합 리스크 관리 | 통합 리스크 관리 |
| 비즈니스 | 디지털 금융 및 플랫폼 경쟁력 확보 | 디지털 금융 및 플랫폼 경쟁력 확보 | 디지털 금융 및 플랫폼 강화 |
| | | | 녹색금융 비즈니스 추진 |
| | 책임투자 확대 | 책임투자 확대 | |
| | 경제적 성과 창출 | 경제적 성과 창출 | |

| 이슈 | 접근 방식 | NH투자증권 대응 전략 | 주요 활동 성과 | UN SDGs |
|---|---|---|---|---|
| 기후변화 대응 강화 | NH투자증권은 2050년까지 관리자산 전반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인 탄소 배출 감축과 저탄소 금융 솔루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TCFD 권고안을 기반으로 기후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K-RE100 가입<br>• 2030년 내부 온실가스 42% 감축 목표 설정<br>• 2030년 금융배출량 31% 감축 목표 수립 | 구분 / 단위 / 2022 / 2023 / 2024<br>재생에너지 전환율 / % / - / 0.5 / 13.0<br>* 2023년 11월 K-RE100 가입 | 13, 7 |
| 정보보안 및 고객정보 보호 | NH투자증권은 금융소비자의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직속의 정보보호부를 운영하며, 관련 국제 인증을 통해 보안 수준을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 업계 표준 개인정보보호 인증 APEC CBPR 취득<br>• 임직원 대상 정보보호 인식 제고 교육 실시 | 구분 / 단위 / 2022 / 2023 / 2024<br>개인정보 유출건수 / 건 / 0 / 0 / 0 | 9, 16 |
| 금융소비자 보호 | NH투자증권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상품 개발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품심의 절차, 상품승인위원회,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금융사기 예방과 고객 신뢰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 및 의심계좌 탐지 기능 강화<br>• 2024년 금융사기 피해예방 25건 | 구분 / 단위 / 2022 / 2023 / 2024<br>금융사기 피해예방 금액 / 억 원 / 81.5 / 21.6 / 35.1 | 10, 8 |
| 컴플라이언스 준수 | NH투자증권은 법적 의무를 넘어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윤리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으며, NH농협금융그룹과 통합된 윤리경영체계를 구축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위원회 및 윤리경영사무국을 통해 최고 수준의 의사결정 및 실행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전 임직원 대상 윤리교육 정기 운영<br>• 내·외부 신고제도 및 반부패 프로그램 운영 | 구분 / 단위 / 2022 / 2023 / 2024<br>비윤리 이슈로 인한 벌금발생 사례 / 건 / 1 / 3 / 4 | 17, 9 |
| 지배구조 건전성 강화 | NH투자증권은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 정책을 관리하고 있으며, 투자의 환경·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의 부합 여부를 점검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 산업 전환을 위한 자금 조달 활동을 통해 녹색금융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 • CDP A-등급(Leadership) 획득<br>• 2024년 UNGC 리드(Lead)그룹 선정<br>• 지속가능성 기반 투자원칙 이행<br>• 2030년 녹색금융 목표 5조 원 수립 | 구분 / 단위 / 2022 / 2023 / 2024<br>녹색금융 투자 금액 (누적) / 억 원 / 5,079 / 14,364 / 27,544 | 16, 17 |
| 통합 리스크 관리 | NH투자증권은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경영 안정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유형별 정의 및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며, 관련 사항은 정기적으로 경영진에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 • 대표이사 직속의 리스크 전담 조직 운영 및 CRO(Chief Risk Officer) 지정<br>•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 및 운영 | 구분 / 단위 / 2022 / 2023 / 2024<br>리스크관리 위원회 개최 수 / 회 / 8 / 7 / 7 | 9, 8 |
| 디지털 금융 및 플랫폼 강화 | NH투자증권은 다양한 투자 니즈에 대응하고 디지털 기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플랫폼 중심의 사업 모델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초개인화 기술, 생성형 AI 등을 활용해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 디지털 금융 관련 위험 및 기회 요인 및 영향 분석<br>• 구독형 투자서비스 등 다양한 디지털 상품 제공 | 구분 / 단위 / 2022 / 2023 / 2024<br>디지털 금융 서비스 이용자 수 / 명 / 4,449,329 / 4,836,603 / 5,238,665 | 9, 10 |

# 이해관계자 참여

NH투자증권은 경영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을 주주 및 투자자, 임직원, 고객, 지역사회, 정부 및 유관기관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와의 투명한 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마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수렴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경영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이해관계자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이해관계자 현황 및 주요 소통채널

| 구분 | 소통채널 및 대응활동 | 소통주기 | 주요 관심 이슈 | 주요 성과 |
|---|---|---|---|---|
| 주주 및 투자자 | • 주주총회<br>• 경영공시<br>• 투자설명회<br>• IR활동<br>• 홈페이지<br>• 주주전화 | 연 1회<br>분기별<br>필요시<br>상시<br>상시<br>상시 | • 지배구조의 건전성 확보<br>• 통합 리스크 관리<br>• 윤리·컴플라이언스 준수<br>• 경제적 성과 창출 | • '先 배당액 확정, 後 배당기준일' 제도 도입<br>• 전자투표제 운영<br>•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 운영 |
| 임직원 | • 경영전략회의<br>• 사내방송<br>• 인트라넷<br>• 임직원만족도 조사<br>• 노사협의회<br>•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월별<br>월별<br>상시<br>연 1회<br>분기별<br>분기별 | • 공정한 성과 평가 및 보상<br>• 우수인재 채용 및 역량 개발<br>• 임직원 복지 및 기업문화 개선<br>• 임직원 산업안전보건<br>• 임직원 인권 및 다양성 확보 | • 지분투자형 장애인 고용창출 지원<br>•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취득<br>• 임직원 심리건강 지원 프로그램 운영 |
| 고객 | • VOC, 챗봇 노아<br>• 고객만족도 조사<br>• NH투자증권 각 지역 영업점<br>• 투자설명회<br>• SNS 채널<br>• 모바일 앱 | 상시<br>필요시<br>상시<br>필요시<br>상시<br>상시 | • 고객정보 보호<br>• 고객 커뮤니케이션<br>•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br>• 고객관계 및 만족도 관리 |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소비자가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 증권사 부문 3년 연속 1위<br>•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주최 '소셜아이어워드' 금융혁신대상 수상<br>• 투자 위험 종목에 대한 '주가조작 위험경보시스템' 가동 |
| 지역사회 | • 사회공헌단<br>• 홈페이지<br>• 사회공헌 활동 성과 측정 | 상시<br>상시<br>상시 | • 서민 및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br>• 중소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포용금융 실천<br>• 지역사회 참여 및 사회공헌 | •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및 라이브커머스 지원<br>• 천사펀드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br>•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 지원 |
| 정부 및 유관기관 | • 보도자료<br>• 공청회<br>• 세미나 및 간담회<br>• 금융감독원 | 필요시<br>필요시<br>필요시<br>필요시 | • 공정거래<br>• 정부정책 및 규제변화에 대한 대응 | • 임직원 윤리 및 공정거래 교육 실시<br>• 실무자 공시 관련 교육 실시<br>• 납세의 의무 이행<br>• UNGC 지속가능금융 실무그룹 참여 |



# SUSTAINABILITY PERFORMANCE


| | | | |
|---|---|---|---|
| 기후변화 대응 | 49 | 인재경영 | 78 |
| 환경책임경영 | 63 | 동반성장 | 82 |
| 디지털 금융 및 플랫폼 전략 | 65 | 사회책임경영 | 84 |
| 고객중심경영 | 68 | 이사회 책임경영 | 86 |
| 금융소비자 보호 | 70 | 윤리·준법경영 | 89 |
| 정보보호 | 74 | 리스크 관리 | 9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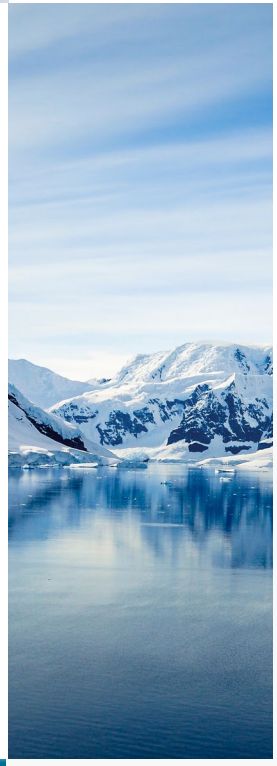


# 기후변화 대응

### 영향에 대한 분석

금융기업이 고탄소 자산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경우 기후변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환경적 투자 기준을 지향하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가 늘어나면서, 고탄소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자 이탈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금융기업은 포트폴리오 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친환경 산업이 부상하고 이에 대한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기업이 저탄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 미래 성장 기회를 확보하고 재무성과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비즈니스 전환과 가치 성장의 기회를 창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NH농협금융그룹의 탈탄소화 전략 방향에 따라,
2050년까지 관리자산의 탄소중립(Net Zero) 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NH농협금융그룹의 일원으로서 NH투자증권 역시 단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고객의 지속가능한 투자를 지원하는 금융 솔루션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TCFD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기후 리스크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거버넌스

### 기후변화 대응 조직체계

NH투자증권은 2022년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설치해 이사회 차원의 지속가능경영 감독과 책임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ESG위원회는 전사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이슈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을 중시하여 전 비즈니스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후 리스크와 기회를 검토합니다. 2024년에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추진과제, 탄소금융 비즈니스, 기후 시나리오 분석 등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NH투자증권은 본부장급 임원진으로 구성된 지속가능협의회를 운영해 전사적인 기후변화 이슈를 점검하고 전략과제를 부여하며,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향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후변화 현안은 ESG위원회에 보고합니다.

### 경영진의 기후변화 관련 핵심성과지표(KPI)

NH투자증권은 NH농협금융그룹의 2024년도 자회사 대표이사 성과평가 방안에 따라, 대표이사 성과평가에 지속가능경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대표이사의 핵심 과제로 지속가능경영 내재화를 설정하고 평가 항목에 5%의 비중을 두었습니다. 금융배출량 관리를 비롯해 사회적 가치 창출, ESG 신사업 추진, 임직원 ESG 역량 강화 등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 주요 항목이 경영진 핵심 성과지표(KPI)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 기후변화 대응

## 전략

기후변화는 금융업 전반에 다양한 형태의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며, 증권사 역시 사업 구조나 투자 포트폴리오에 따라 시장, 투자, 평판 등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 관련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재무적 영향까지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 위험 요인

NH투자증권은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의 제도, 기술, 시장의 변화에 따른 전환 리스크와 이상기후 및 자연재해로 인한 물리적 리스크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이러한 리스크의 재무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전략 및 리스크 관리 체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위험 요인 분석**

• 단기 : 1년 이하 • 중기 : 1년~5년 이하 • 장기 : 5년 초과

| | 위험 요인 | | 잠재적 재무 영향 | 단기 | 중기 | 장기 |
|---|---|---|---|---|---|---|
| 물리적 리스크 | 급성 | • 이상기후 증가 및 기상 이변 심각도 증가 | • 기상 재해로 인한 자산 손상 및 담보 가치 하락 | ● | ● | ● |
| | 만성 | • 평균기온 및 해수면 상승<br>• 이상기후의 장기화 및 만성화 | • 이상 기후에 따른 장기적 경기 침체와 수익성 저하 | | ● | ● |
| 전환 리스크 | 정책과 법률 | • 탄소 관련 규제 및 재생에너지 제도 강화, 탄소 가격 인상<br>• 환경 관련 공시 의무 강화 | • 탄소배출권 및 재생에너지 조달 가격 상승에 따른 재무적 부담 증가<br>• 고객 및 투자사의 탄소배출권 부족 및 환경규제 노출 시 포트폴리오의 수익성 저하 | ● | ● | ● |
| | 기술 | • 친환경 저탄소 기술로의 전환 비용 소모<br>• 에너지 효율성 개선 및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 투자로의 대체 | • 투자 대상 기업의 친환경 저탄소 기술 도입으로 인한 재무적 성과 변동<br>• 투자 대상 기업의 친환경 대응 미흡 시 중장기적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리스크 증가 | | ● | ● |
| | 시장 | • 고객 행동 변화<br>• 시장환경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 • 친환경 자산 포트폴리오 비중 확대에 따른 전통적 Cash Flow 자산에 대한 선호도 저하<br>• 친환경 경영 요구에 따른 고객 및 투자사의 증권서비스 및 자금조달 선호도 변화 | | ● | ● |
| | 평판 | • 고객의 선호도 변화<br>• 이해관계자의 부정적 피드백 | • 부정적인 이해관계자 피드백 증가에 따른 기업 평판 하락<br>• 지속가능경영 미흡 또는 그린워싱 이슈로 인한 대외 신뢰도 저하 및 평가등급 하락 | ● | ● | ● |

# 기후변화 대응

## 전략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이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조직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증권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 등을 중개·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금융서비스 확대와 사업 영역 확장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 기후변화 기회 요인

NH투자증권은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지속가능성 기회를 자원 효율성, 에너지 자원, 제품·서비스, 시장, 회복력의 범주로 구분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기회 요인은 주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배출권 위탁매매 등 다양한 탄소 관련 사업에서 도출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배출권거래제 시장조성자 참여 및 위탁매매 시스템 개발, UN 녹색기후기금 운용기관 선정 등 글로벌 및 국내 탄소금융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는 본 보고서 10-11p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다'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회 요인 분석**

• 단기 : 1년 이하 • 중기 : 1년~5년 이하 • 장기 : 5년 초과

| 기회 요인 | | 잠재적 재무 영향 | 단기 | 중기 | 장기 |
|---|---|---|---|---|---|
| 자원 효율성 | • 에너지 효율성 제고<br>• 친환경 운송 수단 확대<br>• 순환경제 관리체계 개선 | • 에너지 효율성 향상에 따른 재무적 지출 절감<br>• 자원효율성 제고, 순환경제전환에 따른 자금 수요 증가 | ● | ● | ● |
| 에너지 자원 | • 친환경 및 저탄소 에너지원 사용 확대<br>• 탄소시장 참여 | • 재생에너지 전환 사용 확대에 따른 자금 수요 증가<br>• 탄소시장 성장에 따른 신규자산군 확보 | ● | ● | ● |
| 제품 및 서비스 | • 친환경 비즈니스 전략 확대<br>•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상품·솔루션 개발 | • 친환경 투자상품 수요 증가<br>• 탄소감축을 위한 대고객 솔루션 제공 확대 | ● | ● | ● |
| 시장 | • 녹색금융 시장 확대<br>• 포트폴리오 다각화 | •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이행, 친환경 기업 투자 기회 증가<br>• 친환경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수익 구조 다각화 | ● | ● | ● |
| 회복력 |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효율 개선<br>• 포트폴리오 인게이지먼트 | • 복원력 확보에 관련된 금융서비스 및 자금 공급을 통한 수익 강화<br>• 투자 대상 기업 지속가능경영 역량 지원을 통한 회복탄력성 제고 | | ● | ● |

# 기후변화 대응

## 전략

###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위한 중요성 평가

NH투자증권은 본격적인 기후 시나리오 분석에 앞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중요성 평가를 수행했습니다. 당사는 CPRS[1] 분류에 따라 금융배출량 측정 대상 자산 중 기후정책과 연관되어 있는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NACE Code[2]를 참고하여 기후정책 연관 업종별로 주요 변수(에너지량, 에너지가격)를 설정하고, NGFS[3] 시나리오에 따라 증가되는 에너지 비용을 충격 수준으로 가정하고 분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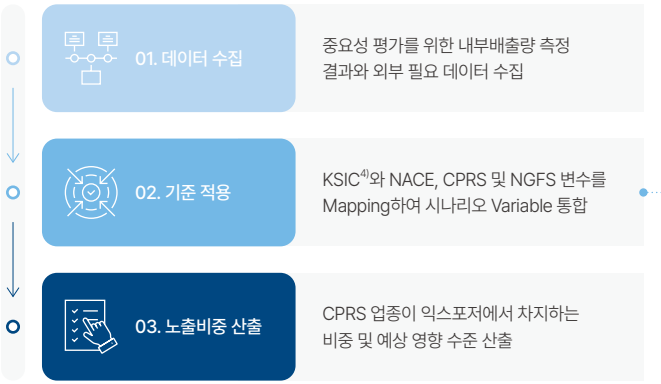
CHECK

**기후 시나리오 분석이란?**

기후 시나리오 분석이란 기후변화로 인한 충격 경로를 시나리오별로 설정하고 시나리오에 따른 회사의 영향을 분석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기후 시나리오 분석은 ① 기후 시나리오 수립, ② 기후리스크의 금융리스크 변환, ③ 금융회사의 잠재적 재무영향도 측정 단계로 수행합니다.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NACE – CPRS - NGFS 변수 Mapping 예시**

| NACE Code | CPRS Main | NGFS Variable |
|---|---|---|
| B.05.10 (Mining of hard coal) | 1-fossil-fuel | Primary Energy Coal |
| D.35.11 (Production of electricity) | 2-utility | Secondary Energy Electricity, Gas |
| C.24.51 (Casting of iron) | 3-energy-intensive | Production Steel |

**중요성 분석 결과**

중요성 분석 결과, 2050년에는 2024년 기준 대비 최대 15.5배에 달하는 기후 충격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은 기후변화가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정밀한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 CPRS 섹터 | 기준시점 (2024.09) | | | 2050년 영향도 | | |
|---|---|---|---|---|---|---|
| | 잔액 | 잔액 비중 | 배출량 비중 | Current Policies | Delayed Transition | Net Zero 2050 |
| 1-fossil-fuel | 2,628억 원 | 1.6% | 8.9% | 0.8배 | 0.6배 | 0.6배 |
| 2-utility | 7,041억 원 | 4.4% | 49.4% | 1.3배 | 15.7배 | 10.4배 |
| 3-energy-intensive | 1조 362억 원 | 6.4% | 29.8% | 3.8배 | 25.3배 | 15.2배 |
| 4-buildings | 1조 2,138억 원 | 7.5% | 2.7% | 1.0배 | 1.2배 | 1.2배 |
| 5-transportation | 1,330억 원 | 0.8% | 1.1% | 2.8배 | 5.4배 | 5.3배 |
| **합계** | **3조 3,498억 원** | **20.7%** | **91.9%** | **2.1배** | **16.8배** | **10.7배** |
| 미대상 | 12조 8,288억 원 | 79.3% | 8.1% | - | - | - |
| **합계** | **16조 1,787억 원** | **100.0%** | **100.0%** | **2.0배** | **15.5배** | **9.9배** |

1) CPRS(Climate Policy Relevant Sectors)란 2017년에 개발된 Transition Risk 평가를 위한 산업 분류 코드로, 유럽 내 기후 전환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의 Exposure를 평가하는 데 사용
2) NACE(Nomenclature statistique des Activités économiques dans la Communauté Européenne/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economic activities in the European Community)란 유럽연합(EU)의 경제 활동을 표준화하고 비교하기 위한 산업 분류 체계로 기후 전환 리스크 평가에서 기업의 경제 활동을 정확히 분류하기 위해 사용
3)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란 녹색금융을 위한 중앙은행·금융감독기구 간 글로벌 협의체
4) KSIC(Korea Standard Industry Code)란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사업체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 기후변화 대응

##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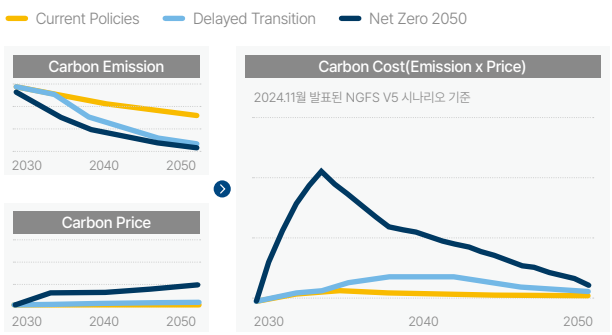
### 기후 시나리오 분석 방법

NH투자증권은 기후변화가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전환 리스크와 물리적 리스크로 구분하여 시나리오 기반의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험에 노출된 자산을 중심으로, 기후 관련 리스크가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대응 전략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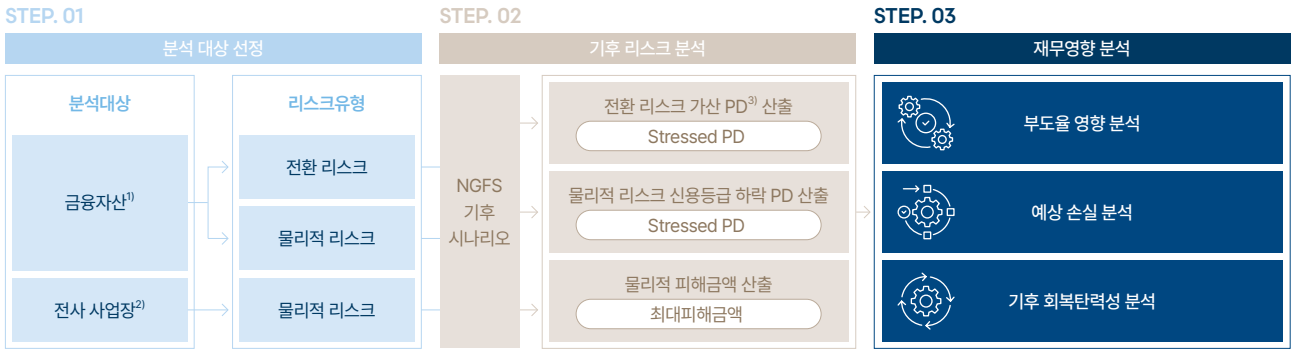
기후 시나리오 분석은 총 3단계의 프로세스를 거쳐 수행되었습니다. 우선, 기후 리스크에 노출된 자산 범위를 정의하기 위해 전체 자산을 검토하였으며, 2024년 9월 말 기준 총 자산 60.8조 원 중 국채·지방채 및 단기성 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 약 16.9조 원(27.9%)과 전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NGFS가 제시한 기후 시나리오를 분석 틀로 적용하고 금융감독원이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에 제시한 대표 시나리오를 채택하여, 업계 전반에 통용되는 기준에 기반한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적용한 시나리오는 Current Policies, Delayed Transition, Net Zero 2050의 세 가지이며, 2050년까지 10년 단위로 기후 리스크에 따른 가산 부도율을 산출하고, 시나리오별 예상 손실 규모와 부도율 영향 수준을 정량화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조직의 기능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회복탄력성에 대한 분석도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 NGFS 시나리오별 탄소비용 추세




#### 기후 시나리오 분석 프로세스




1) 정부, 지자체 익스포저 및 트레이딩 성향 높은 자산은 제외
2) 보유 사옥, 본사, 영업점, 고객지원센터, 어린이집, 인재원, IDC 등을 포함함
3)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을 의미

#### 기후 시나리오 분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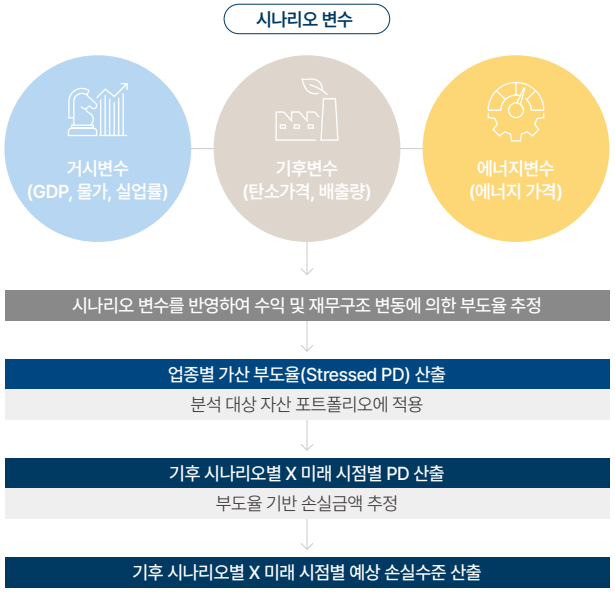
# 기후변화 대응

## 전략

### 전환 리스크 시나리오 분석 방법

저탄소 경제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실물 경제와 금융 부문의 전환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수익 및 재무구조 변동을 반영한 부도율 추정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NGFS 시나리오에서 제시된 기후변수(탄소배출량, 탄소가격), 거시변수(GDP, 물가상승률, 실업률), 에너지변수(석탄, 가스, 석유 가격)를 업종별 부도율 산출에 적용하고, 이를 분석 대상 자산에 반영하여 최종 예상 부도율을 도출하였습니다. 이후 부도 시 손실률을 적용해 미래 예상 손실수준을 산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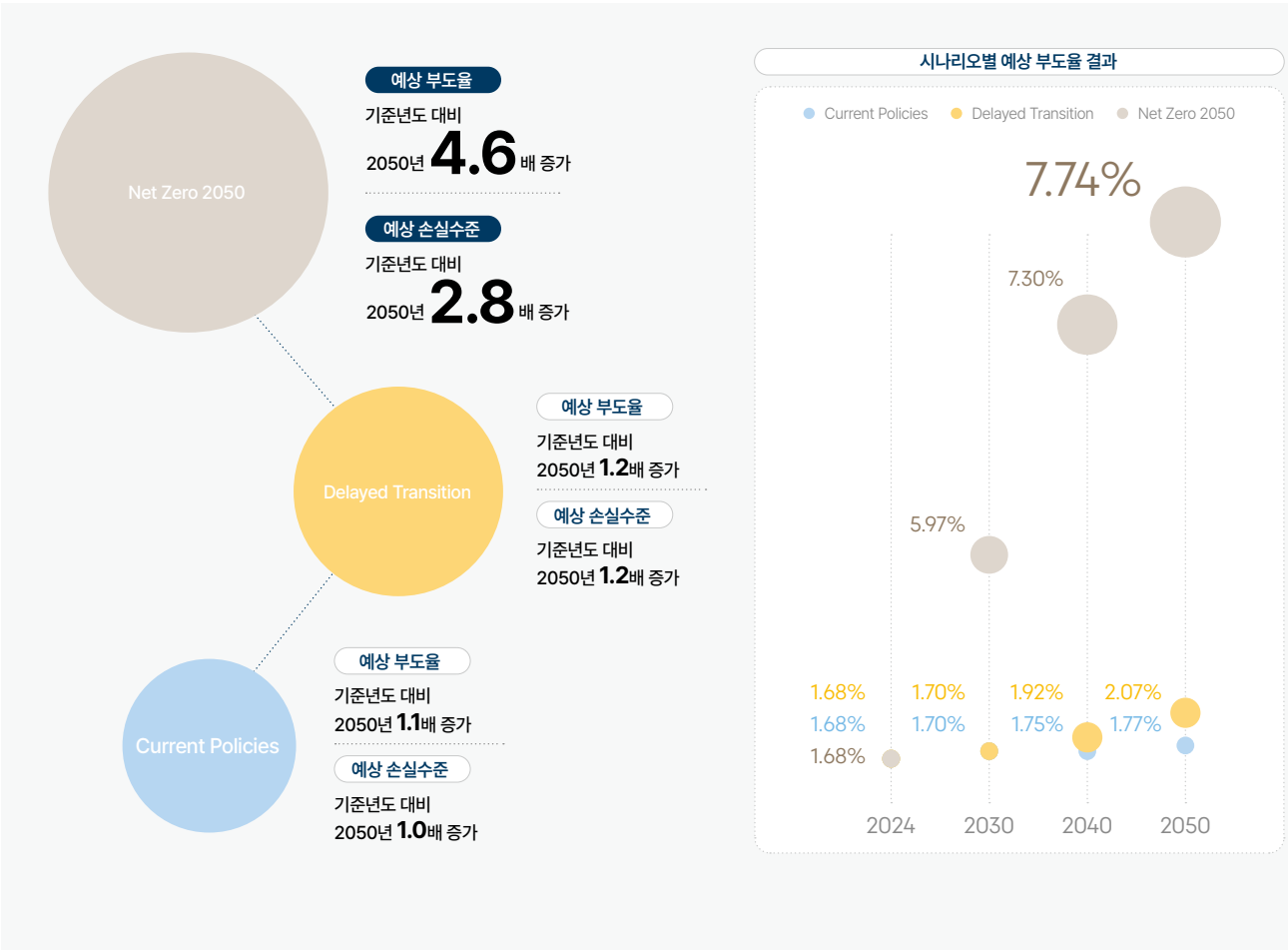
#### 전환 리스크 시나리오 분석 프로세스




### 전환 리스크 시나리오 분석 결과

전환 리스크로 인한 부도율 증가폭은 NZ, DT, CP 시나리오 순으로 크게 나타났습니다. NZ 시나리오에서 2050년 부도율은 2024년 대비 최대 4.6배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전환 리스크로 인한 예상 손실수준은 부도율 분석 결과 NZ 시나리오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기준년도 부도율로 추정한 손실수준과 비교할 때 2050년 누적 손실수준은 최대 2.8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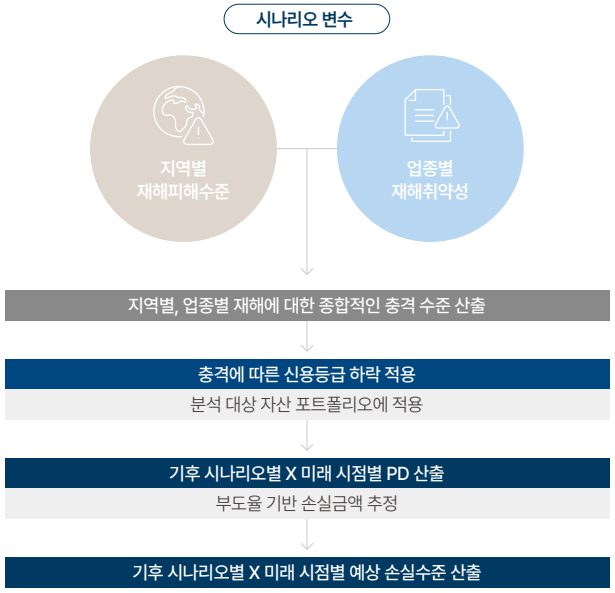
# 기후변화 대응

## 전략

### 물리적 리스크 시나리오 분석 방법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이상 기후, 자연재해 등의 영향이 실물 경제와 금융 부문에 미치는 물리적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시나리오 변수에 따른 부도율 기반 손실금액을 추정하였습니다. 물리적 리스크 분석에서는 시나리오별 자연재해 피해 수준 데이터와 업종별 재해 취약성을 기반으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과 그에 따른 부도율 변화를 산출하였으며, 동일하게 부도 시 손실률을 반영해 미래 예상 손실수준을 분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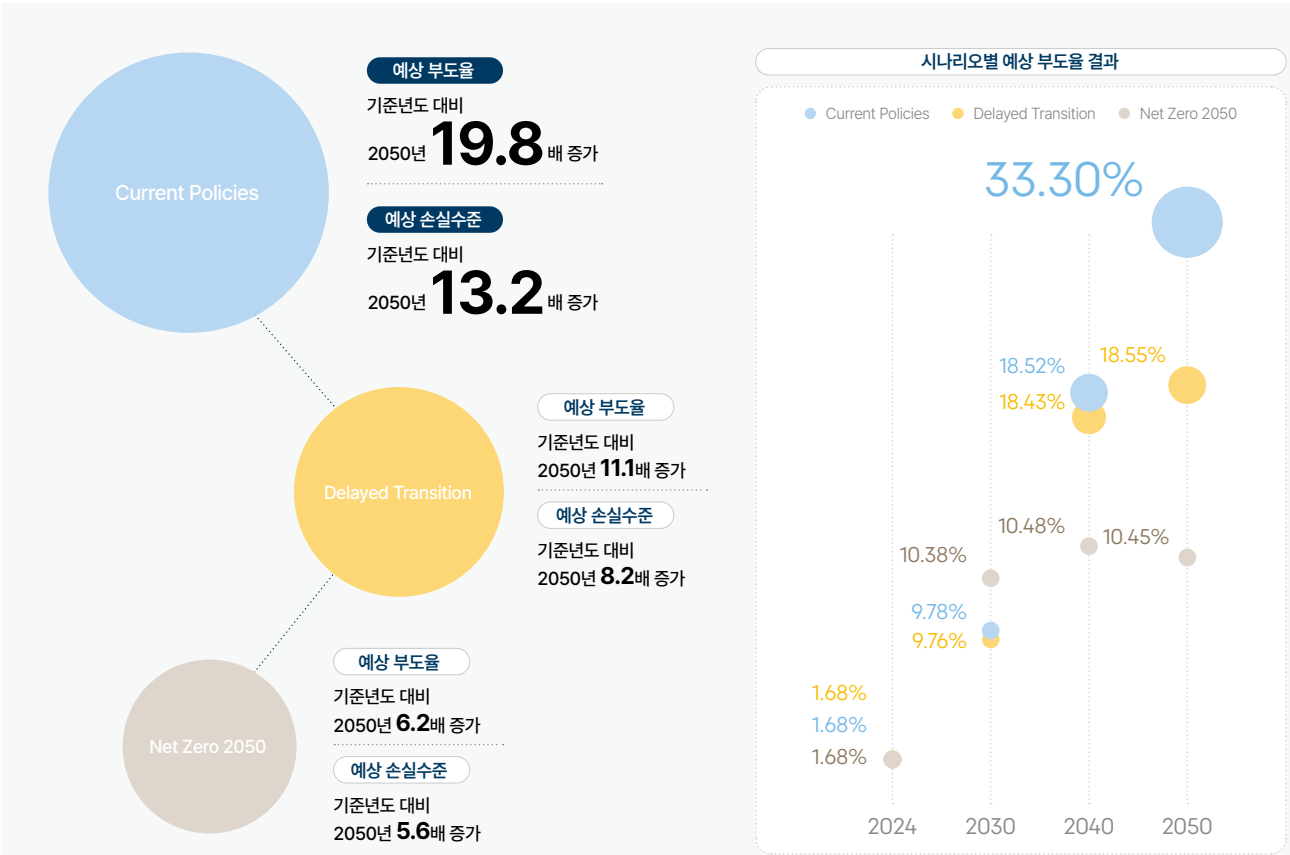
#### 물리적 리스크 시나리오 분석 프로세스




### 물리적 리스크 시나리오 분석 결과

물리적 리스크로 인한 부도율은 CP, DT, NZ 시나리오 순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으며, 특히 CP 시나리오에서 2050년 부도율은 2024년 대비 최대 19.8배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물리적 리스크로 인한 예상 손실수준은 부도율 분석 결과 CP 시나리오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2050년 누적 손실수준은 기준년도 부도율로 추정한 수준보다 최대 13.2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기후변화 대응

##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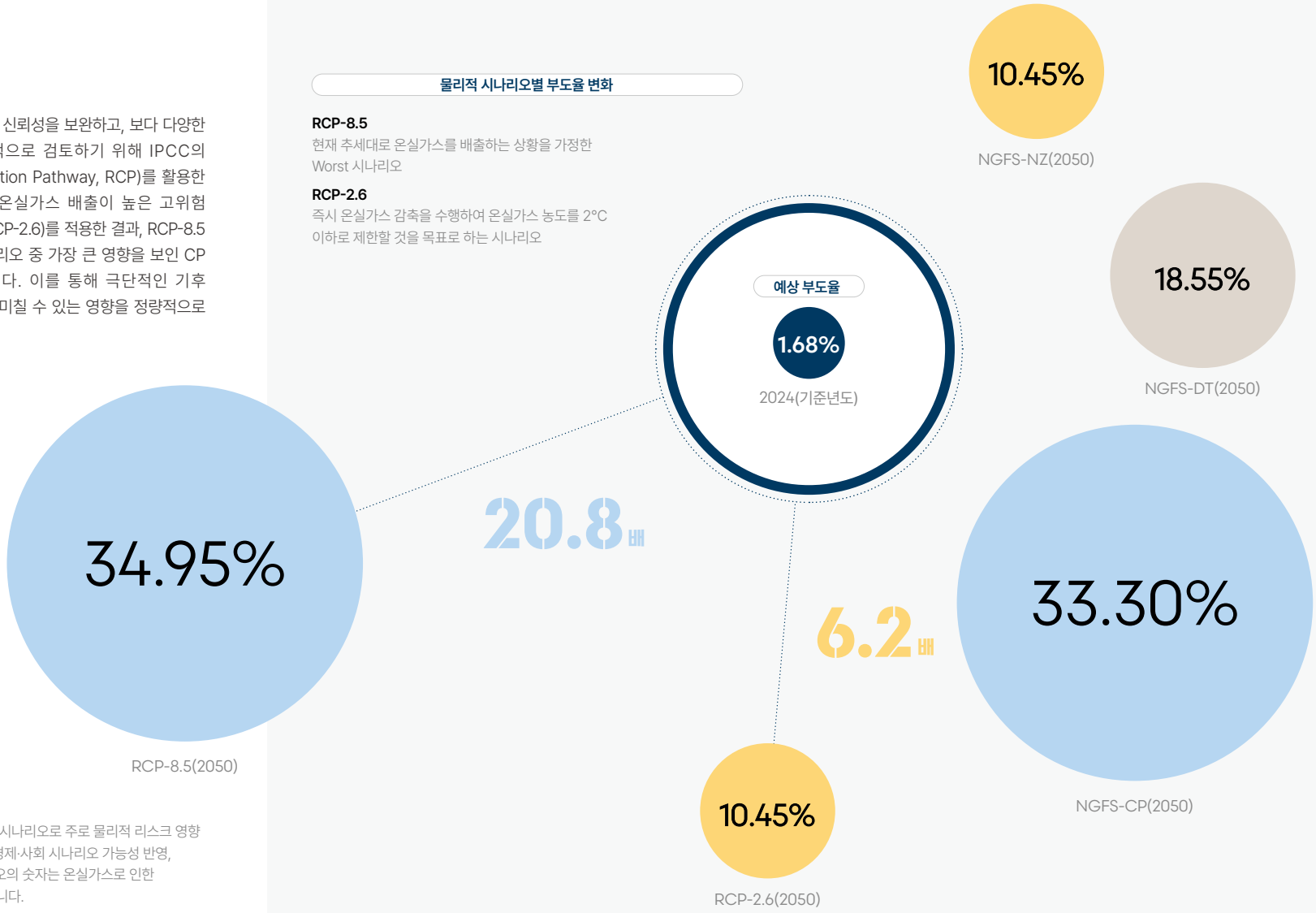
### RCP 기반 물리적 리스크 추가 분석

NH투자증권은 NGFS 시나리오 기반 분석의 신뢰성을 보완하고, 보다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의 물리적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IPCC의 대표농도경로(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RCP)를 활용한 시나리오 분석을 추가로 수행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고위험 시나리오(RCP-8.5)와 배출 억제 시나리오(RCP-2.6)를 적용한 결과, RCP-8.5 시나리오에서 산출된 부도율은 NGFS 시나리오 중 가장 큰 영향을 보인 CP 시나리오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극단적인 기후 조건에서의 물리적 리스크가 재무적 측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물리적 시나리오별 부도율 변화**

**RCP-8.5**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상황을 가정한 Worst 시나리오

**RCP-2.6**
즉시 온실가스 감축을 수행하여 온실가스 농도를 2°C 이하로 제한할 것을 목표로 하는 시나리오




**CHECK**

### RCP (대표농도경로)란?

온실가스 농도에 따른 경로를 구분한 시나리오로 주로 물리적 리스크 영향 분석에 활용됩니다. '대표'는 다양한 경제·사회 시나리오 가능성 반영, '경로'는 배출량의 변화, RCP 시나리오의 숫자는 온실가스로 인한 추가적인 지구 흡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 기후변화 대응

## 전략

### 전사 사업장[1] 대상 물리적 리스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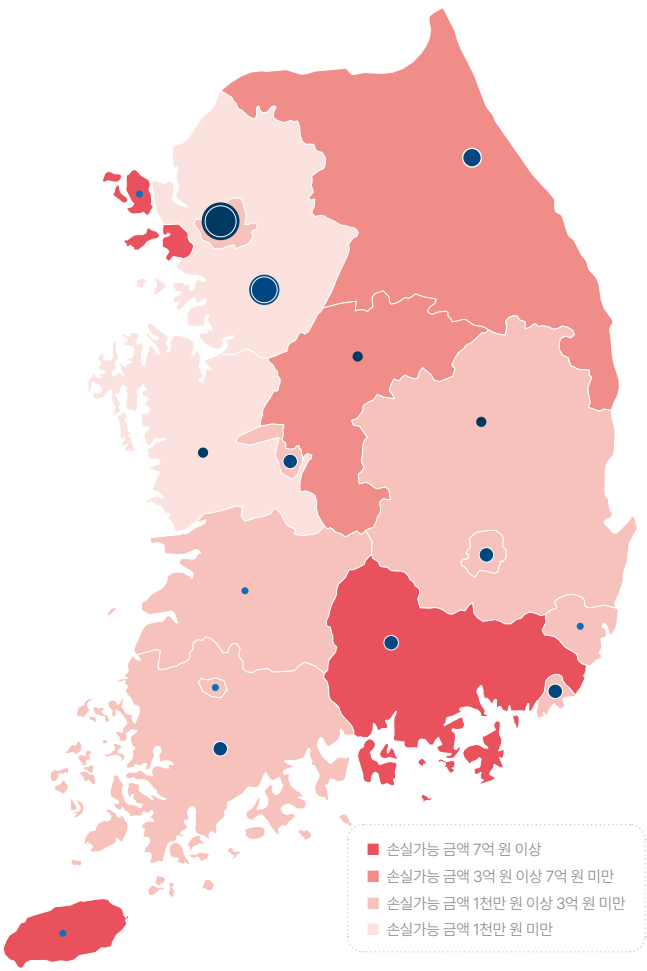
NH투자증권은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가 회사 사업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보유 사옥 및 임차 영업점 등 전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물리적 리스크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분석은 NGFS 시나리오 중 NZ, DT, CP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진행하였으며, 각 시나리오별 사업장 분포에 따른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 금액을 산출하였습니다.

1) 보유 사옥, 본사, 영업점, 고객지원센터, 어린이집, 인재원, IDC 등을 포함함

### 전사 사업장 대상 물리적 리스크 분석 결과

NH투자증권의 전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물리적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CP 시나리오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손실 가능 금액은 약 37.4억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이 지연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는 시나리오 하에서, 물리적 리스크에 따른 자산 피해 가능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NH투자증권은 보유 및 임차 중인 모든 건물에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물리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물리적 리스크 지도_NH투자증권 전사 사업장**




**전사 사업장의 물리적 리스크 시나리오 분석 프로세스**

행정안전부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통계자료 수집

**01**

지역별 평균 피해금액 및 VaR[2]추정

- Simulation을 통해 지역별 평균 피해금액 정규분포화

물리적 리스크 분석 모델 적용

**02**

시나리오의 지역별 민감도 산출

- 미래 자연재해에 대한 민감 수준의 증가폭 추정
- 시나리오별 민감 수준 추정

**03**

전사 사업장의 손실가능 금액 산출

- 지역별 민감 수준을 적용해 최대 손실가능 금액 추정

2) VaR(Value at Risk): 특정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규모를 통계적으로 표현한 수치

# 기후변화 대응

## 전략

### 기후 회복탄력성 분석

NH투자증권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충격에 조직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회복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기후 회복탄력성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포트폴리오 내 산업군을 고탄소 산업과 저탄소 산업으로 분류한 뒤, 고탄소 산업군에 대해 세부 업종별로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전환리스크가 가장 높은 NZ 시나리오에, 배출량이 많은 CP 시나리오를 결합하여 가장 극단적인 환경을 Baseline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 가지 대응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회복탄력성을 평가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 기후 회복탄력성 분석 결과

기후 회복탄력성 분석 결과, Baseline 시나리오에서 분석 대상 자산 포트폴리오의 2050년 기준 가중평균 부도율은 9.25%로 산출되었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투자 대상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감축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부도율은 8.52%로 나타났으며, 이는 Baseline 대비 0.73%p 감소한 수치입니다.

NH투자증권이 고탄소 자산의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시나리오에서는 부도율이 3.84%로 낮아져, Baseline 대비 5.41%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투자 대상 기업의 감축 노력과 NH투자증권의 포트폴리오 개선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 부도율이 3.23%로 감소해 Baseline 대비 6.02%p 하락하며 가장 큰 개선 폭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고탄소 포트폴리오 비중을 줄이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NH투자증권은 포트폴리오 점검과 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기후 회복탄력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후 회복탄력성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

| 시나리오 | | 설명 | 2050년 부도율 | 부도율 변화 |
|---|---|---|---|---|
| Baseline |  무대응 시나리오 | 국가 탄소배출량은 현 정책 수준을 유지하고, 탄소배출권 가격은 탄소중립 시나리오 기준을 적용하며, NH투자증권이 현재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경우 | 9.25% | - |
| 시나리오1 |  투자 대상 기업의 탄소감축 노력 | 배출권 할당 대상 기업이 탄소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 효율 제고 등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8.52% | ▼0.73%p |
| 시나리오2 |  NH투자증권의 포트폴리오 조정 | NH투자증권이 포트폴리오 내 고탄소 배출 자산 비중을 줄이는 경우 | 3.84% | ▼5.41%p |
| 시나리오3 |  투자 대상 기업과 NH투자증권의 공동 노력 | NH투자증권의 포트폴리오 개선 노력과 투자 대상 기업의 탄소감축 노력이 함께 진행될 경우 | 3.23% | ▼6.02%p |

# 기후변화 대응

## 리스크 관리

### 기후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NH투자증권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식별·평가·관리하기 위해 기후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리나 시장과 같은 전통적 리스크 외에도, 기후 리스크를 당장 혹은 가까운 미래에 직면할 중요한 리스크로 인식합니다. 탄소배출이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 리스크가 회사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배출량 측정·분석 체계를 마련했으며, 기후 리스크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측정·분석하고 관리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리스크 대응에 힘쓰고 있습니다.

### 환경사회투자정책 수립

NH투자증권은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식별·평가하기 위한 일환으로, '환경사회투자정책'을 마련하고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통해 투자 거래 시 기후변화 요인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산업별 익스포저 관리체계를 고도화하여 기후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합니다. 기후 리스크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면 ESG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전사적인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 기후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NH투자증권은 탄소회계금융협회(PCAF, 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유 투자자산의 금융배출량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룹 공동 측정 시스템을 통해 분기별로 산출된 금융배출량은 정기적으로 경영진에 보고합니다. 또한 녹색금융협의체(NGFS, 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권고안 및 대표농도경로(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등 기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리스크 관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후 리스크 관리 Framework**



01

**리스크 식별**

- 기후변화로 인한 잠재위험의 기존 리스크 전이 경로 분석
- 전이에 따른 NH투자증권 영향 리스크 요인 도출



02

**리스크 평가**

- 탄소배출량(Scope 3) 측정 및 분석
- 업종별 익스포저, 금융배출량, 배출집약도 현황 및 추이 분석
- 기후 시나리오 기반 영향 분석 수행



03

**모니터링 및 보고**

- 고탄소 업종 및 투자배제 영역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운영
- 리스크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방안 수립 및 경영진 보고



04

**리스크 대응 및 완화**

- 기후 리스크 관련 내부 규정 및 관리 정책 마련
- 고탄소 익스포저 축소 및 재무영향 최소화 계획 수립
- 기후-금융리스크 통합관리 전략 수립 및 실행

# 기후변화 대응

## 지표 및 목표

###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지표

NH투자증권은 GHG Protocol과 IPCC Guidelines: 2006에 기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측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 통제 기준의 조직 경계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내부 매뉴얼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합니다. 측정 결과는 제3자 기관의 검증을 통해 객관성과 정확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전략 및 실행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항목**

**내부 배출량 (Scope 1, 2)**

- 본사 및 임차 사무실의 직접 연소 에너지 사용
- 본사 및 임차 사무실의 구매 전력 등 간접 에너지 사용
- 업무용 차량 운행에 따른 연료 소비

**기타 간접 배출량 (Scope 3)**

- 용지, 카드, 상수도 등 제품·서비스 구매 시 발생하는 간접 배출
-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
- 임직원 출장 시 교통수단 이용으로 인한 간접 배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결과**

단위 : $tCO_2eq$

| 구분 | 2022 | 2023 | 2024 |
|---|---|---|---|
| 내부 배출량(Scope 1, 2 소계)[1] | 7,381.4 | 7,241.5 | **6,769.8** |
| 직접 배출량(Scope 1) | 1,074.6 | 887.4 | **830.1** |
| 간접 배출량(Scope 2)-지역기반 | 6,306.8 | 6,354.1 | **5,939.7** |
| 간접 배출량(Scope 2)-시장기반 | 6,306.8 | 6,320.6 | **5,617.8** |
| 기타 간접 배출량(Scope 3)[2] | 643.0 | 844.3 | **886.0** |
| Scope 1, 2, 3 총계 | 8,024.4 | 8,085.8 | **7,655.8** |

1) 직접 배출량(Scope 1), 지역기반 간접 배출량(Scope 2) 합계
2) GHG Protocol 기준 Category 1(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 5(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6(출장) 항목에 대해 산정



6.5 % 감축

지역기반 내부 배출량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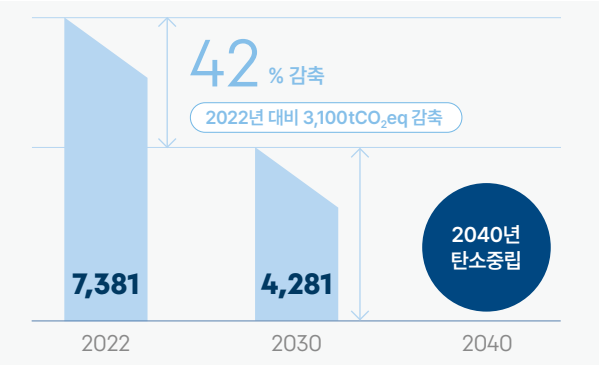
### 내부 배출량 감축 목표

NH투자증권은 NH농협금융그룹의 탄소중립 목표[3]를 준용하여 내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2022년 대비 42% 감축, 2040년까지 순배출 제로(Net Zero)를 목표로 합니다. 감축 이행 전략은 그룹 지침을 기반으로 당사의 사업 특성과 운영 환경을 반영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4년 NH투자증권의 시장기반 내부 배출량(Scope 1, 2)은 6,447.9$tCO_2eq$으로, 연간 목표치인 6,441$tCO_2eq$에 근접하였으며, 2022년 대비 약 12.6% 감축한 성과입니다.

**Scope 1 & 2 감축목표**

단위 : $tCO_2eq$




3) NH농협금융그룹은 2020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42% 감축, 204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며, 당시 NH투자증권의 배출량은 10,219$tCO_2eq$임

### 에너지 사용량 관리 지표 및 목표

NH투자증권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연도별 목표를 수립하고,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설정한 목표 대비 매년 에너지 사용량은 이를 하회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총 61,973.6GJ를 사용하여 전년 대비 3,150.8GJ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친환경 차량 도입과 전력 사용 효율화 등의 노력을 통해 감축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에너지 사용 저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사용량 추이 및 감축 성과**

단위 : GJ



4.8 % 감축

에너지 사용량 전년대비

| 구분 | 2022 | 2023 | 2024 |
|---|---|---|---|
| 총 에너지 사용량 | 67,991.4 | 65,124.4 | **61,973.6** |
| 목표 | 기준년도 | 65,217.7 | **62,660.9** |
| 목표 대비 감축량 | - | 147.3 | **687.3** |

# 기후변화 대응

## 지표 및 목표

### RE100 이행 전략 및 전환 목표

NH투자증권은 2023년 11월 K-RE100[1]에 가입하고, 2040년까지 전력 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에는 재생에너지 인증서(REC)와 녹색프리미엄을 구매하여 전체 전력 사용량 대비 13%[2]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35%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전환 수단을 지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에는 CoREi(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에 가입하여 자발적 목표 수립 및 이행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시장 동향, 정책 변화, 내부 경영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연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대외 협력을 통해 전환 수단 확보와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RE100 이행 로드맵**




1)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기 위한 자발적인 국내 캠페인으로 RE100(Renewable Energy 100%)의 한국형 모델
2) 2024년 전체 전력 사용량 12,864MWh 대비 1,701MWh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함

### 금융배출량 관리지표 및 목표

금융기관은 다른 산업에 비해 내부배출량(Scope 1, 2)보다 금융배출량(Scope 3 - Category 15)의 비중이 높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NH투자증권은 PCAF 방법론을 적용해 금융배출량을 산정했으며, 고탄소 산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포트폴리오 내 친환경 자산 비중을 점차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따른 전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후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금융배출량은 전년 대비 약 51.1만$tCO_2eq$ 감소하고, 금융집약도는 18.1$tCO_2eq$/억 원에서 11.7$tCO_2eq$/억 원으로 개선되어 포트폴리오 내 탄소 배출 효율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금융배출량 측정 결과**

잔액: 억 원, 배출량: 만$tCO_2eq$, 집약도: $tCO_2eq$/억 원

| 구분 | 2022 | | | 2023 | | | 2024 | | |
|---|---|---|---|---|---|---|---|---|---|
| | 잔액 | 금융 배출량 | 금융 집약도 | 잔액 | 금융 배출량 | 금융 집약도 | 잔액 | 금융 배출량 | 금융 집약도 |
| 상장주식 | 611.7 | 2.3 | 37.1 | 728.8 | 2.3 | 31.7 | 577.1 | 1.3 | 23.6 |
| 회사채 | 80,787.6 | 131.6 | 16.3 | 80,364.5 | 170.1 | 21.2 | 91,052.9 | 99.9 | 11.0 |
| 기업대출 | 18,385.7 | 14.8 | 8.1 | 20,526.5 | 13.6 | 6.6 | 35,039.6 | 14.8 | 4.2 |
| 비상장주식 | 16,727.9 | 21.2 | 12.7 | 14,736.7 | 21.2 | 14.4 | 14,934.8 | 45.2 | 30.3 |
| 인프라PF | 50.0 | 0.0 | 1.6 | N/A | N/A | N/A | N/A | N/A | N/A |
| 오브젝트 금융 | 190.0 | 0.1 | 5.7 | 164.9 | 0.0 | 1.3 | N/A | N/A | N/A |
| 상업용 부동산 | 1,632.2 | 0.1 | 0.4 | 1,515.3 | 0.1 | 0.3 | 858.6 | 0.0 | 0.1 |
| **소계** | **118,385.1** | **170.1** | **14.4** | **118,036.7** | **207.3** | **17.6** | **142,463.0** | **161.2** | **11.3** |
| 정부 익스포저 | 12,329.8 | 41.6 | 33.8 | 4,229.4 | 13.8 | 32.6 | 2,690.4 | 8.8 | 32.7 |
| **합계** | **130,714.9** | **211.7** | **16.2** | **122,266.1** | **221.1** | **18.1** | **145,153.4** | **170.0** | **1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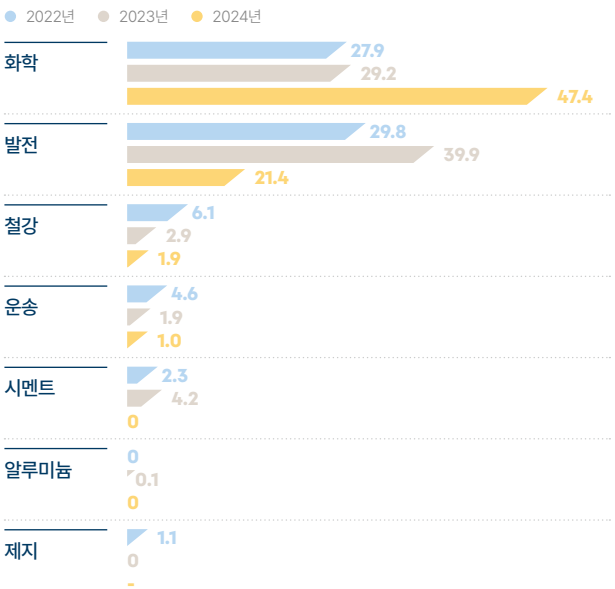
# 기후변화 대응

## 지표 및 목표

### SBTi 기준 업종별 금융배출량 현황

NH투자증권은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인 SBTi[1] 기준에 따라 주요 산업군의 금융배출량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SBTi 주요 섹터에 해당하는 업종의 투자자산 규모는 약 7,655억 원이며, 이는 전체 금융배출량 측정 대상 자산 14.5조 원 중 약 5.3%에 해당합니다. 이들 업종에서 발생한 금융배출량은 총 71.7만tCO$_2$eq로, 전체 금융배출량 170.0만tCO$_2$eq 중 약 42.2%에 해당합니다. 업종별 금융배출량은 화학, 발전, 철강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NH투자증권은 해당 산업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감축 노력을 통해 금융배출량 저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SBTi 주요 섹터별 금융배출량** 단위 : 만tCO$_2$eq




1) SBTi(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과학 기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을 지원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 금융배출량 데이터 신뢰도

금융배출량 데이터는 피투자회사의 공시된 탄소배출량과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이 제공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수집·측정합니다. 데이터 신뢰도는 PCAF 기준의 데이터 품질 점수(Data Quality Score)를 바탕으로 평가하였고, 수치가 낮을수록 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기반했음을 의미합니다. NH투자증권의 데이터 품질 점수[2]는 Scope 1에서 평균 2.89점, Scope 2에서 평균 2.97점, Scope 3에서 평균 3.55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데이터 품질 점수**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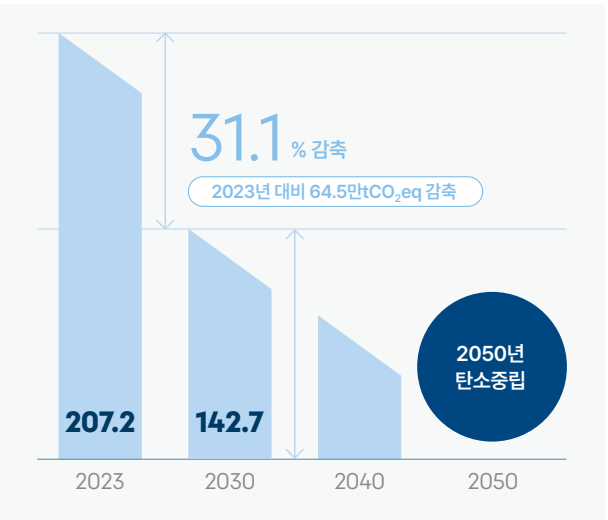
| 구분 | 상장 주식 | 회사채 | 기업 대출 | 비상장 주식 | 상업용 부동산 | 국채 | 평균 점수 |
|---|---|---|---|---|---|---|---|
| Scope 1 | 2.90 | 2.65 | 3.92 | 2.47 | - | 1.00 | 2.89 |
| Scope 2 | 2.90 | 2.65 | 3.92 | 2.47 | 4.00 | 4.00 | 2.97 |
| Scope 3 | 3.38 | 3.51 | 4.07 | 2.65 | - | 4.00 | 3.55 |

2) 잔액 가중평균 방식 [(자산별 잔액 x 자산별 데이터 스코어)의 합 ÷ 총 잔액]으로 산출

###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

NH투자증권은 NH농협금융그룹의 탄소중립 목표를 준용하여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중간 목표는 국가 NDC 감축경로를 반영해 2030년까지 2023년 금융배출량 대비 31.1% 감축[3]이며, 2040년 감축을 거쳐 2050년 최종적으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합니다. 목표 이행 전략은 그룹의 정책을 기반으로 하되 당사의 포트폴리오와 사업 특성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는 정부 익스포저를 제외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2024년 목표는 204.3만tCO$_2$eq입니다. 2024년 금융배출량 실적은 161.3만tCO$_2$eq로 2023년 대비 약 22.2% 감소한 수준입니다.

**금융배출량 목표** 단위 : 만tCO$_2$eq




3) NH농협금융그룹은 2021년 SBTi 인증을 통해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NH투자증권의 2030년 목표를 2021년 대비 24.2% 감축으로 설정. 탄소배출량 공시 기업 증가로 인해 최초 측정 대비 금융배출량이 증가하여 2023년을 기준으로 목표 재설정

# 환경책임경영

## 환경경영 체계

###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NH투자증권은 전사 환경경영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호에 대한 의지를 안팎으로 표명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ESG위원회와 지속가능협의회는 환경경영 전략과 계획을 수립·감독하고, ESG본부는 전략 이행을 위한 실행과제 수립과 성과 평가, 환경경영 캠페인 기획 등 실무를 담당합니다.

NH투자증권은 2022년 6월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 14001) 인증을 취득한 후, 2024년에도 인증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GHG Inventory Manual을 구축해 전사 온실가스 측정 및 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환경지표 관리 및 CDP 대응 활동

NH투자증권은 온실가스·폐기물·에너지 사용량 등 주요 환경 데이터를 전사적으로 관리하며, 본사를 포함한 전국 영업점까지 조직 경계 내 환경 성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 관련 데이터는 CDP(Carbon Disclosure Project)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2024년 CDP 평가에서 '리더십 A-'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NH투자증권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비즈니스 기회 식별 및 공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 참여, 제3자 검증 시행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의 모범사례를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친환경 업무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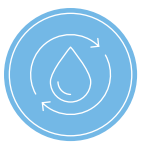
### 인프라 개선 및 에너지 효율화

NH투자증권은 제품 구매 시 에너지 고효율 및 친환경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습니다. NH인재원에는 스마트 조명 솔루션 기업인 메를로랩의 '메쉬 네트워크(Mesh Network)'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LED 조명 제어시스템을 도입해 기존 대비 에너지 효율을 50% 개선했으며, 계량기를 통해 기간별 전력 사용량을 정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센터 이전, 통합 및 신규 오픈 리모델링 공사 시 장기적 비용 절감을 위해 고효율 LED 전등을 설치하고 최근 Premier Blue 도곡센터, 노원WM센터, 반포금융센터, 반포 Branch 등에는 친환경 자재 및 마감재를 적용하여 인프라를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중수도 시스템 운영

NH투자증권이 입주한 Parc.1 타워 2 본사 사옥은 수자원 보호를 위해 중수도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세면장 물을 수차례 필터링 및 여과해 화장실 변기수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되는 용수는 2024년 기준 12,676톤으로, 본사 사옥 연간 전체 수도 사용량의 23%를 차지합니다.



23%
본사 사옥 재활용 용수 비율

###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NH투자증권은 본사 사옥에 총 36대의 전기차 충전소를 마련해 전기차 충전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광주 사옥 주차장에 2대, NH인재원 주차장에 3대의 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전기차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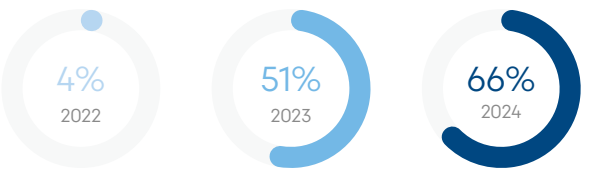
### 친환경 업무용 차량 도입 확대

NH투자증권은 차량 운행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법인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전체 73대 중 하이브리드 차량 24대, 전기차 24대로 내연기관 차량을 웃도는 비중을 차지합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에너지 차량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업무용 차량 보유 현황** 단위: 대

| 구분 | 2022 | 2023 | 2024 |
|---|---|---|---|
| 휘발유차 | 62 | 30 | 18 |
| 경유차 | 4 | 6 | 7 |
| 하이브리드차 | 0 | 20 | 24 |
| 전기차 | 3 | 17 | 24 |
| 합계 | 69 | 73 | 73 |

**친환경 운송수단 비율**



# 환경책임경영

## 임직원 환경경영 실천

### 생활 속 탄소저감 실천 캠페인

NH투자증권은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매월 임직원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양치컵 사용, 반려식물 키우기, 실내 적정 온도 유지, 생활 속 폐기물 줄이기 등 다양한 환경보호 아이디어에 총 203명이 참여해 실천에 옮겼습니다.

### 범농협 With Green 워킹×플로깅 캠페인

NH투자증권은 범농협 계열사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200억 걸음 캠페인'에 참여하였으며, 사내 자체 프로그램인 'With Green 워킹×플로깅'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총 1,001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2.36억 걸음, 약 188,800km의 누적 거리 달성에 기여하였으며, 이는 약 26.7톤의 탄소 저감 효과와 30년생 소나무 3,104그루 식재 효과에 해당합니다. 또한 플로깅 활동에는 126명의 직원이 참여하여 총 232시간의 환경 정화 활동을 수행하며 일상 속 친환경 실천 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26.7 $tCO_2eq$**
임직원 걸음 기부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효과

**852 $kgCO_2eq$**
커피캡슐 수거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효과

### 커피캡슐 수거 캠페인

NH투자증권은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분리배출이 어려운 커피캡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네스프레소와 함께 '커피캡슐 그린 모먼트(Green Moment)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 커피머신에서 사용된 캡슐 쓰레기를 층별 전용 수거함에 모아 일괄 수거하고, 리사이클링을 통해 임직원의 자원순환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4년 본사에서 수거된 커피캡슐은 총 8만 400개로, 약 852$kgCO_2eq$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었으며, 회수된 캡슐은 퇴비·비료·산업용 재료로 재활용됩니다.

### 사내 텀블러 사용 환경 조성

NH투자증권은 본사 사옥 내 카페테리아에 2022년부터 텀블러 세척기 13대를 설치·운영하며, 일회용품 사용 저감과 친환경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척이 불편하고 위생 관리가 어려워 개인 텀블러가 있음에도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임직원이 보다 쉽게 다회용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척기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24년에는 총 7,875회 세척기 사용이 이루어졌으며, 약 2,920kg의 탄소 배출을 저감하였습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340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에 해당합니다. NH투자증권은 앞으로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친환경 실천 문화를 조성해 지속적으로 환경 개선에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2,920 $kgCO_2eq$**
다회용컵 사용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효과

### 장난감 분해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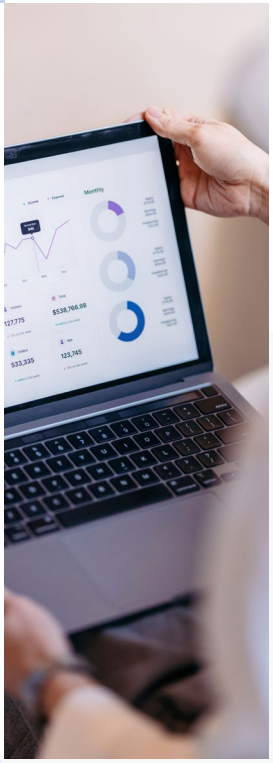
버려진 장난감의 상당수는 재활용되지 못한 채 소각 또는 매립되어, 발암물질이나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환경보호와 자원 순환에 동참하고자, 비영리단체 사단법인 트루(TRU, Toy Recycle Union)와 함께 2023년부터 '장난감 분해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임직원 100여 명이 환경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총 106kg의 장난감을 분해했습니다. 분해된 장난감 부품은 업사이클링 플라스틱 소재 제조에 활용되며, 장난감 분해 작업으로 360kg의 탄소 저감 효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42그루를 심은 효과와 동일합니다.



▲ 장난감 분해 캠페인 실시

# 디지털 금융 및 플랫폼 전략



## 영향에 대한 분석

금융산업은 디지털 금융과 모바일 플랫폼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통적 금융서비스를 넘어, 디지털·AI 신기술을 적용한 비대면 투자 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의와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한층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NH투자증권은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와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사업 혁신 기회로 삼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 강화를 핵심 이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금융업 전반이 혁신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디지털 기술 덕분에 한층 쉽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금융사는 디지털·비대면 거래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NH투자증권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여 미래 금융시장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금융 조직을 정비하고 장기 전략을 마련해 디지털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디지털 금융 전환이 가져올 기회와 리스크를 파악해 리스크 관리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거버넌스

### 디지털 금융 중심 조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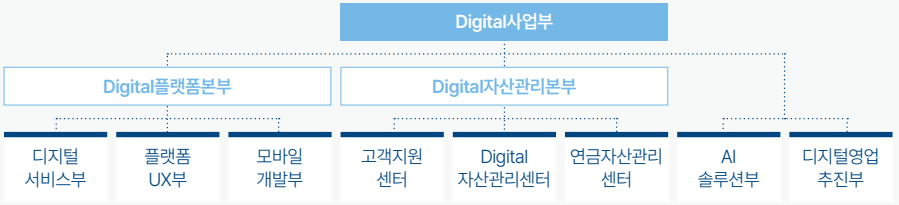
NH투자증권은 디지털 채널로 재편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Digital사업부 내에 Digital플랫폼본부와 Digital자산관리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Digital플랫폼본부:**
플랫폼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기획, UI·UX 최적화,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 플랫폼 구축·운영 전반을 담당

**Digital자산관리본부:**
'자산관리 니즈 고객 발굴'과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영역을 세분화해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전문적인 인적 서비스를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투자 상담을 제공

이와 함께 디지털영업추진부와 AI솔루션부를 사업부 직속으로 두어, 고객 전략 및 중장기 사업 로드맵에 따른 고객 확장 업무를 수행하고,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과 효과적인 도입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하였습니다.

**디지털 금융 전담 조직**



# 디지털 금융 및 플랫폼 전략

## 전략

### 디지털 금융 및 플랫폼 전략

NH투자증권은 디지털 혁신을 위해 중장기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를 마련해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비즈니스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압도적 디지털 경험 제공', '디지털 WM(Wealth Management) 강화', 'AI 기반 고객 경험 혁신 및 전사 인공지능 전환'을 디지털 전환의 3대 핵심 추진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앞으로도 NH투자증권은 디지털 기술을 토대로 고객 경험을 향상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업무 경쟁력을 갖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갈 계획입니다.

**3대 핵심 추진방향**

**01. 압도적 디지털 경험 제공**

컨텐츠 중심 서비스 차별화
- 개인 맞춤형 투자정보 제공 기능 고도화
- 글로벌 파트너십 기반 해외 투자 컨텐츠 확충

플랫폼 이용 편의성 강화
- 고객 투자 여정 중심 서비스 체계 효율화 및 사용성 개선

**02. 디지털 WM 강화**

고객 세그먼트별 디지털 자산관리 정교화
- 하이브리드 서비스 체계 구현 (Platform Contents + Human Advisor)
- 고객 데이터 기반 추천 서비스 강화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역량 강화
- 연금, ISA 등 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서비스 강화
- 주식 트레이딩 환경 수준의 UX 편의성 확보

**03. AI 기반 고객 경험혁신 및 전사 AI Transformation 추진**

생성형AI 기반 서비스 및 솔루션 확대
- AI를 활용한 차별화된 투자정보 제공
- 업무, 상품, 고객정보를 적용한 영업직원용 AI솔루션 제공

## 리스크 관리

### 디지털 금융 관련 위험 및 기회 요인 분석

NH투자증권은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위험·기회 요인을 식별해 잠재적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발생 시점에 따라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대응 우선순위를 정하고 대응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 리스크 및 기회 요인 | | 잠재적 영향 | 발생 시점[1] 단기 | 중기 | 장기 | NH투자증권 대응활동 |
|---|---|---|---|---|---|---|
| 리스크 | 재난으로 인한 물리적 인프라 손상 리스크 | • 홍수, 화재 등 천재지변에 따른 금융거래 서비스 및 플랫폼 장애 발생<br>• 백업 시스템 등의 파괴로 중요 금융 데이터 소실 위험 증가 | ● | | | • 재해복구센터 운영<br>• 데이터 백업 및 소산<br>• 반기별 재해복구훈련 실시 |
| | IT 서비스 및 네트워크 환경의 의존성으로 인한 운영 리스크 | • IT 서비스 장애 발생 시 복구 및 유지보수 비용 발생<br>• 거래 중단으로 인한 고객의 직접적 금전 손실 발생<br>• 고객 불만 확산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하락 | ● | ● | | • 시스템 장애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br>• 반기별 재해복구훈련 실시<br>• 장애예방을 위한 인프라 안정성 확보 |
| |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보안 및 내부통제 리스크 | • 보안사고 발생 시 고객 신뢰도 하락 및 법적 제재로 재무적 손실 발생<br>• 고객 개인정보보호 역량에 대한 신뢰도 저하<br>• 정보보호 관련 규제 강화로 인한 대응 비용 증가 | ● | ● | | • 침해사고 대응 및 개인정보 유출대응 훈련 실시<br>• 실시간 보안관제를 통한 위협 탐지<br>• 정기적 대외 인증심사 및 평가 수검 |
| | AI 도입에 따른 윤리적 리스크 | • 학습 데이터에 내재된 편향성으로 인한 판단 영향<br>• 의사결정을 AI가 대체하는 경우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 불명확<br>• AI 윤리 관련 법제화 동향으로 인한 법적 제재 위험 증가 | | | ● | • AI기본법 등 관련 법적 동향 주시 및 법규 준수<br>• 자체적 윤리원칙 및 가이드라인 수립 등 내부 거버넌스 구축 |
| 기회 | 디지털 혁신을 통한 비즈니스 영역 확장 | • 디지털 플랫폼 내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유입 증가<br>• 디지털 자산 관련 금융 서비스 확대로 시장 내 경쟁 우위 선점 | | ● | ● | • 생성형 AI 적용 서비스 확대<br>• 디지털 자산 관련 시장 및 제도 모니터링과 비즈니스 기회 모색 |

1) 단기: 5년 이하, 중기: 5년~10년 이하, 장기: 10년 초과

# 디지털 금융 및 플랫폼 전략

## 지표 및 목표

### 디지털 금융 관련 지표 및 목표

NH투자증권은 디지털 혁신을 통한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디지털 및 AI 기반 금융 서비스 제공과 디지털 전문성 관련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이용자 수,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등 고객 관련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사내 디지털 온라인 학습 과정 이수자 수, AI기반 업무지원 서비스 사용 건수 등 디지털 역량 개발을 위한 지표를 주요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성과지표를 모니터링하고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매년 개선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모니터링 지표 | 단위 | 활동 성과 | | |
|---|---|---|---|---|
| | | 2022 | 2023 | 2024 |
| 디지털 고객 수[1] | 명 | 4,449,324 | 4,836,272 | 5,238,665 |
|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MTS 이용자 수 (평균 MAU[2]) | 만 명 | 272 | 260 | 264 |
| MTS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 점 | 70.2[3] | 72.0[3] | 69.2[4] |
| AI기반 대고객 서비스 사용 건수 | 건 | - | - | 3,438,714 |
| AI기반 내부 업무 지원 서비스 사용 건수 | 건 | - | - | 22,654 |
| 디지털 온라인 학습 과정 수[5] | 개 | 34 | 39 | 49 |
| 디지털 온라인 학습 과정 이수자 수 | 명 | 189 | 184 | 229 |

1) 나무/QV 비대면 계좌 누적 수
2) 와이즈앱(Wiseapp) 산정 기준
3) 한국갤럽(Gallup) 디지털 앱 경쟁력 조사 결과(나무증권 상·하반기 평균 점수)
4) 엠브레인(Embrain) 모바일 앱 경쟁력 조사 결과(나무증권 상·하반기 평균 점수)
5) 온라인 교육 과정 내 '디지털', '빅데이터(AI)' 카테고리 중 1명 이상의 이수자가 집계된 과정 수

## NH투자증권 디지털 금융 서비스

NH투자증권은 데이터 기반의 개인화 서비스와 정보 제공을 통해 고객의 투자 성향과 관심사에 따른 맞춤형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AI 기술을 활용하여 차트를 분석해주는

**차분이 서비스**

NH투자증권은 금융권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이미지 인식 기능을 활용한 차트 분석 서비스 '차분이'를 출시했습니다. 차분이는 글로벌 생성형 AI 기업인 Open AI사의 ChatGPT를 활용한 서비스로 고객이 선택한 차트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정보를 쉽게 풀어 설명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월별 투자 활동을 음악과 함께 즐기는

**월간나무 서비스**

NH투자증권은 고객의 월별 투자 활동을 음악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월간나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간나무는 고객의 투자 내역을 시각화하여 해당 기간의 시장 상황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한 뒤 이를 음악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투자대가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큰손PICK 서비스**

큰손PICK은 월가 투자대가 5인이 운용하는 헤지펀드의 주식 보유현황 보고서를 기반으로, 이들의 포트폴리오 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고객은 투자 대가들의 분기별 주요 종목과 비중 데이터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포트폴리오 구성 이유와 종목 매수·매도 배경 등 투자 시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자산 현황을 한눈에 확인하는

**나의 자산진단 서비스**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NH투자증권의 계좌를 기본으로 타사 계좌를 연동해 고객의 자산배분 현황과 보유 상품 관련 상세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NH계좌분석, 수익률 비교분석, 자산배분 분석, 금융상품 분석 등 4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관리를 지원하는

**Tax 플랫폼 서비스**

자산관리 서비스를 세금관리 영역까지 확장해 고객의 소득부터 세금까지 한번에 확인하고 세금신고대행 및 세무 상담까지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세금관리 서비스입니다. Tax 플랫폼에서 종류별 소득 발생 현황과 세금확인 및 절세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 투자 장벽을 낮추는

**나무팜 서비스**

해외 투자가 어려운 고객을 위한 '나무팜'은 농장을 가꾸는 콘셉트의 서비스로, 소액 투자와 함께 환전 및 시간에 대한 부담을 줄여 투자의 진입장벽을 낮추었습니다. 고객은 종목을 선택해 개인의 '종목 밭'에 추가할 수 있으며 앱 주문과 적립식 주문 방식을 결합해 투자자가 일상적인 투자 습관을 형성하도록 지원합니다.

# 고객중심경영

## 고객중심경영 실행 체계

### 고객만족도 조사

NH투자증권은 고객중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2019년부터 정기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 어드바이저 서비스와 업무서비스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분기별로 투자정보 및 상담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수집해 고객 의견을 청취합니다. 반기에는 디지털케어 서비스 이용 고객과 주요 플랫폼(QV MTS)의 만족도를 측정하여 고객만족도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2024년 서비스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 구분 | | 고객만족도 |
|---|---|---|
| 대면 | 업무서비스 | 93.7 |
| 비대면 | 투자정보 및 상담 | 71.0 |
| | 디지털 케어 | 72.0 |
| 플랫폼 | QV MTS | 70.9 |

* 2024년 하반기 기준

### NH멘토스 고객패널제도

NH투자증권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하기 위해 고객패널단 'NH멘토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비대면 Advisor ISA 상담역량 비교 조사, 증권사 고객 이용 행태 조사, 비대면 Advisor 연금 상담역량 비교 조사, 퇴직연금 이용 고객 인식 조사 등의 주제로 이용고객과 잠재고객의 요구사항을 청취하였고, 고객의 요구 및 불편사항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반영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NH멘토스 운영 프로세스**




### VOC 관리

금융소비자보호본부 내에 민원·VOC 담당팀을 운영하여, 소비자 민원 및 의견 접수 시 빠르게 검토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 내, VOC는 2~7영업일 내에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이 필요한 사항이나 개선 조치가 필요한 의견 등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VOC 운영 현황** 단위: 건, %

| 구분 | 2023 | 2024 | 증감 | |
|---|---|---|---|---|
| | | | 건수 | 증감률 |
| 문의 | 7,617 | 9,554 | 1,937 | 25.4 |
| 제안 | 1,576 | 2,359 | 783 | 49.7 |
| 불만 | 2,368 | 2,202 | △166 | △7.0 |
| 칭찬 | 2,276 | 3,882 | 1,606 | 70.6 |
| 합계 | 13,837 | 17,997 | 4,160 | 30.1 |

# 고객중심경영

## 고객 맞춤형 서비스 운영

### 챗봇 '노아'

NH투자증권의 챗봇 '노아'는 투자정보, 현재가 조회, 이벤트 안내, 공지사항 등 단순 업무 문의뿐만 아니라 유상청약, 반대통보 등 개인 맞춤 권리 안내, 공모주 청약 시 필요한 거래 비밀번호 변경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챗봇 노아는 2022년 9월 신규 출시 이후 현재까지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일평균 사용자 수 3,068명, 재방문율 49%의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앞으로도 챗봇 노아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고객과의 비대면 소통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금융센터 인적 서비스 확대

NH투자증권은 어드바이저의 전문적인 자산관리가 필요한 고객을 대상으로 양질의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별 거점 오프라인 금융센터를 2022년 말 기준 10개에서 2024년 말 16개로 확대하였습니다. 센터 내에 고객의 단순 업무를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STM(Smart Teller Machine) 배치를 늘리고, 상담부터 업무처리까지 한 번에 가능한 One-stop 상담실을 확대해 고객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센터별 세미나 공간을 확충해 인적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패밀리오피스 서비스

NH투자증권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는 초고액자산가(UHNW)의 자산관리, 기업성장, 자산승계, 가치실현 등 각 단계에서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 예탁자산 100억 원 이상 초고액 자산가들의 고민과 변화에 주목해 기관투자자급 자산관리 서비스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기부 및 재단설립 및 운영, 이민 및 유학, 차세대 CEO를 위한 자녀교육, 소수로 진행하는 패밀리오피스 고객 세미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런칭한 패밀리오피스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에는 77가문이 증가해 총 141가문을 달성하였습니다.

## 디지털 기반 고객 경험 혁신

### 모바일 자산관리 플랫폼 나무증권

'나무증권'은 고객에게 쉽고 편한 주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시한 NH투자증권의 모바일 자산관리 플랫폼입니다. 나무증권은 양질의 투자 콘텐츠와 혜택을 제공하는 구독형 서비스 '나무 멤버스', 소비와 투자를 연결하는 '나무 PLCC[1)]', 소액 투자 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수점 거래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상과 투자의 경계를 허무는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PLCC(Private Label Credit Card)란 특정 브랜드와 카드사가 제휴하여 발행하는 신용카드로, 해당 브랜드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함

### 다이렉트인덱싱 서비스

NH투자증권의 다이렉트인덱싱은 다양한 시장 지수를 기반으로, 투자자가 자신의 목적과 성향에 맞는 지수를 직접 만들어 개인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사용자는 선택한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거나 종목 비중을 조절해 지수를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 지수에 테마·업종·스타일 등 다양한 투자 전략을 적용하거나 비중을 변경할 수 있으며, 코스피·코스닥 등 기초 지수뿐 아니라 NH투자증권이 자체 개발한 NH i-Select 지수도 선택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지수 성과 및 내역을 확인한 뒤 매매할 수 있고,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 리스크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나무 앱 커뮤니티 서비스

NH투자증권은 모바일 환경에서 고객중심의 신규 콘텐츠 및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출시하며, MTS가 단순 주식투자 수단을 넘어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시도합니다. 2024년에는 투자자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나무 앱 내에 자체 '커뮤니티' 서비스를 오픈하였습니다. NH투자증권은 새로운 시도를 통해 플랫폼 이용 고객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서비스를 제공해 갈 계획입니다.

## 포용적 금융 접근성 강화

### 시니어 계좌번호 자동인식 서비스

NH투자증권은 고령 고객의 금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용 환경에 맞춘 특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계좌번호 자동인식 서비스'는 고령 고객을 위한 전용 기능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 이용 시 고객번호를 인식해 상담원 연결 안내가 가장 먼저 제공됩니다. '보이는 ARS'와 '음성인식 ARS'는 안내 멘트를 끝까지 들은 뒤 터치나 음성으로 원하는 메뉴를 선택해야 상담이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이 서비스는 안내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아도 상담원 연결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어, 비대면 채널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고객의 편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장애인 고객 대상 맞춤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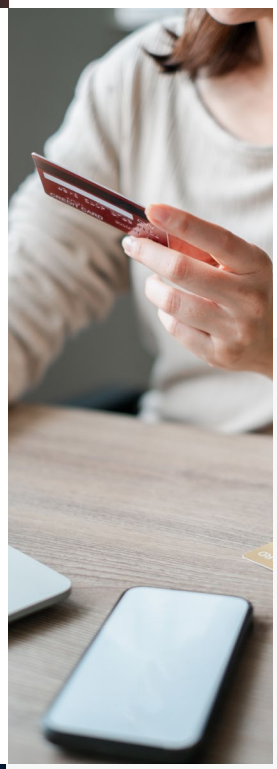
NH투자증권은 장애인 고객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보안카드를 제공하고, 자필기재가 어려운 고객의 경우 '장애인 업무 녹취 처리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등 음성 소통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는 메신저 프로그램 '페인트톡(PaintTalk)'과 전자문서 태블릿을 활용하여 텍스트 기반의 의사 확인과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상담 지원을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손말이음센터'와 연계하여 문자중계, 영상중계, 통신중계 서비스를 지원하며, 시각장애인의 민원 접수 시 점자 민원서식을 제공하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점자번역서비스를 통해 민원에 대한 회신을 진행합니다.

NH투자증권은 앞으로도 장애인 응대 인프라를 지속 보완하고, 장애인 우대 상품 및 서비스,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안내 자료 등 고객 접근성 강화를 위한 안내 체계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임직원 교육을 통해 장애 유형별 응대 방법과 실제 상황별 응대 사례를 숙지하여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



## 영향에 대한 분석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서비스 제공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금융 시스템 구축에 기여합니다.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정보 비대칭성이 커질수록 소비자는 더욱 취약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업의 소비자 보호 조치는 금융시장의 건전성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NH투자증권은 철저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임직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여 금융시장에서의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와 투자자의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은 내부통제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등 관련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상품 판매 전 과정에서 철저한 소비자 보호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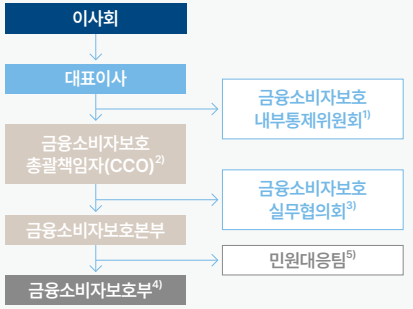
특히 상품심의 절차와 상품선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위험성을 사전에 점검하며, 이상금융거래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금융 상품 완전 판매 교육과 고객의 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거버넌스

###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NH투자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본부를 대표이사 직속으로 두고, 금융소비자보호 책임자(CCO)가 소비자중심경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본부는 내부통제 활동과 더불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의견 수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캠페인 운영, 소비자보호 상품판매 체계 구축, VOC(Voice of Customer) 시스템 관리, 민원 예방 및 처리 등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NH투자증권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 조직




1) CEO를 의장으로 하며,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결정, 기본계획 수립,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업무를 협의하는 회의기구
2)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CCO, Chief Consumer Officer)
3)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를 의장으로 하며, 금융소비자보호 현안에 대해 부서 간 실무를 협의하는 회의기구
4) CCO 직속의 독립된 업무 전담조직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활동 수행
· 신상품 개발 시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의 사전검토 수행
· 금융상품 완전판매를 위한 제반 활동 이행
5) CCO 직속의 독립된 업무 전담조직
· 민원의 예방처리 및 관리 업무 이행
· VOC 접수 및 처리

# 금융소비자 보호

## 거버넌스

### 금융소비자보호 강령

NH투자증권은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투자회사를 구현하고자 금융소비자보호 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매년 금융소비자보호의 날을 지정하여 실천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전사적인 다짐과 실천을 이어가고 있으며,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의 다양한 권리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여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NH투자증권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판매 전 과정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NH투자증권은 상품 개발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판매 배상서비스'는 불완전판매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로, 개인 고객이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배상심사를 거쳐 배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상품 가입 후 5영업일 이내에 환매 또는 해지를 요청하는 고객에게 해지대금과 함께 판매 수수료를 돌려주는 'FEE REFUND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판매 배상서비스 및 FEE REFUND 서비스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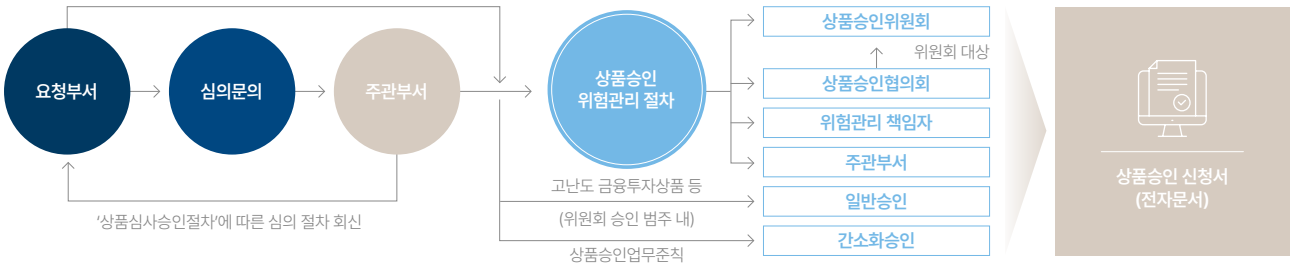

## 전략

### 소비자 보호 중심의 상품 관리 체계

**상품심의 프로세스**

NH투자증권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부서는 상품 심의에 앞서 '신상품사전 점검준칙'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내부·외부 규정 준수와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사전에 관리합니다. 이후 면밀한 상품심의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 판매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운용 방식과 투자자산 유형에 따라 상품승인위원회 승인, 상품승인협의회 승인, CRO 합의, 주관부서 합의, 일반 승인, 간소화 승인 등으로 세분화된 상품심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품심의 절차**




**상품승인위원회**

NH투자증권은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계약 등)을 판매하기 전에, 해당 상품의 위험 요소와 판매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분석·점검하여 판매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품승인위원회와 협의회를 통한 다단계 심의 절차를 거쳐 상품 승인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4년 상품승인위원회와 협의회에서 검토 및 승인된 안건은 각각 20건, 10건이었습니다.

**소개제한 상품 점검**

NH투자증권은 금융지주 계열사인 NH농협은행에서 소개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위험도가 높거나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점검하고 필요 시 제한하기 위해 '소개상품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사전상품선정 절차를 통해 소개제한상품을 선정하여 고객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고 있으며, 은행·증권 소비자보호 담당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목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비토권(Veto)'을 행사해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개상품선정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2024년 12월 기준 14개 상품이 소개제한상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앞으로도 본 위원회를 통해 적절한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위험 관리를 강화하여, 투자에 대한 고객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

## 리스크 관리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준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금융회사가 공정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제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NH투자증권은 이에 부응하여 강화된 6대 판매규제원칙을 준수하고, 청약철회권 및 위법계약해지 요구권, 자료열람 요구권 등의 신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또한 법률 준수를 위해 매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및 완전판매절차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본부 내에서는 내부통제 점검반을 운영하여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보다 건전하고 안정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금융사기 예방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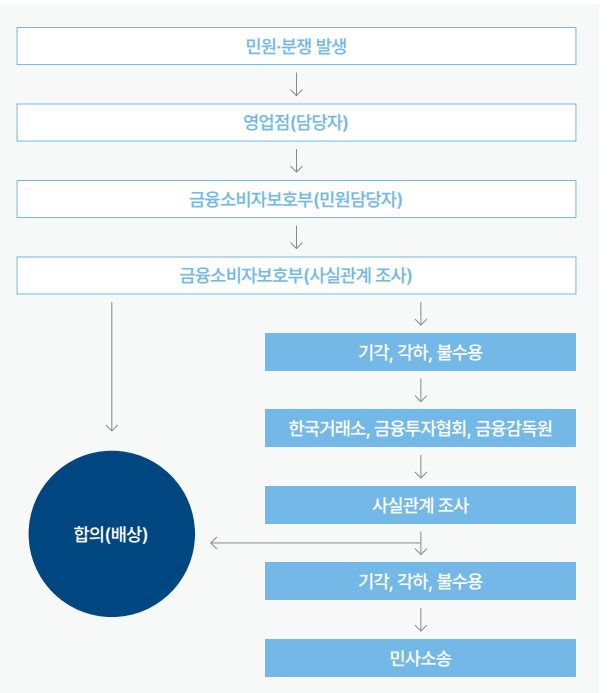
NH투자증권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의심계좌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의심계좌 탐지 기능을 고도화하여 이상 거래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고객 단말기에 보이스피싱 악성 앱이 설치될 경우 경고를 띄우는 탐지 솔루션을 운영하여 고객 자산 보호에 활용하고 있으며, 고객지원센터와 영업점 직원에게는 금융사기 의심 상황에서의 응대 절차와 보이스피싱 징후 파악 방법을 중심으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약 5.7억 원 규모의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 차단하는 사례로 이어졌습니다. 고객의 비정상 거래가 탐지되어 자동으로 이체가 차단된 후, 정보보호부 금융사기대응팀 소속 직원이 고객과의 전화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 정황을 설명하고 경찰 출동까지 연결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해당 직원은 경기광주경찰서로부터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받았습니다. NH투자증권은 앞으로도 시스템 고도화와 현장 대응 강화를 병행하여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소비자 피해보상기구와 절차

NH투자증권은 소비자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와 MTS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민원 및 VOC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민원 접수 및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민원이 접수되면 접수 사실을 통지한 뒤 조사·검토·판단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민원 분쟁 처리 절차**




### 주가조작 위험경보시스템 가동

NH투자증권은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주가조작 관련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가조작으로 인해 반대매매[1]가 발생했던 종목들의 공통 요인을 도출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을 보유한 고객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주가조작 위험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험 판단 기준은 ▲계좌 개설 후 1개월 내 신용거래 발생 고객 ▲52주 최고가 대비 현재가 80% 이상 종목 ▲공매도가 불가능한 코스피 200 종목 제외 ▲자본금 300억 미만 종목 ▲평균 거래대금 150억 미만 종목 등이며, 이들 조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보 대상을 선별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해당 시스템을 통해 총 12,070건의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으며, 고객이 보유 종목의 투자 리스크를 사전에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NH투자증권은 앞으로도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리스크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여, 잠재적 피해 예방과 책임 있는 투자 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1) 고객이 만기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질 때,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매매

### 중장년층 대상 은퇴·연금 교육 콘텐츠 운영

NH투자증권은 다양한 투자교육 콘텐츠를 통해 고객의 자산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시대연구소를 통해 중장년층에게 노후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안정적인 은퇴설계를 지원합니다. 2024년에는 'THE100리포트'(총 8회)와 'THE100매거진'(총 6회), '슬기로운 은퇴생활', '직장인 퇴직연금 보고서' 등을 발간했으며, NH투자증권 유튜브 채널의 '연금백세 2024', '연금의 여왕' 시리즈를 통해 연금자산 관리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앞으로도 NH투자증권은 은퇴 이후의 삶을 보다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연령대에 특화된 콘텐츠와 정보 전달 방식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

## 리스크 관리

### 임직원 대상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NH투자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과 방문판매 모범규준 등 제도 시행에 따라 완전판매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해, 표준화·직군·심화·인식전환 등 임직원 레벨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해 금융소비자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임직원의 수요를 파악한 뒤 이에 맞춰 효과적인 교육계획을 수립·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금융소비자보호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98.7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24년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실시 현황**

단위: 건

| 구분 | 내용 | 횟수 |
|---|---|---|
| 표준화 교육 | 금융소비자보호 온라인 교육 | 19 |
| | 미스터리쇼핑 대비 완전판매 절차 교육 | 4 |
|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위규 사례 등을 통한 불완전판매 예방교육 | 45 |
| | 방문·유선 완전판매절차 교육 등 | 44 |
| 직군 교육 | 금융소비자보호의 이해 | 1 |
| | 상반기 금융소비자보호리더의 역할 및 민원예방 교육 | 6 |
| | 하반기 금융소비자보호리더의 역할 및 민원예방 교육 | 2 |
| | 금융소비자보호의 이해 및 완전판매 절차 | 5 |
| 심화 교육 | 금융소비자보호법·고난도금융투자상품·방문판매절차 등 | 3 |
| | 내부통제 점검에 따른 판매 시 유의사항 등 | 48 |
| |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CS 교육 | 10 |
| | CS 심화 교육 '불만고객 응대 및 내 마음의 쉼표' | 7 |
| 인식 교육 | 금융소비자보호 인식전환 및 민원예방 | 22 |

### 금융상품 완전판매 교육

NH투자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판매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완전판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총 193회의 완전판매 교육을 진행했으며, 자율적인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교육 동영상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방문판매 절차 준수를 위해 유선판매 모범사례 스크립트도 마련했습니다.

완전판매 절차 내재화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블라인드 방식의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한 결과, 평균 94.8점으로 대부분의 임직원이 절차를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준 점수 이하인 임직원을 대상으로는 재교육과 재평가를 진행하여 완전판매 역량을 내재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표 및 목표

NH투자증권은 금융사기 예방 활동을 지속하며, 매년 금융사기 피해 예방 건수와 예방 금액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피해예방 금액은 2023년 약 21억 원에서 2024년 약 35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2024년 금융사기 예방 건수 및 금액**



25 건

피해예방 건수



약 35 억 원

피해예방 금액



# 정보보호




## 영향에 대한 분석

NH투자증권은 증권산업의 특성상 고객의 민감한 금융 정보를 다루므로, 정보보호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과 고객 신뢰 확보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만약 취약한 보안 시스템이나 미흡한 정보 관리로 피싱이나 스미싱 등의 범죄가 발생하면 고객의 2차 피해와 사회적 안전망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신뢰도 하락과 고객 이탈을 야기하며, 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금융사는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고도화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NH투자증권은 정보보호본부장을 지정하고, 'Privacy by Design' 원칙에 기반한 자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국내외 정보보안 관련 인증을 취득·갱신하여 표준화된 보안체계를 마련하고, 취약점 점검·모의훈련·정보보안 인식 제고 교육 등을 통해 정보보호를 체계적으로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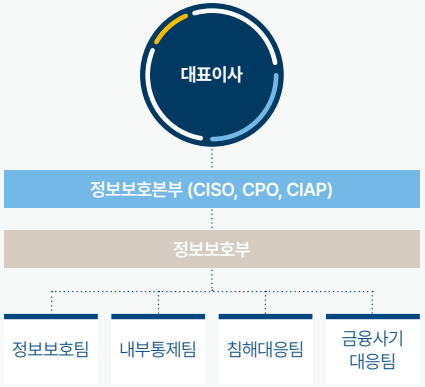
아울러 개인정보 처리 원칙을 준수하고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 점검을 실시하며, 만일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출 대응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 거버넌스

### 정보보호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NH투자증권은 최고 경영진의 의지를 반영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사규를 제정했습니다. 또한 정보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이사 직속으로 정보보호본부를 두고,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신용정보관리보호인(CIAP)을 정보보호본부장 체제로 일원화하여 전사 차원의 정보보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관리 지배구조**




**정보보호위원회 및 협의체**

| 구분 | 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신용정보 보호협의체 |
|---|---|---|
| 위원장 | 최고정보보호책임자 (CISO)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CPO) |
| 위원 | IT/정보보호/준법/ 플랫폼 유관부서 부서장 | 주요 고객 개인정보 처리 부서 및 준법 부서장 |
| 역할 | 사내 정보보호 관련 중요 사안을 심의 및 의결 | 대고객 서비스상 처리되는 개인정보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한 공유 및 협의 |
| 주기 | 수시 | 분기 1회 |

# 정보보호

## 전략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NH투자증권은 '신뢰할 수 있는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Privacy by Design'에 기초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전략별 수행 활동은 임직원, 협력사를 포함하여 전방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운영 전략**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지속적 임직원·외주 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변화 관리 | 리스크 기반 개인 정보 및 정보보호 점검 실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구축 및 관련 인증 취득 | 빅테이터 기반의 정보보호 및 전자금융사기 통합 관제시스템 | 개인정보 유출 Zero 및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한 보안 솔루션 |
|---|---|---|---|---|
| • 전사 정보보호 교육<br>• 외주 위탁사 교육<br>• 정보보호 수시 공지<br>• 전사 정보보호 캠페인 | • 외주 임직원 수탁사 점검<br>• 정보보호의 날 자체점검<br>• 취약점 모의 해킹<br>• 기반시설 점검 | • 개인정보<br>• 기술보안<br>• 물리보안<br>• 관리보안 | •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를 위한 통합 정보보호 포털 | • 정보기술 보호 솔루션<br>•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br>• 금융사기 예방 및 대응 솔루션 |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보호**

| | | | |
|---|---|---|---|
| 정보보호 전략 및 계획 수립 | 정보보호 목표 및 연간 사업계획 수립 | 정보보호위원회 운영 | |
| 정보보호 정책 및 관리체계 수립 | 법규 준수성 검토 | 위험 평가 | |
| | 정보보호 정책 및 보호대책 수립, 이행 | | |
| | 정보보호 규정 및 준칙 제·개정 | | |
| 정보보호 내부통제 관리 | 인적 통제: 임직원 및 협력사 점검 | 시스템 통제: 보안성 심의 및 검토, 취약점 점검 및 분석 | |

**고객여정 전 과정에 함께하는 개인(신용)정보 보호**

| | | |
|---|---|---|
| 개인(신용)정보보호 전략 및 계획 수립 | | |
| 개인(신용)정보보호 목표 및 연간 사업계획 수립 | | |
| 개인정보보호협의회 | 정보보호 상시평가 | |
| 개인(신용) 정보보호 정책 및 관리체계 수립 | 법규 준수성 검토 | 개인정보보호협의회 이슈 |
| | 개인(신용)정보보호 정책 및 보호대책 수립 및 이행 | |
| | 개인(신용)정보보호 규정 및 준칙 제·개정 | |
| 개인(신용) 정보보호 내부통제 관리 | 사내 통제<br>• 개인정보 과다 조회<br>• 반출 출력 모니터링<br>• 개인정보 관리대장<br>• 신용정보 조회내역 점검 | 사외 통제<br>• 개인정보 위탁 제공 계약관리<br>• 개인정보 수탁업체 교육 및 점검<br>• 개인정보 파기 확인 |

교육 및 홍보 | 감독기관 감사 및 점검 대응 |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정보보호 관제 모니터링

# 정보보호

## 리스크 관리

### 정보보호 인증 취득

NH투자증권은 2015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을 취득한 이후 매년 객관적 검증을 통해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증권업계 최초로 글로벌 개인정보보호인증(APEC CBPR)을 취득하여,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전 영역에 걸친 통합 보안체계를 완성했습니다. 또한 2021년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ISMS-P) 인증, 2022년에 ISO 27001 인증, 2023년에 ISO 27701 인증을 각각 취득했습니다.


▲ APEC CBPR 인증서


▲ ISMS-P 인증서



▲ ISO/IEC 27001, 27701 인증서

###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NH투자증권은 HTS[1], MTS[2], WTS[3] 등 주요 서비스와 홈페이지, 업무 시스템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모의해킹을 실시하고, 외부 기관과 협업하여 취약점을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리스크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1회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을 평가하고, 연 2회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을 진행합니다.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점검을 통해 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서비스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1) HTS란 Home Trading System의 약자로 집이나 사무실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시스템
2) MTS란 Mobile Trading System의 약자로 모바일로 주식을 거래하는 시스템
3) WTS란 Web Trading System의 약자로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주식을 거래하는 시스템

### 침해사고 대응 훈련

NH투자증권은 해킹·DDoS 등 외부 공격을 사전에 예방하고 탐지·분석·대응하기 위해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연 1회 공개용 서버 해킹 대응 훈련, 연 1회 DDoS 공격 대응 훈련, 연 4회 이메일 침해 대응 훈련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365일 24시간 보안관제를 통해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 유형

**공개용 서버 해킹 대응 훈련**
공개용 서버 대상 취약점
공격 수행 및 공격을
사전에 탐지/차단하는 대응 절차 훈련

**DDoS 대응 훈련**
공개용 웹서버 대상 대량의
트래픽으로 리소스가
부족한 상황에 대한 탐지/대응 훈련

**이메일 침해 대응 훈련**
전사 임직원, 신규 입사자, 블라인드 등을 대상으로
사회공학적 악성 메일을 발송하고
이에 대한 탐지/대응 훈련

#### 침해사고 대응 프로세스

01 침해/위협 징후 발견
02 상황파악 및 조사
03 조치방안 및 보안대책 수립
04 대응반 가동 및 대책 논의
05 사후조치 및 대책 적용
06 조치 및 보완

# 정보보호

## 리스크 관리

### 개인정보 처리 원칙

NH투자증권은 고객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원칙에 따라 최초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시점부터 지정된 기간까지만 보유하며, 목적이 달성되면 복구·재생이 불가능한 형태로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정보를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한 형태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점검 체계

NH투자증권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과, 위탁받아 처리하는 제3자 수탁사를 대상으로 정기 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영업점도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되며, 계좌정보·잔고·매매 현황 등 고객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조회하는 직원을 매월 확인해 내부자 유출 및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또한 수탁기관에는 연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고객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 대응 프로세스

NH투자증권은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법령에 따라 고객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반기에 실시하는 개인정보 유출 대응 모의훈련을 통해 만일의 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시 조치 프로세스**

01 **사고 인지**
유출여부, 시점, 원인 신속 확인

02 **대응팀 구성**
유출피해 최소화 및 조치방안 강구

03 **고객 통지 및 정부기관 신고**
고객에게 신속 통지 및 금융당국 보고

04 **피해신고센터 운영**
피해신고센터 가동 및 고객 대응 요령 전파

05 **고객민원 대응**
영업시간 연장, 인력투입, 통신·인터넷 회선 확충

06 **피해구제 절차**
정보유출로 부정사용 발견 시 신속한 피해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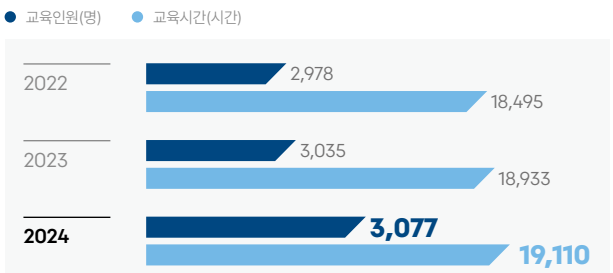
07 **사후조치**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이력 관리 및 원인 분석 실시

## 지표 및 목표

### 정보보호 교육

NH투자증권은 법령상의 요구사항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임직원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금융권 전문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직무별 맞춤형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사 담당자와 관리부서 담당자를 위한 별도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협력사로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정보보호 인식을 전반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기적으로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사례 중심 교육을 진행하며, 정보보호 월간 매거진과 사내 공지 등을 통해 임직원의 보안 의식을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기마다 사무공간을 불시에 점검하는 '클린데스크 활동'을 실시하여, 정보보호가 사내 문화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현황**




**2024년 전담인력 전문교육 및 협력사 교육 실적** 단위: 명, 시간

| 구분 | 전담인력 전문교육 | 협력사 교육 |
|---|---|---|
| 참여인원 | 12 | 80 |
| 교육시간 | 472 | 179 |
| 과정명 | • 금융권 개인신용정보 보호<br>• 클라우드 보안 실무<br>• 디지털금융과 전자금융거래법 규제 체계 등 | • 금융권 수탁업무 관련 개인(신용) 정보 보호 실무 |

# 인재경영

## 인권경영 체계

### 인권경영 정책

NH투자증권은 임직원, 고객, 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인권경영 정책」을 홈페이지와 지속가능통합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준수하며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경영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노동 관련 리스크를 식별·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 사항을 모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권 침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인권교육

NH투자증권은 임직원의 인권 보호와 인식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장애인 인식 개선·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필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총 3,054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8,790시간의 인권 관련 법정 필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인권 존중 및 보호의 중요성을 조직문화에 내재화하여, 모든 임직원이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노사협력

NH투자증권은 합리적이고 원활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상시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뿐 아니라, 분기별로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직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협의·의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협의회 등 공식 협의체 외에도 인사제도 운영·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대화채널을 상시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노동조합 대상자 1,816명 전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노사 간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임직원 고충처리 제도 운영

NH투자증권은 임직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인사고충 면담신청' 제도와 '소통과 공감'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은 사내 인사관리 시스템을 통해 동료 관계, 업무, 부서 이동, 조직 문화 등 회사 생활 전반은 물론, 건강·가족·재무 상태 등 개인적인 고민에 대해서도 면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CEO 직통 소통채널로 운영되는 사내 홈페이지 '소통과 공감' 게시판에 고충이나 업무 관련 의견을 자유롭게 게시하여 다양한 주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고충처리 제도 운영 현황** 단위: 건

| 구분 | 2022 | 2023 | 2024 |
|---|---|---|---|
| 인사관리시스템 내 인사고충면담 | 15 | 24 | 22 |

## 공정한 채용 및 평가

### 공정한 채용

NH투자증권은 지역·학력·성별 등에 구애받지 않고 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직무 능력과 무관한 개인 특성이 채용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인성검사·필기시험·면접 전형을 통해 직무 역량을 검증하고, 외부 심사위원을 참여시켜 채용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 다각도의 성과평가 제도 운영

NH투자증권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의미형 평가 등급, KPI 기반 성과관리, 하이브리드 성과평가 등 다양한 방식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피드백 제도를 함께 운영해 불공정한 평가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평가소원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심의합니다. 한편, 회사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THE STARS 100', 'ORIGIN'으로 선정하는 등 임직원의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노력을 격려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 우수인재 확보 노력

NH투자증권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고용을 안정화하기 위해, 직무 전문가를 수시로 채용하고 다양한 신입사원 전형을 통해 잠재력 있는 인재를 영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임직원에게 휴가·학자금·의료비·경조사 지원 등 복리후생을 공정하게 제공함으로써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근속 및 고용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인재경영

## 다양성과 포용성 실현

### 차별금지 정책

NH투자증권은 2022년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선포한 이후, 모든 임직원이 진정한 소속감을 느끼고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받을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평등한 고용과 인권 존중'이라는 인사 방침에 따라 성별·인종·민족·국적·종교·장애·정치적·종교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며, 채용·승진·교육·임금·복리후생 등에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NH투자증권은 이 가치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각자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임직원이 최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적의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구성원 다양성 강화

NH투자증권은 임직원 다양성을 기업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성별·국적·출신지역·장애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역량과 성과를 기준으로 다양한 인재를 채용·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한 성과평가와 출산·육아 제도 개선을 통해 여성 인재가 조직 내에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기준 NH투자증권 전체 임직원 중 여성 비율은 43.1%, 전체 관리자[1] 중 여성 비율은 33.9%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여성 임직원 현황** 단위: %

| 구분 | 2022 | 2023 | 2024 |
|---|---|---|---|
| 임직원 중 여성 비율 | 41.9 | 42.3 | 43.1 |
| 전체 관리자 중 여성 비율 | 28.2 | 30.8 | 33.9 |

1) 과장급 이상, 임원 포함

### 지분투자를 통한 발달장애인 고용 확대

NH투자증권은 장애인 고용 책임을 다하기 위해 '브라보비버(Bravo Beaver)'에 출자하고 있습니다. 브라보비버는 발달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여러 기업이 공동 출자한 사회적 기업으로, NH투자증권은 2024년 말 기준 인천 10.9%, 경기 9.1%, 부산 1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총 38명의 장애인 고용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한 해 동안 브라보비버 사업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약 4억 6,800만 원 규모의 생산품(문구 세트, 견과류, 건강차 등)을 구매했으며, 이 물품들은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정신재활시설협회, 초록우산, 굿피플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전달되었습니다. 이 같은 후원과 지지 활동을 인정받아 NH투자증권은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주관 '2024년 Autism Friendly 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을 위한 지분투자를 지속하고, 더 많은 장애인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물품 '굿피플' 전달식

## 임직원 역량 강화

### 전문가 양성교육 실시

NH투자증권은 임직원의 업무 역량을 높이고 사업 부문별 직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사 직원의 직무역량 강화 과정과 Retail 사업부문의 맞춤형 과정, 임직원 공통 역량 향상 과정 등을 통해 직무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인적 자원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전문가 양성 교육 실시 현황**

| | |
|---|---|
| 01 공통 직무 과정 | • 외부위탁자산운용인력(OCIO) 과정<br>• 2024년 금융시장 및 기업가치 평가과정<br>• 농협 정체성 On-Air 온라인 교육과정 |
| 02 Digital 직무 과정 | • ChatGPT를 활용한 AI비즈니스솔루션 과정<br>•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DDDM) 과정<br>• DX College Basic/Pro 과정<br>• 기획자 및 개발자를 위한 Figma 교육과정 |
| 03 Retail사업 부문 맞춤형 과정 | • 글로벌 자산 이동과 세무 전략 과정<br>• Advisor 경쟁력 강화 과정<br>• 실전 투자스쿨 과정<br>• Tax컨설팅 Intensive 과정<br>• Soft Skill 향상과정(Speech, 금융전문가 이미지 및 행동 코칭, 프레젠테이션 Skill 등) |
| 04 신입사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과정 | • 신입사원 입문과정(대졸공채)<br>• 신입사원 리텐션 과정(follow up)<br>• 신입업무직원 Wrap-Up 과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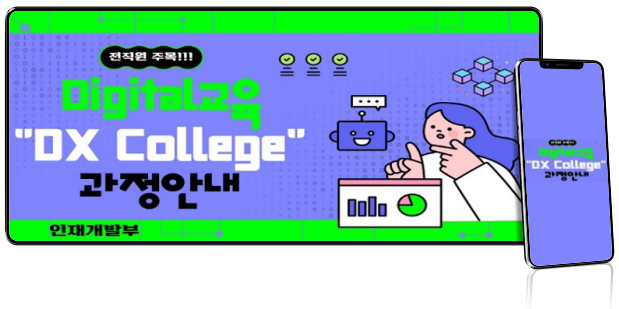
# 인재경영

## 임직원 역량 강화

### 디지털 융합 인재 양성

NH투자증권은 임직원의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폭넓은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융합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신입사원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과정부터 전 임직원을 위한 피그마·파이썬·태블로 등 실무형 교육까지 다양한 사내·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범농협 산학연계 과정을 통해 데이터사이언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핵심 융합인재 육성의 일환으로 카이스트·연세대학교 등에서 디지털·IT·데이터 관련 석사학위 취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 NH Book Concert

NH투자증권은 임직원에게 최신 트렌드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도서 저자가 직접 강연하는 'NH Book Concert'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마음 지구력, 공감능력, 적응력을 통한 셀프 회복의 기술', 'AI시대 생존전략, AI 사피엔스로 살아가는 법', '트렌드코리아 2025' 등을 주제로 진행했으며, 작가의 강연과 도서를 통해 강연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 임직원 대상 지속가능경영 교육

NH투자증권은 임직원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이해도와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해 직책과 역할에 따라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더 직급 대상으로는 환경재단과 매일경제가 공동 주관한 'ESG 리더십 과정' 참여를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ESG본부장과 Client솔루션본부장이 해당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전 구성원에게는 스마트연수원을 통해 지속가능경영 및 기후변화 관련 마이크로러닝 과정을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총 1,807명의 임직원이 761시간의 지속가능경영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2024년 임직원 지속가능경영 교육 과정**

| 교육대상 | 과정명 |
|---|---|
| 임원 | ESG 리더십 과정 |
| 전 임직원 | [How to ESG]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필연적인 여정 |
| | [금융아카데미] ESG 금융 시작부터 실무까지 |
| | [북러닝] ESG 브랜딩 워크북 |
| | ESG 경영실현을 위한 감정노동자 보호실무 |
| | [H Pick+셀] ESG 액션플랜 |
| | ESG 혁명 대비전략-전사원을 교육하라! |
| | ESG, 미래를 이끄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전략 |
| |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 ESG적 삶이란? |
| | 탄소중립, ESG 시대를 준비하라 |
| | [북러닝] 탄소 전쟁 |
| | ESG 및 기후변화 관련 마이크로러닝 과정 63개 |

## 안전보건 체계

### 안전보건 정책

NH투자증권은 모든 임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정책을 선포했습니다. 국내 법규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임직원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강검진과 심리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해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NH투자증권은 업무 현장에서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ISO 45001 인증

NH투자증권은 2024년 7월 국제표준인 ISO 45001 사후심사를 완료해 인증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측·예방하고, 조직의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공인받은 것입니다. 또한 국내 법규와 국제 기준에 맞춰 소방훈련 등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을 전개하여 업무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4년에는 산업재해·안전사고가 2건 발생함에 따라, 재해·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안전관리 활동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인재경영

## 안전보건 체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NH투자증권은 최적의 근무환경 조성 및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매 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 위원 6명과 사용자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앞으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근로 환경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4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현황**

| 개최일 | 주요 의결 사항 |
|---|---|
| 2024.03.14 | 2023년 건강검진, 단체상해보험 등 실적 공유 및 2024년 건강검진 계획 논의 |
| 2024.06.26 | 회사 냉난방 관련 직원 건강문제 및 본사 구조물에 의한 안전사고 관련 논의 |
| 2024.09.26 | 본사 근무환경 개선 및 2024년도 건강검진 현황 관련 논의 |
| 2024.11.12 | 2025년 안전보건 계획안 등 논의 |

### 임직원 심리건강 지원

NH투자증권은 임직원의 마음건강을 돌보기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를 통해 임직원은 가정·개인·업무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고민을 심리상담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EAP는 임직원뿐 아니라 임직원의 배우자와 자녀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용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예약·셀프 진단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면상담·전화상담 등 여러 방식을 마련해 부담 없이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있고, 매주 금요일에는 다양한 주제를 담은 EAP 레터를 발송해 임직원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마음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심리건강 프로그램**

| 구분 | 지원내용 |
|---|---|
| 가정영역 | 가족에 대한 이해, 자녀 심리발달 평가, 자녀 행동 및 정서 문제, 가족 내 관계 갈등 |
| 개인영역 | 감정·정서 문제, 개인의 이해 및 성장, 사회적 관계 내 어려움 |
| 업무영역 | 직무와 연관된 개인 심리 문제, 조직문화 및 체계, 직장 내 대인 관계 |

## 복리후생

### 출산, 양육, 모성보호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

NH투자증권은 출산·양육·모성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복지제도를 마련하여 가족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총 24개월까지 부여하며, 휴직 기간 전체에 걸쳐 일정 급여를 제공합니다. 또한 출산 후 초기 안정을 위해 120일간 유급 휴가를 지원하고,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1일 2시간 단축 근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자는 2023년 월평균 6.4명에서 2024년 8.0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출금 이자 지원

NH투자증권은 임직원의 배당수익 확보와 자산 형성, 그리고 회사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우리사주갖기운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사주를 매입하는 임직원에게는 예탁수수료·인지세·매입수수료와 취득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가 변동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득 대출금의 담보평가액이 7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부족액에 대해 추가 담보를 제공합니다. NH투자증권은 우리사주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임직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주주 이익 제고를 함께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은퇴설계를 위한 지원제도 운영

NH투자증권은 자발적인 은퇴 준비와 퇴직 후 삶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 예정 직원에게는 퇴직 전 6개월간 유급 '인생설계 휴직'을 부여하여, 인생 2막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명예퇴직 예정자 및 임금피크제 근무자를 대상으로 '생애설계 오프보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퇴직 자금 재무관리(IRP, 부동산, 세제 등), 퇴직 제도 및 정부지원제도 안내, 진로 설계(자격증, 구직 정보), 심리·신체 건강 관리와 여가 활용 등 실질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 동반성장

## 협력사 관리 체계

NH투자증권은 협력사를 함께하는 동반자로 인식하고,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투명하고 청렴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통해 청렴 의무에 기반을 둔 상호협력 책임 이행을 서약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이 만료되면 실무 담당자의 법규 및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설문조사를 시행해 업무 과정에서의 부패 발생을 예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윤리, 노동 및 인권, 다양성·형평성 및 포용성, 안전보건, 환경보호 등 각 영역의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협력사와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스타트업 협업 및 생태계 조성

###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 스타트업 협업

NH투자증권은 고객 및 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우수한 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과 협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총 57개 기업을 발굴해 주요 서비스·비즈니스 모델·제휴 이니셔티브 등을 논의하며, 신사업 개발에 필요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모색했습니다. 이 중 협업 시너지가 기대되는 기업과는 당사의 역량을 결합해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혁신적 사업 모델을 공동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별 핀테크 동향 자료를 발간해 내부 부서들이 협업이나 투자를 검토할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며, NH농협은행의 핀테크 육성 프로그램인 'NH디지털챌린지+'와도 긴밀히 협력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다각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 콴텍 투자

NH투자증권은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투자 플랫폼 콴텍에 약 9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기존에 퇴직연금·연금저축 등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위해 협업해 왔으며, 콴텍이 폭넓은 투자전략과 독자적 위험관리 시스템을 갖춰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2024년 4월에는 연금저축 서비스 출시로 콴텍의 로보어드바이저 AI 기술 역량을 금융 플랫폼에 탑재해 퇴직연금 및 비대면 하이브리드 자산관리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NH 디지털 얼라이언스 펀드 운용

'NH 디지털 얼라이언스 펀드'는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펀드로, NH투자증권과 NH벤처투자가 공동 운용하고 NH농협은행과 NH농협캐피탈이 출자자로 참여합니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형태로 결성된 이 펀드는 혁신기술 스타트업·예비 유니콘·플랫폼 사업자 등 디지털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AI 기반 금융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셈버앤컴퍼니', 데이터 기반 마케팅 솔루션 기업 '어센트코리아',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 기업 '닥터다이어리', 핀테크 스타트업 '지엔터프라이즈' 등 총 4개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핀테크·빅데이터·딥테크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AI 산학협력센터 설립

2024년 12월, NH투자증권은 데이터·AI 분야 연구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 AI 기술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포항공과대학교 인공지능대학원, 카이스트 김재철AI대학원과 'NH투자증권 AI 산학협력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융권 최초의 AI 산학협력센터 설립 협약으로, 센터는 금융 AI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실무와 학계의 노하우를 결합한 금융 AI 기술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AI 산학협력센터 설립 협약

# 동반성장

## 상생 금융·경영 지원

### 상생채권신탁시스템 운영

현행 건설산업 관계 법령 및 제도상의 한계로 인해 공사대금채권에 일정한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하위 공사 참여자의 체불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상생채권신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생채권신탁시스템은 하수급인이 보유한 하도급대금을 신탁사에 신탁하고, 공사대금을 신탁 계좌로 입금·관리하여 각종 대금을 체불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하위 공사 구성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 지연 등 건설현장의 리스크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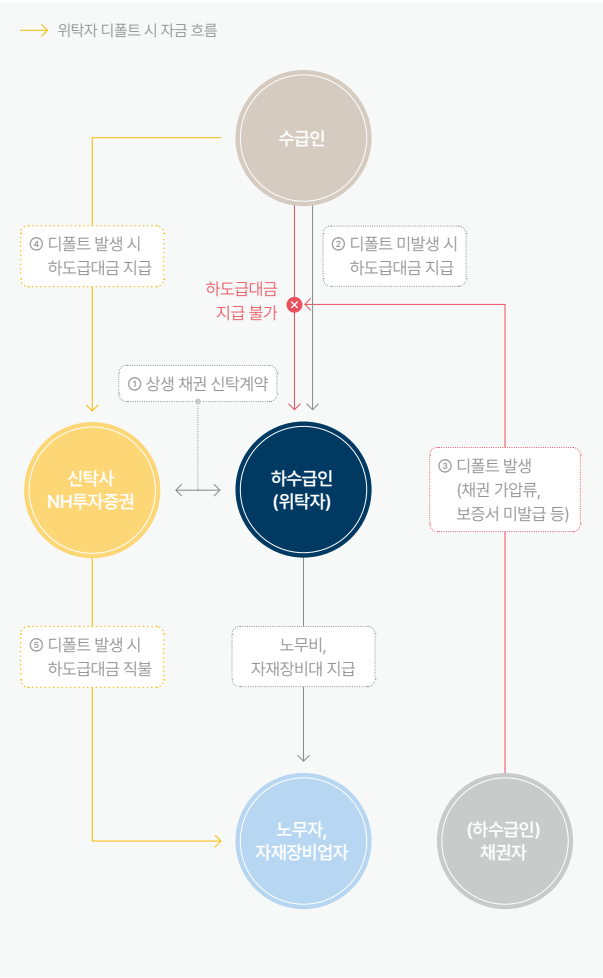
NH투자증권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약 5,000여 건의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539개 공사현장과 2,571개 하도급사에 상생채권신탁을 도입했습니다. 2024년 9월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웍스메이트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약 1만여 조합원사에 상생채권신탁 도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운영 성과와 사회적 기여를 인정받아, NH투자증권은 2024 대한경제 건설대상 '건설금융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열위한 공사 구성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금 체불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주거 불안 요소를 줄이기 위해 상생채권신탁 운영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생채권신탁 도입 현황 (누적)**

539 개
공사현장

2,571 개
하도급사

**상생채권신탁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 기업 재무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NH투자증권은 2024년 9월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와 기업금융서비스 컨설팅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자금조달과 기업공개(IPO) 등 기업금융이 필요한 협회 회원사에게 재무 관련 컨설팅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협회 회원사의 전반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무구조 개선 컨설팅으로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해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 중소기업발전협회 기업금융서비스 업무협약

# 사회책임경영

## 사회공헌 추진 체계

### 사회공헌 이념 및 정책

NH투자증권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고객 성공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눔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밝은 세상, 우리가 함께'라는 사회공헌 슬로건에는 고객이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고, 고객의 친근한 이웃이자 동반자로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농협금융그룹의 나눔경영 정신을 계승해 경제적 이익 창출뿐 아니라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소외된 이웃에게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사회공헌 활동 방향

**회사**

증권업의 역할과 특성을 반영한
사회공헌 재원 조성 및 후원사업 운영

**고객**

사회적 가치 실현에 고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부 기회 마련과 참여 기반 확대

**임직원**

자발성과 지속성을 바탕으로 한
봉사활동 참여 및 기부문화 확산 지원

### 사회공헌단 운영 및 성과

NH투자증권은 범농협의 일원으로서 상생·협동의 가치를 중시하며, 국가 주요 기간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행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ESG본부 직속으로 사회공헌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37개의 사내봉사단이 활동 중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6,426명의 임직원이 총 2만 8,672시간에 달하는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했고, 임직원의 자발적 기부금과 회사 지원금을 매칭해 사회적 소외계층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사회공헌활동을 공개하고 개인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 사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NH투자증권은 체계적인 사회공헌 계획을 기반으로 관련 활동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2024년 기준

**6,426 명 참여**
사회공헌활동 임직원 참여 수

**2 만 8,672 시간**
사회공헌활동 임직원 참여 시간

## 미래세대 성장 지원

### 천사펀드

2015년 시작된 '천사펀드'는 NGO와 함께 사회적 취약계층과 어린이를 지원하는 NH투자증권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임직원은 매달 급여의 일정액을 기부해 후원기금을 조성하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중 원하는 항목에 직접 기부할 수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임직원 기부금과 회사 기부금 매칭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밀알복지재단, 한국소아암 재단 등 연간 1억 4,640만 원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 희망나무 장학생 지원

NH투자증권은 2005년부터 '희망나무 장학생'을 선발해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의 학업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소득층 가정의 우수 고등학생 40명을 선발해 1인당 연간 300만 원의 장학금과 아이패드를 제공하며, 학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총 760명의 장학생을 배출했으며, 이들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200만 원의 입학 격려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NH투자증권은 농촌 소멸 문제에 주목해 2025년부터는 농촌 지역의 다문화 가정·조손 가정·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 2024년 기준

**누적 760 명**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생 배출 현황

**1 억 4,640 만 원**
천사펀드 후원금액

# 사회책임경영

## 미래세대 성장 지원

###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실시

NH투자증권은 학생들이 금융상품 투자의 기초 원리를 익히고,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소년 금융교육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교육 강사는 임직원의 자발적 지원으로 선발되며, 교육 후에는 금융감독원 QR코드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교육의 질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15개 학교와 신규 결연을 맺고, 총 36개 학교에서 97회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성과로 '2024년 1사1교 금융교육 우수회사'에 선정되어 임직원이 포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자유학기제 금융교육 등 정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융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024년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실시 현황**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결연현황 (센터/학교) | 60센터/65개교 | 56센터/69개교 | 56센터/84개교 |
| 교육현황 (학교/회차) | 26개교/48회차 | 25개교/66회차 | 36개교/97회차 |
| 교육 학생 수 (명) | 3,489 | 3,388 | 5,918 |

**2024년 금융교육 수상**

| 구분 | 시상부문 | 수상자 | 부서 |
|---|---|---|---|
| 금융감독원장상 | 우수 금융회사 직원 | 김선익 | 채권상품부 |

### '경제진로캠프' 진행

NH투자증권은 2024년 7월 임직원 자녀(초등학교 4~6학년)를 대상으로 '경제진로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총 200명의 참가 학생들은 1박 2일간 경제 체험 활동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기르고, 진로 멘토링을 통해 스스로 진로를 모색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또한 AI·STEAM 기반 교육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임직원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마련하겠습니다.

## 지역사회 가치 실현

### 영등포 쪽방 독거어르신 돕기 활동

NH투자증권은 2013년부터 영등포 쪽방촌 거주 주민들을 위해 매년 여름에는 삼계탕, 겨울에는 연탄을 지원하며 지역 취약계층을 돕고 있습니다. 2024년 7월에는 영등포 쪽방촌에 600인분의 삼계탕을 전달했고, 12월에는 연탄·김치 등 겨울나기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해당 물품들은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마련되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NH투자증권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 축산환경 개선 지원

NH투자증권은 2024년 6월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안성팜랜드에 탄소 저감용 수종인 블루아이스 300그루를 식재하여, 축산 농가의 냄새 확산을 막고 인근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블루아이스는 피톤치드 배출로 냄새와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나무입니다. 또한 안성팜랜드 내 유휴시설 외벽에 벽화를 조성하여 축산환경 개선에 동참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4 대한민국 농식품 ESG 경영대상'에서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했습니다.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기반 문화예술교육 후원금 기부

NH투자증권은 2024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UN SDGs 기반 문화예술교육을 후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발전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에 동참하며,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후원금은 총 5,000만 원으로, NH투자증권은 이번 후원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합하는 문화예술 교육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유튜브 '좋은일잘러' 댓글 기부 활동

NH투자증권은 유튜브 채널 '투자로그인 by NH투자증권'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상을 주제로 한 콘텐츠 시리즈 '좋은 일잘러'를 선보였습니다. '좋은 일잘러'는 유기견 봉사, 비건 체험, 업사이클링, 생명나눔, 못난이 농산물 등 환경 보호와 생명 존중,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일상 속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달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진행된 댓글 기부 이벤트는 시청자가 영상에 댓글을 남기면 1건당 3,000원이 기부되는 방식으로, 실천에 대한 공감과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총 2,243개의 댓글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약 673만 원의 기부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여기에 NH투자증권이 추가 기부금을 더해 총 4,500만 원을 한국소아암재단 어린이에게 전달하였습니다.



▲ '좋은 일잘러' 댓글 기부 활동



▲ 안성팜랜드 벽화 그리기 활동

# 이사회 책임경영

## 이사회 구성

### 2025년 이사회 구성 현황

* 2025년 3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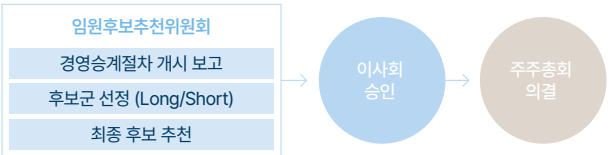
| 구분 | 성명 | 성별 | 재임기간[1] | 주요이력 | 전문분야 | 담당위원회 |
|---|---|---|---|---|---|---|
| 사내이사 | 윤병운 | 남 | 2024.03.27.~2026.03.01. | • NH투자증권 IB사업부 대표<br>• 現) NH투자증권 대표이사 | 금융<br>경영 | - |
| 사외이사 | 서정원 | 남 | 2023.03.23.~2026.03.01. | • SK경제연구소 연구위원<br>• 한국거래소 코스닥상장본부 기업심사위원<br>• 現)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경영<br>회계 | 감사위원회<br>보수위원회<br>내부통제위원회 |
| | 민승규 | 남 | 2024.03.27.~2026.03.01. | •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br>•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경제정책실장), 자문역<br>• 現) 세종대학교 석좌교수 | 경제 | 임원후보추천위원회<br>감사위원회<br>리스크관리위원회 |
| | 강주영 | 여 | 2024.03.27.~2026.03.01. | • 한국빅데이터학회 이사(편집위원장)<br>• 現)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이사(부회장)<br>• 現) 아주대학교 e-비즈니스학과 교수 | 경영<br>IT/Digital | 보수위원회<br>리스크관리위원회<br>ESG위원회 |
| | 오광수 | 남 | 2025.03.24.~2027.03.01. | •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br>•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검사장급)<br>• 現)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 법률 | 임원후보추천위원회<br>보수위원회<br>내부통제위원회 |
| | 서은숙 | 여 | 2025.03.24.~2027.03.01. | •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소비자보호 분과위원장<br>• 現)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소비자보호 분과위원<br>• 現)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금융<br>경제 | 임원후보추천위원회<br>감사위원회<br>ESG위원회 |
| 비상임이사 | 문연우 | 남 | 2023.03.23.~2026.03.01. | • NH농협손해보험 위험관리책임자(CRO)<br>• NH농협손해보험 농업보험부문 부사장 | 금융<br>경영 | 리스크관리위원회<br>ESG위원회<br>내부통제위원회 |

1) 재임기간은 최초선임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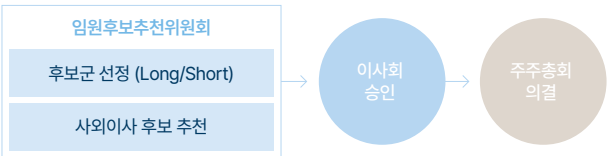
### 이사 선임 프로세스

NH투자증권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사를 선임합니다. 대표이사와 사외이사,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의 경우 경영승계절차 개시보고 후 40일 이내에 최종 후보를 추천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군 발굴·평가·자격 검증 과정을 통해 예비 후보자와 최종 후보자를 선발합니다. 사외이사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외이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후보군을 공정하게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현재 경영승계계획에 따라 대표이사 후보군 98명, 사외이사 후보군 119명을 관리해 지배구조 원칙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대표이사 선임 프로세스




#### 사외이사 선임 프로세스



# 이사회 책임경영

## 이사회 구성

### 이사회 독립성과 투명성

NH투자증권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사회를 통해 회사의 주요 현안을 결정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2025년 3월 말 기준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5명, 비상임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가 맡아 이사회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2년 이하이며 연임이 가능하고, 사외이사의 경우 회사에서 최대 6년, 계열사 합산 최대 9년까지 재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현황과 이사회 산하 위원회 활동, 지배구조 관련 주요 규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정보는 회사 홈페이지는 물론, 지속가능통합보고서·지배구조보고서·사업보고서 등에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이사회 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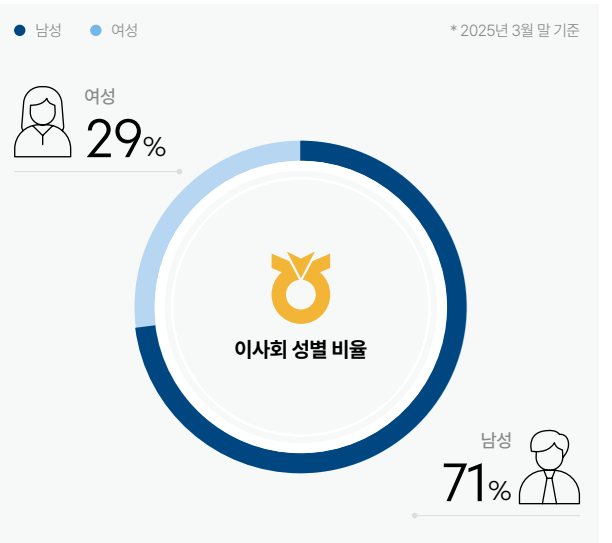
| 구분 | | 활동현황 |
|---|---|---|
| 의결안건 수 (건) | | 35 |
| 보고 안건 수 (건) | | 37 |
| 개최 수 (회) | | 14 |
| 출석률 (%) | 사내이사 | 96.3 |
| | 사외이사 | 95.7 |
| | 비상임이사 | 100.0 |

### 이사회 전문성 및 다양성

NH투자증권은 금융·경제·경영·법률·회계·소비자보호·지속가능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갖춘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해 합리적 의사결정과 전문적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 전반은 물론 금융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장기 가치 창출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성별·연령·경력·전문성 등 여러 배경을 고려해 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현재 여성 사외이사 2명을 포함해 이사회의 균형성과 포용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앞으로도 다양한 관점과 경험이 공존하는 이사회를 지향하며, 전문성과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사회 성별 비율**




## 이사회 운영

### 이사회 운영 현황

NH투자증권은 분기마다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 이사회도 수시로 열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총 14회의 이사회를 열어 35건의 의결 안건과 37건의 보고 안건 등 총 72건을 처리했습니다. 정기 이사회에서는 분기별 승인사항, 경영실적, 주주총회 위임 사항, 지속가능경영 업무 내역 등 주요 사항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중요 사안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이사회 개최 전 이사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사전에 공유해 안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했습니다.

### 이사회 평가 및 보수

NH투자증권은 매년 이사회와 보수위원회를 통해 경영진 보상체계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수를 지급합니다. 사내이사의 경우, 연간 경영목표와 KPI 달성 여부 등을 토대로 보수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사외이사·비상임이사는 설문조사를 통한 자기·상호·직원 평가와 이사회 참여도 등을 반영한 다면평가를 실시합니다. 이사들이 법령과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는 매년 평가되며, 그 결과는 이사회 보고 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합니다.

### 이사회 역량 강화

이사회의 효율적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구성원의 역량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NH투자증권은 매년 사외이사 교육을 통해 이사회의 전문성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전략·위험관리·지속가능경영·회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9회, 누적 162시간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는 한국금융연수원이 주관하는 금융회사 사외이사 프로그램에 참여해 이사회 역할과 책임, 금융회사 지배구조·성과보상, 리스크 관리, 금융당국의 감독 방향 등 필수 지식과 최신 트렌드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교육 방식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 이사회 책임경영

## 이사회 운영

**2024년 사외이사 교육 실시 현황**

| 구분 | 교육 내용 | 교육 일자 |
|---|---|---|
| 전략 | 사업부별 경영 계획 설명회 | 2024.01.26. |
| | NH투자증권 회사소개 및 주요 사업전략 등 | 2024.05.28. |
| 경영 | 금융회사 사외이사에게 필요한 경영 전문지식 | 2024.04.30. |
| | 상장회사 사외이사 역할과 법적 책임 | 2024.06.03. |
| | 일본의 밸류업 정책과 금융기관 대응방안 | 2024.06.27. |
| 위험관리 | 금융인이 알아야 할 자금세탁방지제도 | 2024.07.01. |
| | 자금세탁 교육 (AML/CFT제도의 이해) | 2024.08.29. |
| 지속가능경영 | 지속가능성공시 의무화 동향 | 2024.07.25. |
| 회계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 2024.12.02. |

##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 감사위원회

NH투자증권은 회사의 전반적인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점검·개선하기 위해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내부감사 기능의 독립성을 강화했습니다. 분기마다 정기 회의를 열고, 필요 시 임시 회의를 열어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감독하고 견제합니다.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이사회 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보자 발굴과 후보군 관리, 후보 추천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위해 전문성, 직무 공정성, 윤리성,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를 심사·선정하고 있습니다.

### 보수위원회

이사 보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 산하에 보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상체계가 재무상황과 위험요소에 적절히 연계되어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위원회는 경영진의 성과 목표를 설정·평가하고, 보상체계와 지급 방법 등 보수 관련 사항을 검토·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리스크관리위원회

경영활동 중 발생 가능한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이사회 산하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사외이사 2명을 포함해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경영·금융·리스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통합적 리스크 관리 기본방침과 전략을 수립하고, 위험자본금을 관리하는 등 전사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NH투자증권은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위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꾸준히 제고하고 있습니다.

### ESG위원회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NH투자증권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내재화하기 위해 ESG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지속가능경영 관련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을 관리·감독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구체적으로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행 현황과 성과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사외이사 2명을 포함한 총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배구조 차원에서 지속가능경영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회사 전반에 걸쳐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내부통제위원회

조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자, NH투자증권은 2025년 3월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내부통제위원회는 사외이사 2명을 포함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 정착 방안을 심의·의결합니다. 또한 대표이사를 비롯한 책무구조도 작성 대상 임원이 수행하는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024년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 건, 회, %

| 구분 | 역할 | 의결 안건 수 | 보고 안건 수 | 개최 수 | 출석률 |
|---|---|---|---|---|---|
|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 추천 | 10 | 1 | 7 | 100.0 |
| 감사위원회 |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및 경영성과 평가·개선 | 15 | 6 | 7 | 100.0 |
| 보수위원회 | 경영진의 성과목표 설정 및 평가, 보상체계의 수립 | 8 | 1 | 6 | 95.7 |
| 리스크관리 위원회 |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련 정책 수립 및 관리 | 11 | 9 | 7 | 96.4 |
| ESG 위원회 | ESG 경영전략 수립 | 1 | 6 | 3 | 91.7 |

# 윤리·준법경영

## 윤리경영 실천

### 윤리경영 체계

NH투자증권은 기업의 경제적·법적·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윤리준수 행동원칙을 마련하고,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구성원이 함께 지켜야 할 가치판단 기준이자 행동원칙인 그룹사의 윤리헌장을 도입하고, 이를 윤리헌장·윤리강령·임직원 행동강령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임직원 행동강령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가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임직원 윤리인식 제고 교육

NH투자증권은 임직원의 윤리의식과 법규 준수 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윤리·준법 동영상 교육과 퀴즈를 제공하여 일상 속에서 윤리의식을 자연스럽게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력 입사자를 대상으로는 연 2회 윤리경영 관련 사내 규정과 당사에서 실천하고 있는 윤리경영 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 실천

NH투자증권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모든 계약을 체결·이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계약 업무 규정에 따라 협력업체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입찰부터 대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전자입찰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IT 자산 등 민감한 지적 재산은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범농협 IT 통합구매'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NH투자증권을 퇴직한 인원이 소속된 업체는 계약업무 준칙에 따라 입찰 참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NH투자증권은 투명한 계약 업무의 정착 및 내재화를 위해, 계약 시 계약담당자에게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징구하고 공사·용역·구매 계약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준법감시인의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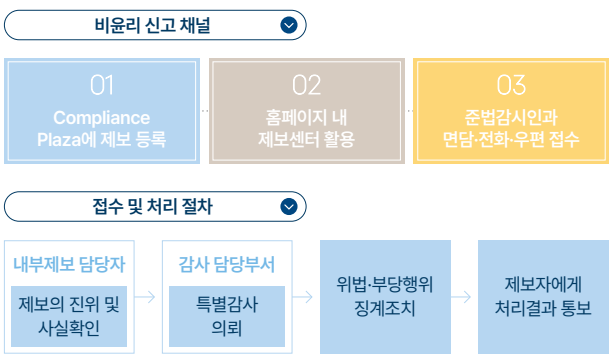
### 협력사 대상 윤리경영 교육 지원

NH투자증권은 기업 윤리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협력사를 대상으로 윤리 및 정보보호 책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년 한 차례 '준법감시인 Letter'를 협력사에 발송해 당사의 윤리·준법 경영 기조를 공유하며, 협력사와의 건전한 관계 및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한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비윤리 신고제도 운영

NH투자증권은 임직원의 비리·부패 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 사항 뿐 아니라, 성희롱·괴롭힘·차별 등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도 제보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내·외부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우편·전화·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임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 누구나 제보할 수 있으며, 이때 신고자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신고 접수 후에는 준법감시인이 사안을 조사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와 함께 제도적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보 활성화 및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해 내부제보 특별기간을 운영하며, 임직원이 윤리·인권 관련 이슈에 대해 자발적으로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비윤리 신고채널 및 절차**




## 내부통제 및 준법 역량 강화

### 내부통제시스템 외부 인증 취득

NH투자증권은 윤리경영 및 법규준수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경영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조직 활동과 법규·규제에 대한 리스크 점검, 준법경영시스템과 뇌물방지, 윤리경영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의 부문에서 전문성을 갖춘 제3자 심사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준법경영 시스템(ISO 37301)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에 관한 국제인증을 취득하고 2024년 인증을 갱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제 표준을 충족하는 윤리·준법경영 시스템을 통해 부패 리스크를 예방하고, 고객과 투자자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ISO 37301/37001 인증서

### 내부통제 활동

NH투자증권은 임직원이 업무 수행 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위법·부당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 및 내부 규정 준수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잠재적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임직원 대상으로 준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법령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부서장 내부통제 평가를 실시해 각 부서별 내부통제 취약점을 파악하고, 목표와 구체적 실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 윤리·준법경영

## 내부통제 및 준법 역량 강화

### 내부통제 거버넌스

NH투자증권은 효과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 기본 방침 수립 및 전략 방향을 설정하며, 내부통제협의회는 내부통제정책 및 전략을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각 내부통제 부서는 법규 준수 모니터링, 법률자문, 내부통제 교육 등을 통해 조직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윤리적 경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NH투자증권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상근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재편성하였습니다. 사외이사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실적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독립적이고 투명한 감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강화된 감사 독립성을 토대로 장기적으로 기업의 신뢰도와 가치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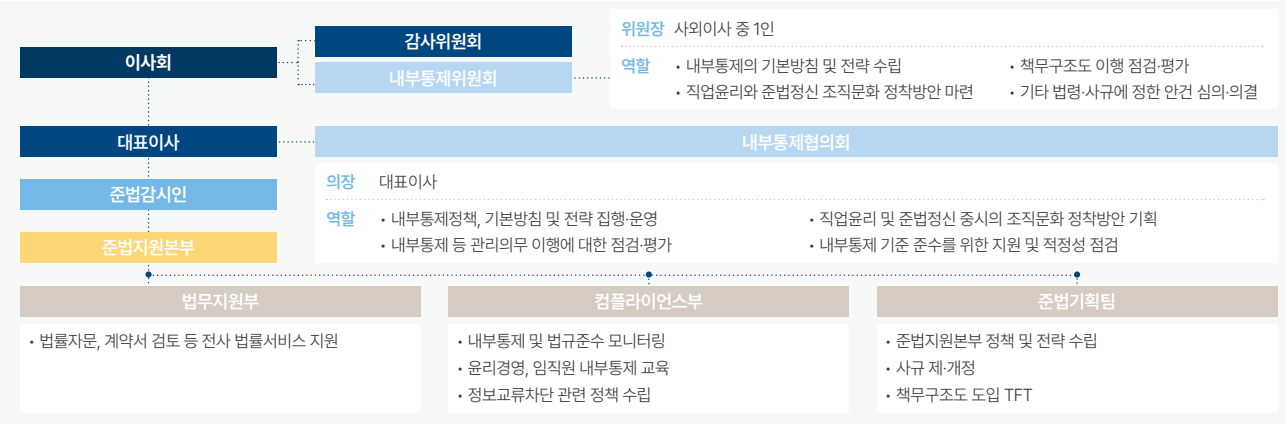
### 내부감사 실시

NH투자증권은 준법경영을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 내부감사를 통해 해당 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사 부서·현지법인·자회사는 2년에 한 번 감사를 실시하며, 초대형 영업점은 연 1회, 그 외 영업점은 2년에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합니다. 시재감사·부책감사 등을 포함한 부문 감사도 연 1회 또는 2회 주기로 진행합니다. 감사 결과와 주요 위법 사항은 사내게시판을 통해 공유하여 임직원이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4년에는 본사 부서와 영업점을 포함한 총 10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3개년 내부감사 실시 현황** 단위: 회

| 구분 | 2022 | 2023 | 2024 |
|---|---|---|---|
| 종합감사 | 104 | 95 | 85 |
| 부문감사 | 19 | 17 | 24 |
| 합계 | 123 | 112 | 109 |

**내부통제 거버넌스**




### 금융사고 예방 교육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사고로 인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이에 대응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사고의 발생원인, 내부통제의 중요성과 통제 방안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기존 일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교육을 전 임직원 대상으로 확대하고, 연 6회의 정기 교육 과정으로 편성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NH투자증권은 금융사고 예방 교육과 효과성 분석을 통해 내부통제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 책무구조도 도입

NH투자증권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책무구조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실효성 있는 책무구조도 작성을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주관하는 금융투자업 대상 시범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책무구조도 작성 단계부터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이행점검 프로세스에 이르기까지 규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통제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기획팀을 신설하고 법률 전문가 주도하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임원의 책무부터 내부통제 활동까지 연계된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사고 예방과 경각심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자금세탁 방지 활동

NH투자증권은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 신원확인과 검증, 거래목적 및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확인제도(CDD)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또는 의심 고객에 대해 거래 목적, 자금 출처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를 수행합니다.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등 빅데이터에 기반한 최근 범죄 패턴 분석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의심계좌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하고 거래를 제한하여 전사 자금세탁 리스크를 낮추었습니다. NH투자증권은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자금세탁 방지 활동과 관련한 제도를 평가받고 있으며, 2024년 평가 결과 운영위험지표 '우수', 고위험지표 '높음'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 리스크 관리

## 리스크 관리 거버넌스

###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

NH투자증권은 사업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예방하기 위해, 리스크 유형별 관리 현황을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경영진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 관리를 전담하는 리스크관리본부를 대표이사 직속으로 두어, 리스크 관리 기획과 한도 관리, 규제비율 관리, 심사, 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리스크 예방 활동

### 업무연속성계획(BCP) 운영

NH투자증권은 IT시스템 장애, 전염병, 화재·지진 등과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비상상황 업무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을 수립하여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BCP 비상 매뉴얼에 따라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BCP 운영위원회를 가동해 필수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IT 인력 등 핵심 기능 담당자의 손실이나 비대면 거래 증가 등에 대비한 위기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업활동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리스크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고자 합니다.

### 리스크 및 기회 요인

**① 해외 및 대체자산 투자 증가**

해외자산 및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NH투자증권은 자산의 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상품의 수익구조를 안정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리스크 관리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자산유형 및 국가별 익스포저 한도를 설정해 해외자산과 대체자산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②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금융당국의 기준금리 운영 기조 변경 가능성 등으로 인해 채권·주식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중금리 변동성, 글로벌 경기 부진,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 등이 맞물려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NH투자증권은 'ELS·DLS 발행협의회'를 통해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파생상품의 발행 규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③ 부동산 PF 신용리스크 확산**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시장 규제 강화에 대응해, NH투자증권은 부동산 PF 비즈니스의 규모에 한도를 설정하고, 타 대형 증권사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부동산 PF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별 정기적 사후감리를 통해 부동산 PF가 부실화될 경우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① 시장리스크 관리**

NH투자증권은 시장 상황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관리를 수행합니다. 일별 VaR(Value at Risk)을 측정하여 신뢰수준(99%)에서 1일간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금액을 추정하고, 주가·이자율·환율·변동성 등 시장위험 요인의 변동에 따른 가치 변화 리스크는 민감도 측정을 통해 관리합니다. 아울러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을 통해 시장위기 등 예외적인 사건을 가정, 해당 사건 발생 시 예상 손실을 측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② 신용리스크 관리**

NH투자증권은 거래 상대방이 상환·결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출·투자유가증권·파생상품 등 모든 신용리스크 익스포저를 측정하고, 거래 상대방별·계열별·Book별 신용 익스포저 한도를 설정하여 집중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또한 신용등급 평가를 거쳐 엄격한 심사·승인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잠재 부실 요인을 모니터링하는 Credit Review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을 높이는 체계적인 사후관리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리스크 관리

## 리스크 예방 활동

### 신용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 리스크 관리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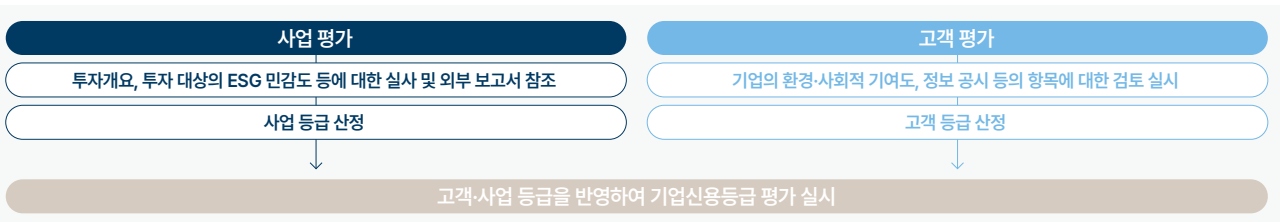
| 구분 | 내용 |
|---|---|
| 민감도 측정 | 주가, 이자율, 환율, 변동성 등 시장위험 요인의 변동에 따른 가치 변화 측정 |
| 위기상황분석 (Stress Test) | 시장위기 등 예외적인 사건 설정, 해당 사건이 일어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측정 |
| 위험성향 (Risk Appetite) | 가용자본 대비 위험자본[1]의 비중: 2024년 위험성향 53.4%(12월 말 기준) |

1) 자산의 잠재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배분된 자본

### 재무 및 비재무 리스크 관리

| 리스크 유형 | 내용 | NH투자증권 관리방안 |
|---|---|---|
| 시장 리스크 | 금리, 주가, 환율 등의 변화로 투자 자산의 가치 감소를 초래하는 손실 리스크 | • 가치평가 및 리스크 측정에 사용되는 파생상품 모델 수시 검증<br>• 손익 및 위험 측정치 왜곡 리스크 최소화 |
| 신용 리스크 | 거래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또는 신용등급 하락, 계약 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리스크 | • 거래 상대방의 신용등급 및 거래 규모에 따라 신용한도 차별적 부여<br>• 신용등급 및 거래 규모별 의사결정 프로세스 차별화로 자산 건전성 제고 |
| 유동성 리스크 | 자산 유동성 부족으로 대외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 • 모든 자산 및 부채를 위험관리 대상으로 설정해 일별 자산, 부채 및 부외거래 포지션 분석으로 유동성 및 금리 리스크 측정<br>• 자금부서와 리스크 관리 부서에서 전사 유동성 모니터링 및 통제, 위기상황 분석 및 보고 역할 수행<br>• 유동성 관리수준을 3단계로 구분해 각 단계별 대응체계 구축 |
| 운영 리스크 | 업무 수행 중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절차, 인력, 시스템 및 외부사건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리스크 | • 전사 운영리스크 관리시스템(ORMS, Operating Risk Management System) 구축<br>• 조직별 리스크 매니저가 일별·월별 정기적 리스크 통제 자가평가 수행 및 핵심 리스크 지표 관리<br>• 조직별 정기적인 리스크 수준 점검 실시, 잠재적 운영리스크 통제 |
| 환경 리스크 | 환경문제로 인한 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손실 리스크 | • 발전소·석탄 터미널 등 비환경적 사업 및 기업 대상 지분투자, 대출 등 통제 |
| ESG 리스크 | 환경, 사회, 거버넌스의 세 가지 요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 • 전 임직원 대상 ESG 이해도 제고 교육 실시<br>• 딜 심사과정에서 기업 ESG 관련 공시자료 검토, 외부 전문가보고서 참고, 의무적 실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고객 사업등급을 평가하는 프로세스 구축<br>• ESG를 고려한 심사프로세스 고안 및 정착<br>• 기업 신용등급 평가시스템 내 ESG 요인 적용, 개선 계획 및 비재무 평가항목 도출 |

### ESG 관련 기업 신용등급 평가 시스템



# APPENDIX


재무성과표 94
지속가능경영 DATA 105
GRI CONTENT INDEX 128
SASB INDEX 131
POLICY BOOK 133
UNGC 142
UN SDGs 143
제3자 검증의견서 145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147
주요 수상내역 및 협회 가입 현황 148

# 재무성과표

##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NH투자증권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 감사의견

우리는 별첨된 NH투자증권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들(이하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연결재무제표는 2024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그리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연결기업의 2024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성과 및 연결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한 연결기업의 2024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였으며 2025년 3월 4일자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연결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 1. 수준 3으로 분류되는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재무제표 주석 9에서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연결기업은 금융상품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성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수준을 1, 2 또는 3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측정 시 하나 이상의 중요 요소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수준 3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수준 3으로 분류한 금융상품은 재무제표 주석 9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평가 기법과 변수들을 사용합니다. 이 때 경영진이 평가 기법 및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 변수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 측정결과가 유의적으로 변동하게 되므로 회계추정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공정가치 수준 3 장외파생상품의 규모와 적용가능한 평가 기법의 채택 및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 변수의 영향을 고려하여 공정가치 수준 3으로 분류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핵심감사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핵심감사사항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을 포함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 수준 3 투입변수를 사용하여 측정한 장외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공정가치 측정 프로세스와 관련된 내부통제에 대한 이해 및 평가
- 통제테스트: 공정가치 산출 결과에 대한 연결기업 경영진의 검토 통제
- 공정가치 측정시 사용된 계약서를 샘플링하여 계약서상 발행정보와 시스템상 입력된 내역이 일치하는지 대사 확인
- 내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연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수준 3 투입변수를 사용하여 측정한 장외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을 유형별로 샘플링하여 독립적으로 재계산하고 차이내역 검토
-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이 공정가치 측정 시 이용되는 투입변수의 특성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평가

# 재무성과표

### 2. 개별평가 대상 PF대출채권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신용손실충당금의 측정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재무제표 주석 7에서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연결기업은 대출채권에 대하여 신용위험지표의 변동 및 손상사건 발생여부에 따라 신용위험을 3단계로 분류하고 집합평가 및 개별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집합평가 대상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을 위해 부도율, 부도 시 손실률, 부도 시 익스포저 등을 적용하며, 개별평가 대상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을 위해 관련 담보가치를 기반으로 미래 회수가능한 현금흐름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대출채권 손실충당금은 재무제표 주석 42에서 기술되어 있는 신용위험의 평가, 집합평가와 개별평가를 위해 다양한 투입변수를 사용합니다. 이 때 경영진이 신용위험 평가정책 및 투입변수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 측정결과가 유의적으로 변동하게 되므로 회계추정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대출채권 손실충당금의 규모와 신용위험 평가정책 및 투입 변수의 영향을 고려하여 개별평가 대상 PF대출채권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핵심감사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핵심감사사항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을 포함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 개별평가 대상 PF대출채권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손실충당금 프로세스와 관련된 경영진 검토 통제를 포함한 내부통제에 대한 이해 및 샘플링 평가
- 개별평가 손실충당금 측정 시 평가대상을 샘플링하여 미래 회수가능한 담보현금흐름 추정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내부정보 및 독립적으로 확인한 외부정보를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재계산

###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회사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기타사항

연결기업의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제표는 삼일회계법인이 감사하였으며, 2024년 3월 6일자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연결기업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연결기업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재무성과표

##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연결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연결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연결기업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연결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연결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기업의 재무정보 또는 그룹 내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우리는 그룹감사의 지휘, 감독 및 수행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감사의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또한, 우리는 독립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들을 준수하고, 우리의 독립성 문제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와 기타사항들 및 해당되는 경우 관련 제도적 안전장치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다는 진술을 지배기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는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들 중에서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을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합니다. 법규에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공개적인 공시를 배제하거나, 극히 드문 상황으로 우리가 감사보고서에 해당 사항을 기술함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해당 커뮤니케이션에 따른 공익적 효익을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어 해당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아닌 한, 우리는 감사보고서에 이러한 사항들을 기술합니다.

이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공인회계사 이종선입니다.

2025년 3월 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한영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용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 재무성과표

## 연결재무상태표

제 58(당)기 기말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제 57(전)기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 NH투자증권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백만 원)

| 과목 | 당기 | 전기 |
|---|---|---|
| **자산**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584,469 | 2,175,48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2,131,588 | 27,336,57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8,228,102 | 7,009,191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19,323,931 | 19,134,898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 471,930 | 336,846 |
| 유형자산 | 138,608 | 182,713 |
| 투자부동산 | 289,526 | 259,459 |
| 무형자산 | 98,625 | 65,379 |
| 사용권자산 | 82,016 | 93,175 |
| 당기법인세자산 | 7,077 | 9,235 |
| 이연법인세자산 | 22,630 | 19,490 |
| 기타자산 | 48,563 | 75,448 |
| 자산 총계 | 62,427,065 | 56,697,893 |
| **부채** | | |
| 예수부채 | 7,971,818 | 7,177,425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12,163,479 | 12,754,976 |
| 차입부채 | 24,446,513 | 18,919,143 |
| 발행사채 | 2,850,402 | 2,914,953 |
| 기타금융부채 | 6,179,344 | 6,882,009 |
| 충당부채 | 104,799 | 54,385 |

# 재무성과표

## 연결재무상태표

제 58(당)기 기말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제 57(전)기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NH투자증권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백만 원)

| 과목 | 당기 | 전기 |
|---|---|---|
| 당기법인세부채 | 284,366 | 160,887 |
| 이연법인세부채 | 16,268 | 5,705 |
| 기타부채 | 290,707 | 214,982 |
| 부채 총계 | 54,307,696 | 49,084,465 |
| **자본** | | |
| 지배주주지분 | 8,114,380 | 7,611,779 |
| 자본금 | 1,782,560 | 1,782,560 |
| 기타불입자본 | 1,867,180 | 1,867,180 |
| 기타자본구성요소 | 523,792 | 377,373 |
| 이익잉여금<br>(당기말 : 대손준비금기적립액 118,280백만 원<br>대손준비금환입예정액 18,337백만 원)<br>(전기말 : 대손준비금기적립액 85,902백만 원<br>대손준비금전입예정액 32,378백만 원) | 3,940,848 | 3,584,666 |
| 비지배주주지분 | 4,989 | 1,649 |
| 자본 총계 | 8,119,369 | 7,613,428 |
| 부채와 자본 총계 | 62,427,065 | 56,697,893 |

# 재무성과표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제 58(당)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 57(전)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NH투자증권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백만 원)

| 과목 | 당기 | 전기 |
|---|---|---|
| I. 순수수료손익 | 954,676 | 789,280 |
| 1. 수수료수익 | 1,178,025 | 1,039,083 |
| 2. 수수료비용 | 223,349 | 249,803 |
| II. 순이자손익 | 801,775 | 791,317 |
| 1. 이자수익 | 1,740,437 | 1,612,284 |
| 유효이자율 적용 이자수익 | 1,109,668 | 1,058,439 |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630,769 | 553,845 |
| 2. 이자비용 | 938,662 | 820,967 |
| III.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순손익 | (148,682) | (20,184) |
| IV.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순손익 | 9,326 | (15,182) |
| V.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관련순손익 | (275) | 68 |
| VI.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87,049 | 110,013 |
| VII. 외환거래손익 | 274,620 | 78,180 |
| VIII. 판매비와관리비 | 1,110,899 | 952,720 |
| IX. 기타의영업손익 | 207,577 | 165,011 |
| X. 영업이익 | 901,069 | 725,757 |
| XI. 영업외수익 | 112,926 | 95,107 |
| XII. 영업외비용 | 89,138 | 100,135 |
| X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924,857 | 720,729 |
| XIV. 법인세비용 | 238,219 | 167,681 |

# 재무성과표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제 58(당)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 57(전)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NH투자증권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백만 원)

| 과목 | 당기 | 전기 |
|---|---|---|
| **XV. 당기순이익** | 686,638 | 553,048 |
| 1. 지배주주지분순이익<br>(대손준비금반영후 조정이익: 당기: 704,998백만 원, 전기: 524,061백만 원) | 686,659 | 556,440 |
| 2. 비지배지분순손실 | (21) | (3,392) |
| **XVI. 기타포괄손익** | 146,537 | 78,161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174,408 | 110,492 |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평가손익 | 17,919 | 100,542 |
| 2. 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손익 | 330 | - |
| 3. 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 | (1,015) |
| 4. 해외사업환산손익 | 156,041 | 10,990 |
| 5. 비지배지분기타포괄손익 | 118 | (25)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27,871) | (32,331) |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평가손익 | 8,571 | 21,811 |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신용위험조정 | 2,260 | (24,293) |
| 3. 확정급여의재측정요소 | (38,702) | (29,849) |
| **XVII. 당기총포괄이익** | 833,175 | 631,209 |
| 지배주주지분포괄이익 | 833,079 | 634,626 |
| 비지배지분포괄이익(손실) | 96 | (3,417) |
| 기본보통주당순이익 | 1,966원 | 1,588원 |
| 희석보통주당순이익 | 1,966원 | 1,588원 |
| 기본우선주당순이익 | 2,016원 | 1,638원 |

# 재무성과표

## 연결자본변동표

제 58(당)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 57(전)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NH투자증권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백만 원)

| 과목 | 자본금 | 기타 불입자본 | 기타자본 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 지배주주 지분합계 | 비지배지분 | 총계 |
|---|---|---|---|---|---|---|---|
| 2023년 1월 1일(전기초) | 1,782,560 | 1,867,583 | 299,187 | 3,274,063 | 7,223,393 | 4,663 | 7,228,056 |
| 소유주와의 거래 등: | | | | | | | |
| 1. 연차배당 | - | - | - | (245,841) | (245,841) | - | (245,841) |
| 2. 종속회사 연결납세 효과 | - | - | - | 4 | 4 | - | 4 |
| 3. 연결실체의 변동(비지배지분의 변동) | - | (403) | - | - | (403) | 403 | - |
| 총포괄손익: | | | | | | | |
| 1. 당기순손익 | - | - | - | 556,440 | 556,440 | (3,392) | 553,048 |
| 2. 기타포괄손익 | | | | | | | |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122,353 | - | 122,353 | - | 122,353 |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신용위험변동손익 | - | - | (24,293) | - | (24,293) | - | (24,293) |
| (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29,849) | - | (29,849) | - | (29,849) |
| (4) 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1,015) | - | (1,015) | - | (1,015) |
| (5)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10,990 | - | 10,990 | (25) | 10,965 |
| 2023년 12월 31일(전기말) | 1,782,560 | 1,867,180 | 377,373 | 3,584,666 | 7,611,779 | 1,649 | 7,613,428 |

# 재무성과표

## 연결자본변동표

제 58(당)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 57(전)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NH투자증권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백만 원)

| 과목 | 자본금 | 기타 불입자본 | 기타자본 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 지배주주 지분합계 | 비지배지분 | 총계 |
|---|---|---|---|---|---|---|---|
| 2024년 1월 1일(당기초) | 1,782,560 | 1,867,180 | 377,373 | 3,584,666 | 7,611,779 | 1,649 | 7,613,428 |
| 소유주와의 거래 등: | | | | | | | |
| 1. 연차배당 | - | - | - | (278,946) | (278,946) | - | (278,946) |
| 2. 자기주식 소각 | - | - | - | (51,532) | (51,532) | - | (51,532) |
| 3. 연결실체의 변동(비지배지분의 변동) | - | - | - | - | - | 3,243 | 3,243 |
| 총포괄손익: | | | | | | | |
| 1. 당기순손익 | - | - | - | 686,659 | 686,659 | (21) | 686,638 |
| 2. 기타포괄손익 | | | | | | | |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26,490 | - | 26,490 | - | 26,490 |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신용위험변동손익 | - | - | 2,260 | - | 2,260 | - | 2,260 |
| (3) 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손익 | - | - | 330 | - | 330 | - | 330 |
| (4)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38,702) | - | (38,702) | - | (38,702) |
| (5)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156,041 | - | 156,041 | 118 | 156,159 |
| 2024년 12월 31일(당기말) | 1,782,560 | 1,867,180 | 523,792 | 3,940,847 | 8,114,379 | 4,989 | 8,119,368 |

# 재무성과표

## 연결현금흐름표

제 58(당)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 57(전)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NH투자증권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백만 원)

| 과목 | 당기 | 전기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196,698) | (1,154,046) |
| 1. 당기순이익 | 686,638 | 553,048 |
| 2. 손익조정항목 | (836,075) | (774,160) |
| 3. 자산 · 부채의 변동 | (5,171,090) | (1,866,852) |
| 4. 이자수취액 | 1,748,291 | 1,519,274 |
| 5. 이자지급액 | (802,973) | (770,416) |
| 6. 배당금수취액 | 282,257 | 338,991 |
| 7. 법인세납부액 | (103,746) | (153,931)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258,129) | 1,666,04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5,027,701) | (4,465,90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3,816,230 | 6,097,174 |
|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 (97,027) | (132,386) |
|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 113,069 | 178,049 |
| 투자부동산의 취득 | (2,935) | - |
| 투자부동산의 처분 | 1,322 | - |
| 유형자산의 취득 | (32,136) | (41,213) |
| 유형자산의 처분 | 667 | 73 |
| 무형자산의 취득 | (7,138) | (4,557) |
| 무형자산의 처분 | - | 207 |
| 보증금의 증가 | (1,347) | (19,149) |
| 보증금의 감소 | 12,372 | 39,926 |

# 재무성과표

## 연결현금흐름표

제 58(당)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 57(전)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NH투자증권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백만 원)

| 과목 | 당기 | 전기 |
|---|---|---|
| 연결범위 변동으로 인한 순현금 유입 | - | 13,827 |
| 연결범위 변동으로 인한 순현금 유출 | (33,505) | -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762,540 | (313,867) |
| 차입부채의 순증감 | 5,446,364 | 590,982 |
| 사채의 증가 | 4,066,549 | 6,115,838 |
| 사채의 감소 | (4,190,000) | (6,734,000) |
| 리스부채의 감소 | (35,262) | (36,701) |
| 임대보증금의 증가 | 1,245 | 135 |
| 임대보증금의 감소 | (350) | (529) |
| 비지배투자자부채의 감소 | (198,771) | (3,751) |
| 배당금의 지급 | (278,946) | (245,841) |
| 비지배지분의 증가 | 3,243 | - |
| 자기주식의 소각 | (51,532) | -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 | (692,287) | 198,130 |
|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101,276 | 10,116 |
|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2,175,480 | 1,967,234 |
| **VII. 당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584,469 | 2,175,480 |

# 지속가능경영DATA

## 경제

### 경제성과 창출 및 분배

| 구분 | | | 단위 | 2022 | 2023 | 2024 |
|---|---|---|---|---|---|---|
| 경제적 가치 창출 및 분배 | 직접적 경제적 가치 창출 | 영업이익 | 억 원 | 5,213.6 | 7,257.6 | 9,010.7 |
| | 분배되는 경제적 가치[1] | 운영비 | 억 원 | 1,623.4 | 1,637.7 | 1,915.2 |
| | | 임직원 급여[2] | 억 원 | 5,245.4 | 6,071.8 | 7,238.2 |
| | | 주주 배당 | 억 원 | 2,458.4 | 2,789.5 | 3,293.4 |
| | | 채권자 이자 지급[3] | 억 원 | 228.2 | 324.4 | 536.0 |
| | | 정부 납부 세금[4] | 억 원 | 1,372.9 | 1,676.8 | 2,382.2 |
| | | 지역사회투자 | 억 원 | 32.2 | 67.0 | 65.8 |

1) 분배되는 경제적 가치에 운영비 추가 및 산정 기준 변경으로 2022~2023년 데이터 변경
2) 급여, 퇴직급여, 명예퇴직금, 복리후생비
3) 자금 조달에 따른 실제 현금성 이자(차입금 이자, 사채이자, 발행어음이자). 회계상 비용 및 고객 자산에 대한 보상 제외
4) 법인세

# 지속가능경영DATA

## 환경

### 에너지

| 구분 | | | 산정범위 | 단위 | 2022 | 2023 | 2024 |
|---|---|---|---|---|---|---|---|
| 조직 내 에너지 소비 | 간접 화석에너지 사용량 | 전력 | 본사 | GJ | 16,486.5 | 17,201.9 | 15,934.5 |
| | | | 영업점, 인재원,어린이집 | GJ | 20,196.4 | 20,417.4 | 18,405.4 |
| | | | IDC | GJ | 12,559.7 | 11,973.7 | 11,915.9 |
| | | 도시가스(LNG) | 본사 | GJ | 6,817.6 | 4,548.9 | 5,166.2 |
| | | | 영업점, 인재원 | GJ | 5,778.3 | 5,228.2 | 5,502.2 |
| | | 스팀 | 영업점 | GJ | 350.0 | 363.4 | 496.8 |
| | 이동연소 | 휘발유, 경유 | 본사 | GJ | 5,788.4 | 5,362.4 | 4,496.7 |
| | | 전력 | 본사 | GJ | 14.5 | 28.4 | 55.8 |
| 에너지 | 총 에너지 사용량 | | | GJ | 67,991.4 | 65,124.4 | 61,973.6 |
| | 재생에너지 구매에 따른 사용량 | | | GJ | N/A | 262.8[1] | 6,122.5[2] |
| 에너지 사용 원단위[3] | Scope 1 | | 본사 | GJ/m² | 0.2188 | 0.1752 | 0.1641 |
| | Scope 2 | | 본사 | GJ/m² | 0.2865 | 0.2991 | 0.2775 |

1)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기반한 REC 구매
2) 바이오에너지를 활용해 생산된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기반한 REC 구매 및 태양광 기반 녹색프리미엄 구매
3) 본사 사옥 계약면적 기준으로 에너지 원단위 산정

# 지속가능경영DATA

## 환경

###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Scope 2+Scope 3)[1]

| 구분 | | | 산정범위 | 단위 | 2022 | 2023 | 2024 |
|---|---|---|---|---|---|---|---|
| 직접 온실가스 배출 | Scope 1 배출량 | 도시가스(LNG) | 본사 | $tCO_2eq$ | 391.9 | 249.0 | 262.4 |
| | | | 영업점, 인재원 | $tCO_2eq$ | 293.3 | 265.4 | 279.3 |
| | | 휘발유 | 이동연소 | $tCO_2eq$ | 381.9 | 367.7 | 285.7 |
| | | 경유 | 이동연소 | $tCO_2eq$ | 7.5 | 5.3 | 2.7 |
| | | 합계 | | $tCO_2eq$ | 1,074.6 | 887.4 | 830.1 |
| 간접 온실가스 배출 | Scope 2 배출량 | 전력 | 본사 | $tCO_2eq$ | 2,103.9 | 2,195.2 | 2,033.5 |
| | | | 영업점, 인재원, 어린이집 | $tCO_2eq$ | 2,577.3 | 2,605.6 | 2,348.8 |
| | | | IDC | $tCO_2eq$ | 1,602.8 | 1,528.0 | 1,520.6 |
| | | | 이동연소 | $tCO_2eq$ | 1.9 | 3.6 | 7.1 |
| | | 스팀 | 영업점 | $tCO_2eq$ | 20.9 | 21.7 | 29.7 |
| | | 합계 – 지역기반[2] | | $tCO_2eq$ | 6,306.8 | 6,354.1 | 5,939.7 |
| | | 합계 – 시장기반[3] | | $tCO_2eq$ | 6,306.8 | 6,320.6 | 5,617.8 |
|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 | Scope 3 배출량[4] | 용수 | 전사 | $tCO_2eq$ | 11.7 | 13.9 | 15.8 |
| | | 용지 | 전사 | $tCO_2eq$ | 76.0 | 65.9 | 66.4 |
| | | 카드 | 전사 | $tCO_2eq$ | 0.2 | 0.1 | 0.2 |
| | | 폐기물 | 본사 | $tCO_2eq$ | 205.3 | 236.3 | 218.1 |
| | | 출장 | 본사 | $tCO_2eq$ | 323.8 | 492.5 | 533.7 |
| | | | 영업점 | $tCO_2eq$ | 26.0 | 35.6 | 51.9 |
| | | 합계 | | $tCO_2eq$ | 643.0 | 844.3 | 886.0 |
| 온실가스 배출량 합계 | 지역기반[2] | | | $tCO_2eq$ | 8,024.4 | 8,085.8 | 7,655.8 |
| | 시장기반[3] | | | $tCO_2eq$ | 8,024.4 | 8,052.3 | 7,333.9 |
|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5] | Scope 1 | | 본사 | $tCO_2eq/m^2$ | 0.0136 | 0.0108 | 0.0096 |
| | Scope 2 | | 본사 | $tCO_2eq/m^2$ | 0.0366 | 0.0382 | 0.0354 |

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및 'GHG Protocol Corporate Value Chain (Scope 3)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에 따라 산정
2) 국가 전력망 기준으로 산정한 지역기반(Location-based) Scope 2 배출량을 포함
3) REC 구매를 반영한 시장기반(Market-based) Scope 2 배출량을 포함
4) Scope 3 산정 시 용수는 실사용량 및 추정사용량(면적), 용지는 프린터 사용량, 카드는 법인카드 및 체크카드 발급량, 폐기물은 전국 혼합배출 폐기물의 처리(재활용·소각·매립) 비중, 출장은 임직원의 출장기록을 바탕으로 산정. 용수, 카드, 용지 사용 및 폐기물에 따른 배출량은 환경성적표지 탄소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 출장에 따른 배출량은 GHG Protocol 기준에 따라 산정
5) 본사 사옥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산정

# 지속가능경영DATA

## 환경

### 용수 및 폐수

| 구분 | | 산정범위 | 단위 | 2022 | 2023 | 2024 |
|---|---|---|---|---|---|---|
| 용수 취수[1] | 취수량 | 본사 | $m^3$ | 30,506.9 | 36,446.2 | 42,486.2 |
| | | 영업점 | $m^3$ | 18,775.9 | 22,118.0 | 24,027.8 |
| 용수 방류 | 방류량 | 본사 | $m^3$ | 30,506.9 | 36,446.2 | 42,486.2 |
| | | 영업점 | $m^3$ | 18,775.9 | 22,118.0 | 24,027.8 |
| 용수 사용[2] | 용수 사용량 | 본사 | $m^3$ | 0.0 | 0.0 | 0.0 |
| | | 영업점 | $m^3$ | 0.0 | 0.0 | 0.0 |
| 중수 사용 | 중수 사용량 | 본사 | $m^3$ | 10,387.5 | 12,830.2 | 12,676.4 |

1) 상하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신사옥(Parc.1) 유입 용수량(취수) 및 방류 용수량(폐수)으로 산정
2) 용수 사용량은 CDP(Carbon Disclosure Project)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입된 취수량 및 폐수량을 통해 산정

### 폐기물

| 구분 | | 산정범위 | 단위 | 2022 | 2023 | 2024 |
|---|---|---|---|---|---|---|
| 폐기물 발생[3] | 총 폐기물 발생량 | 본사 | ton | 249.6 | 287.7 | 271.1 |
| 폐기물 재활용 | 재활용 위탁 처리 | 본사 | ton | 108.5 | 126.7 | 134.8 |

3) 발생하는 폐기물은 모두 일반 폐기물

### 용지

| 구분 | 산정범위 | 단위 | 2022 | 2023 | 2024 |
|---|---|---|---|---|---|
| 용지 사용량 | 전사 | ton | 67.9 | 58.8 | 59.3 |

### 환경친화적 자동차

| 구분 | 산정범위 | 단위 | 2022 | 2023 | 2024 |
|---|---|---|---|---|---|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유 대수 | 본사 | 대 | 3 | 37 | 48 |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유 비율 | 본사 | % | 4.4 | 50.7 | 65.8 |

# 지속가능경영DATA

## 사회

### 임직원 현황

| 구분 | | | 단위 | 2022 | 2023 | 2024 |
|---|---|---|---|---|---|---|
| 총 임직원 | 남성 | | 명(%) | 1,821(58.1) | 1,791(57.7) | 1,781(56.9) |
| | 여성 | | 명(%) | 1,315(41.9) | 1,314(42.3) | 1,347(43.1) |
| | 합계 | | 명 | 3,136 | 3,105 | 3,128 |
| | 지역별 | 국내 | 명(%) | 3,130(99.8) | 3,102(99.9) | 3,126(99.9) |
| | | 해외 | 명(%) | 6(0.2) | 3(0.1) | 2(0.1) |
| 임시근로자[1] | 남성 | | 명 | 675 | 674 | 733 |
| | 여성 | | 명 | 258 | 255 | 292 |
| | 합계 | | 명(%) | 933(29.8) | 929(29.9) | 1,025(32.8) |
| 통상근로자[2] | 남성 | | 명 | 1,146 | 1,117 | 1,048 |
| | 여성 | | 명 | 1,057 | 1,059 | 1,055 |
| | 합계 | | 명(%) | 2,203(70.2) | 2,176(70.1) | 2,103(67.2) |

1) 임원, 연봉계약직, 영업전문직, 단기계약직, 파트타이머 포함
2)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포함

### 직원이 아닌 근로자

| 구분 | | 단위 | 2022 | 2023 | 2024 |
|---|---|---|---|---|---|
| 사업장 내 소속 외 근로자[3] | 남성 | 명 | 158 | 154 | 170 |
| | 여성 | 명 | 111 | 100 | 120 |
| | 합계 | 명 | 269 | 254 | 290 |

3)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 유형은 서비스 상담·안내직, 경호·경비직,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운전·운송직 등

# 지속가능경영DATA

## 사회

### 단체협약

| 구분 | | 단위 | 2022 | 2023 | 2024 |
|---|---|---|---|---|---|
| 단체협약 현황 | 단체협약의 대상이 되는 임직원[1] | 명(%) | 1,913(61.0) | 1,926(62.0) | 1,816(58.1) |
| | 단체협약 대상 임직원의 노동조합 가입률 | % | 100.0 | 100.0 | 100.0 |

1) 단체협약 대상은 노사 합의에 근거하여 일반직 직원 적용 원칙(인사부 등 일부 직원 제외)

### 채용 및 퇴직 현황

| 구분 | | | 단위 | 2022 | 2023 | 2024 |
|---|---|---|---|---|---|---|
| 신규채용 및 이직 | 연령별 신규채용 인원 | 만 30세 미만 | 명(%) | 122(44.9) | 76(49.4) | 75(45.7) |
| | | 만 30세~만 50세 미만 | 명(%) | 135(49.6) | 69(44.8) | 79(48.2) |
| | | 만 50세 이상 | 명(%) | 15(5.5) | 9(5.8) | 10(6.1) |
| | 성별 신규채용 인원 | 남성 | 명(%) | 165(60.7) | 104(67.5) | 102(62.2) |
| | | 여성 | 명(%) | 107(39.3) | 50(32.5) | 62(37.8) |
| | 연령별 이직 및 퇴직자 인원 | 만 30세 미만 | 명(%) | 38(18.5) | 27(14.9) | 25(13.5) |
| | | 만 30세~만 50세 미만 | 명(%) | 101(49.3) | 101(55.8) | 84(45.4) |
| | | 만 50세 이상 | 명(%) | 66(32.2) | 53(29.3) | 76(41.1) |
| | 성별 이직 및 퇴직자 인원 | 남성 | 명(%) | 129(62.9) | 131(72.4) | 127(68.6) |
| | | 여성 | 명(%) | 76(37.1) | 50(27.6) | 58(31.4) |
| | 자발적 퇴직자 인원[2] | | 명 | 112 | 90 | 78 |
| | 자발적 퇴직자 비율 | | % | 3.6 | 2.9 | 2.5 |

2) 이직 및 개인사유로 인한 퇴직을 자발적 퇴직자 산정 범위에 포함

# 지속가능경영DATA

## 사회

### 임직원 다양성 및 기회 균등

| 구분 | | | 단위 | 2022 | 2023 | 2024 |
|---|---|---|---|---|---|---|
| 이사회 구성 현황 | 성별 이사회 구성 비율 | 남성 | % | 87.5 | 87.5 | 85.7 |
| | | 여성 | % | 12.5 | 12.5 | 14.3 |
| | 연령별 이사회 구성 비율 | 만 30세 미만 | % | 0.0 | 0.0 | 0.0 |
| | | 만 30세~만 50세 미만 | % | 0.0 | 0.0 | 0.0 |
| | | 만 50세 이상 | % | 100.0 | 100.0 | 100.0 |
| 임직원 구성 현황 | 성별 임직원 구성 비율 | 남성 | 명(%) | 1,821(58.1) | 1,791(57.7) | 1,781(56.9) |
| | | 여성 | 명(%) | 1,315(41.9) | 1,314(42.3) | 1,347(43.1) |
| | 연령별 임직원 구성 비율 | 20대 | 명(%) | 353(11.3) | 353(11.4) | 353(11.3) |
| | | 30대 | 명(%) | 988(31.5) | 877(28.2) | 811(25.9) |
| | | 40대 | 명(%) | 1,077(34.3) | 1,105(35.6) | 1,159(37.1) |
| | | 50대 이상 | 명(%) | 718(22.9) | 770(24.8) | 805(25.7) |
| | 임직원 다양성 구성 현황 | 고졸인재 비율 | % | 7.5 | 7.4 | 7.4 |
| | | 보훈직원 비율 | % | 2.7 | 2.8 | 2.7 |
| | | 장애인 비율[1] | % | 1.5 | 2.2 | 2.5 |
| | 직급별 임직원 | 임원 | 명(%) | 66(2.1) | 65(2.1) | 69(2.2) |
| | | 관리자[2] | 명(%) | 2,017(64.3) | 2,037(65.6) | 2,085(66.7) |
| | | 사원 | 명(%) | 1,053(33.6) | 1,003(32.3) | 974(31.1) |
| | 여성 리더십 | 전체 관리자[3] 중 여성 비율 | % | 28.2 | 30.8 | 33.9 |
| | | 계약직 중 여성 비율 | % | 30.6 | 27.4 | 28.5 |
| | | 정규직 중 여성 비율 | % | 47.1 | 48.7 | 50.2 |

1) 장애인고용공단 신고 기준
2) 관리자: 과장급 이상, 임원 제외
3) 전체 관리자: 과장급 이상, 임원 포함

# 지속가능경영DATA

## 사회

### 임직원 교육 현황

| 구분 | | | 단위 | 2022 | 2023 | 2024 |
|---|---|---|---|---|---|---|
| 임직원 평균 교육시간 | 임직원 1인당 평균 교육시간 | | 시간 | 76 | 78 | 81 |
| | 임직원 성별 1인당 평균 교육시간 | 남성 | 시간 | 72 | 75 | 78 |
| | | 여성 | 시간 | 79 | 83 | 86 |
| | 임직원 유형별 평균 교육시간 | 영업점 영업 | 시간 | 126 | 127 | 115 |
| | | 영업점 업무 | 시간 | 115 | 114 | 120 |
| | | 본사 영업 | 시간 | 45 | 51 | 56 |
| | | 본사 지원 | 시간 | 57 | 62 | 68 |
| 임직원 1인당 평균 교육 훈련비 | | | 만 원 | 40 | 53 | 73 |
| 인권 교육 | 성희롱 예방교육 | | 명 | 3,088 | 3,040 | 3,054 |
| | 직장내 괴롭힘 방지 | | 명 | 3,088 | 3,040 | 3,054 |
| | 장애인 인식개선 | | 명 | 3,088 | 3,040 | 3,054 |
| 윤리·준법경영 교육 | 정기 윤리·준법 교육 | 전 부서 CM 및 업무팀장 | 회 | 2 | 1 | 1 |
| | 외부강사 초청 교육 | 관련부서 임직원 | 회 | 0 | 1 | 1 |
| | 수시 교육 | 신규 입사직원, 부서별 요청 등 | 회 | 49 | 29 | 25 |
| 정보보호 교육 |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여 인원 | | 명 | 2,978 | 3,035 | 3,077 |
| | 개인정보보호 교육 시간 | | 시간 | 18,495 | 18,933 | 19,110 |

# 지속가능경영DATA

## 사회

### 일·가정 양립 지원 현황

| 구분 | | | 단위 | 2022 | 2023 | 2024 |
|---|---|---|---|---|---|---|
| 육아휴직 | 육아휴직 사용자 수 | 남성 | 명 | 11 | 4 | 15 |
| | | 여성 | 명 | 72 | 73 | 81 |
| |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인원 | 남성 | 명 | 3 | 7 | 5 |
| | | 여성 | 명 | 65 | 49 | 59 |
| | 육아휴직 사용 후 12개월 근속한 근무자 수 | 남성 | 명 | 1 | 3 | 5 |
| | | 여성 | 명 | 43 | 66 | 46 |
| | 복직 후 12개월 근속율 | 남성 | % | 100.0 | 100.0 | 71.4 |
| | | 여성 | % | 97.8 | 100.0 | 93.9 |
| 시차출퇴근[1] | 대상 인원[2] | | 명 | 3,070 | 3,040 | 3,059 |
| | 사용 인원 | | 명 | 712 | 754 | 747 |
| | 사용률 | | % | 23.2 | 24.8 | 24.4 |
| 맘스라운지 | 대상 인원[3] | | 명 | 113 | 103 | 82 |
| | 사용 인원 | | 명 | 38 | 57 | 53 |
| | 사용률 | | % | 33.6 | 55.3 | 64.6 |
| 가족돌봄휴가 | 대상 인원 | | 명 | 3,070 | 3,040 | 3,059 |
| | 사용 인원 | | 명 | 182 | 196 | 206 |
| | 사용률 | | % | 5.9 | 6.4 | 6.7 |

1) 임신, 육아기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제외
2) 임원을 제외한 전 직원
3) 직전연도부터 해당연도 말까지 태아검진, 출산, 유산휴가 사용 인원(본사 및 영업점 전체)

# 지속가능경영DATA

## 사회

### 임직원 안전보건

| 구분 | | | 단위 | 2022 | 2023 | 2024 |
|---|---|---|---|---|---|---|
| 임직원 안전보건 지원 | 임직원 건강검진 지원 현황 | 건강검진 완료 인원[1](직원 수) | 명 | 4,696(2,898) | 4,934(2,987) | 4,789(2,973) |
| | 임직원 안전보건 현황 | 산업재해 | 건 | 0 | 0 | 2 |
| | | 손실 근무일수[2] | 일 | 0 | 0 | 0[3] |
| | 임직원 심리건강 프로그램 이용 현황 | 심리상담 횟수 | 건 | 1,160 | 1,395 | 2,404 |
| | | 상담 인원 | 명 | 212 | 361 | 391 |
| | | 만족도(5점 만점) | 점 | 4.8 | 4.7 | 4.6 |

1)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 대상으로 건강검진 지원
2)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실제로 휴업한 일수
3) 재해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재해근로자에게 손실근무가 발생하지 않음

### 고객 개인정보 보호

| 구분 | | 단위 | 2022 | 2023 | 2024 |
|---|---|---|---|---|---|
| 고객 개인정보 보호 위반 및 고객정보 분실 사실이 입증된 불만 건수 | 개인정보 유출 건수 | 건 | 0 | 0 | 0 |

### VOC 운영현황

| 구분 | 단위 | 2022 | 2023 | 2024 |
|---|---|---|---|---|
| 접수 건수 | 건 | 11,690 | 13,837 | 17,997 |
| 처리 건수 | 건 | 11,690 | 13,837 | 17,997 |
| 처리율 | % | 100.0 | 100.0 | 100.0 |

### 금융사기 예방 현황

| 구분 | 단위 | 2022 | 2023 | 2024 |
|---|---|---|---|---|
| 피해예방 건수 | 건 | 72 | 34 | 25 |
| 피해예방 금액 | 백만 원 | 814.9 | 215.9 | 350.6 |

# 지속가능경영DATA

## 사회

### 디지털 금융 관련 지표

| 구분 | 단위 | 2022 | 2023 | 2024 |
|---|---|---|---|---|
| 디지털 고객 수[1] | 명 | 4,449,324 | 4,836,272 | 5,238,665 |
|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이용자 수 (평균 MAU[2]) | 만 명 | 272 | 260 | 264 |
| MTS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 점 | 70.2[3] | 72.0[3] | 69.2[4] |
| AI기반 대고객 서비스 사용 건수 | 건 | N/A | N/A | 3,438,714 |
| AI기반 내부 업무 지원 서비스 사용 건수 | 건 | N/A | N/A | 22,654 |
| 디지털 온라인 학습 과정 수[5] | 개 | 34 | 39 | 49 |
| 디지털 온라인 학습 과정 이수자 수 | 명 | 189 | 184 | 229 |

1) 나무/QV 비대면 계좌 누적 수
2) 와이즈앱(Wiseapp) 산정 기준
3) 한국갤럽(Gallup) 디지털 앱 경쟁력 조사 결과(나무증권 상·하반기 평균 점수)
4) 엠브레인(Embrain) 모바일 앱 경쟁력 조사 결과(나무증권 상·하반기 평균 점수)
5) 온라인 교육 과정 내 '디지털', '빅데이터(AI)' 카테고리 중 1명 이상의 이수자가 집계된 과정 수

# 지속가능경영DATA

## 사회

### 사회공헌활동

| 구분 | | | 단위 | 2022 | 2023 | 2024 |
|---|---|---|---|---|---|---|
| 사회공헌활동 현황 | 임직원 참여 인원(누적) | | 명 | 5,910 | 6,521 | 6,426 |
| | 임직원 참여 시간 | | 시간 | 28,744 | 29,294 | 28,672 |
|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활동 | | 마을 수 | 개 | 31 | 31 | 31 |
| | | 농촌방문 횟수 | 회 | 34 | 26 | 36 |
| | | 임직원 참여 인원(누적) | 명 | 964 | 998 | 1,081 |
| 사랑의 나눔 헌혈 | | 1회 참여자 | 명 | 101 | 98 | 86 |
| | | 2회 참여자 | 명 | 89 | 98 | 103 |
| | | 3회 참여자 | 명 | 75 | 94 | 107 |
| 중소농가 육성 | 크라우드 펀딩 현황 | 지원농가 | 개 | 22 | 24 | 24 |
| | | 펀딩 | 건 | 4,605 | 4,802 | 5,726 |
| | | 목표금액 | 백만 원 | 24.0 | 19.3 | 21.0 |
| | | 달성금액 | 백만 원 | 174.1 | 147.7 | 213.7 |
| | | 달성률 | % | 725.4 | 765.1 | 1,017.7 |
| | 라이브커머스 현황[1)] | 지원농가 | 개 | N/A | 8 | 12 |
| | | 달성금액 | 백만 원 | N/A | 22.4 | 18.1 |

1) 라이브커머스는 2023년부터 진행

# 지속가능경영DATA

## 거버넌스

### 이사회 운영 현황

| 구분 | | 단위 | 2022 | 2023 | 2024 |
|---|---|---|---|---|---|
| 안건 수 | 의결안건 수 | 건 | 36 | 33 | 35 |
| | 보고안건 수 | 건 | 39 | 34 | 37 |
| 이사회 개최 수 | | 회 | 13 | 13 | 14 |
| 출석률 | 사내이사 | % | 100.0 | 100.0 | 96.3 |
| | 사외이사 | % | 96.9 | 93.7 | 95.7 |
| | 비상임이사 | % | 100.0 | 100.0 | 100.0 |

###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현황

| 구분 | | | 단위 | 2022 | 2023 | 2024 |
|---|---|---|---|---|---|---|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 현황 | 의결안건 수 | | 건 | 11 | 8 | 10 |
| | 보고안건 수 | | 건 | 1 | 0 | 1 |
| | 개최 수 | | 회 | 7 | 6 | 7 |
| | 출석률 | 사외이사 | % | 100.0 | 100.0 | 100.0 |
| | | 비상임이사 | % | 100.0 | 100.0 | 100.0 |
| 감사위원회 운영 현황 | 의결안건 수 | | 건 | 17 | 14 | 15 |
| | 보고안건 수 | | 건 | 10 | 9 | 6 |
| | 개최 수 | | 회 | 7 | 7 | 7 |
| | 출석률 | 사내이사 | % | 100.0 | 100.0 | 100.0 |
| | | 사외이사 | % | 100.0 | 100.0 | 100.0 |
| 보수위원회 운영 현황 | 의결안건 수 | | 건 | 6 | 7 | 8 |
| | 보고안건 수 | | 건 | 1 | 0 | 1 |
| | 개최 수 | | 회 | 4 | 5 | 6 |
| | 출석률 | 사내이사 | % | 100.0 | N/A[1] | N/A |
| | | 사외이사 | % | 100.0 | 94.4 | 95.7 |
| | | 비상임이사 | % | 100.0 | 100.0 | N/A[2] |

1) 2022년 정기주주총회 이후 보수위원회 내 사내이사 제외
2) 2023년 정기주주총회 이후 보수위원회 내 비상임이사 제외

# 지속가능경영DATA

## 거버넌스

###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현황

| 구분 | | | 단위 | 2022 | 2023 | 2024 |
|---|---|---|---|---|---|---|
|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 현황 | 의결안건 수 | | 건 | 3 | 5 | 11 |
| | 보고안건 수 | | 건 | 9 | 11 | 9 |
| | 개최 수 | | 회 | 8 | 7 | 7 |
| | 출석률 | 사내이사 | % | 100.0 | N/A[1] | N/A |
| | | 사외이사 | % | 95.8 | 95.0 | 95.2 |
| | | 비상임이사 | % | N/A | 100.0 | 100.0 |
| ESG위원회 운영 현황 | 의결안건 수 | | 건 | 1 | 2 | 1 |
| | 보고안건 수 | | 건 | 3 | 6 | 6 |
| | 개최 수 | | 회 | 2 | 3 | 3 |
| | 출석률 | 사외이사 | % | 83.3 | 100.0 | 88.9 |
| | | 비상임이사 | % | 100.0 | 100.0 | 100.0 |

1) 2022년 정기주주총회 이후 리스크관리위원회 내 사내이사 제외

### 임원 보수 현황

| 구분 | | 단위 | 2022 | 2023 | 2024 |
|---|---|---|---|---|---|
| 보수 총액[2] | 등기이사[3] | 백만 원 | 2,538 | 1,359 | 6,363 |
| | 사외이사[4] | 백만 원 | 142 | 70 | 143 |
| | 감사위원회 위원 | 백만 원 | 523 | 482 | 413 |
| 1인당 평균 보수액 | 등기이사[3] | 백만 원 | 1,269 | 453 | 2,121 |
| | 사외이사[4] | 백만 원 | 47 | 23 | 36 |
| | 감사위원회 위원 | 백만 원 | 104 | 96 | 103 |

2) 중도 선임·퇴임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 포함
3)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4)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지속가능경영DATA

## 거버넌스

### 연간 총 보상비율

| 구분 | | 단위 | 2022 | 2023 | 2024 |
|---|---|---|---|---|---|
| 연간 총 보상비율 | 조직의 최고 연봉자의 연간 총 보상액 | 백만 원 | 3,162.0 | 3,161.0 | 5,949.0 |
| | 최고 연봉자를 제외한 조직 전체 임직원 연간 총 보상액의 중간값 | 백만 원 | 164.9 | 132.1 | 150.3 |
| | 연간 총 보상비율 | 배 | 19.2 | 23.9 | 39.6 |
| 연간 총 보상액의 증가율 | 조직의 최고 연봉자의 연간 총 보상액의 증가율 | % | 33.2 | 0.0 | 88.2 |
| | 최고 연봉자를 제외한 조직 전체 임직원의 연간 총 보상액 증가율의 중간값 | % | 11.8 | (19.9) | 13.8 |
| | 연간 총 보상액 증가율 비율 | 배 | 2.8 | 0.0 | 6.4 |

### 법률 및 규제 준수

| 구분 | | 단위 | 2022 | 2023 | 2024 |
|---|---|---|---|---|---|
| 현재 보고 기간에 발생한 법률 및 규제 미준수 사례 | 벌금의 총 건수 | 건 | 1 | 3 | 4 |
| | 벌금액 | 백만 원 | 56.8 | 1,975.2 | 69.3 |
| 이전 보고 기간에 발생한 법률 및 규제 미준수 사례 | 벌금의 총 건수 | 건 | 2 | 5 | 3 |
| | 벌금액 | 백만 원 | 4,556.0 | 1,769.7 | 1,561.8 |

# 지속가능경영DATA

## 거버넌스

### 반부패

| 구분 | | | 단위 | 2022 | 2023 | 2024 |
|---|---|---|---|---|---|---|
| 반부패 정책과 절차에 대한 공지와 교육 | 공지 또는 교육을 받은 이사회 구성원 수 | | 명 | 8 | 8 | 6 |
| | 공지 또는 교육을 받은 이사회 구성원 비율 | | % | 100.0 | 100.0 | 100.0 |
| | 공지 또는 훈련을 받은 임직원 수 | | 명 | 2,827 | 2,881 | 2,911 |
| | 공지 또는 훈련을 받은 임직원 비율 | | % | 94.9 | 99.3 | 97.2 |
| | 공지 또는 훈련을 받은 협력회사 수 | | 개 | 65 | 173 | 86 |
| | 공지 또는 훈련을 받은 협력회사 비율 | | % | 100.0 | 70.3 | 69.4 |
| 확인된 부패 사례와 이에 대한 조치 | 부패 사례의 수 | 내부자 제보 건수 | 건 | 2 | 2 | 1 |
| | | 외부자 제보 건수 | 건 | 15 | 2 | 5 |
| | 해고나 징계를 받은 사례 건수 | 내부자 조치 건수[1] | 건 | 2 | 0 | 1 |
| | | 외부자 조치 건수 | 건 | 0 | 0 | 0 |
| | | 내부자 조치율 | % | 100.0 | N/A | 100.0 |
| | | 외부자 조치율 | % | N/A | N/A | N/A |
| | 부패로 인해 파트너와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지 않은 사례 건수 | | 건 | 0 | 0 | 0 |
| 내부제보 특별기간 운영 | | | 회 | 2 | 2 | 1 |

1) 제보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임직원 조치가 이루어진 사항

# 지속가능경영DATA

## 거버넌스

### 선물반송센터 운영 현황[1)]

| 구분 | 단위 | 2022 | 2023 | 2024 |
|---|---|---|---|---|
| 반송 | 건 | 0 | 0 | 1 |
| 기탁 | 건 | 0 | 2 | 0 |

1) 해당연도 명절 기간 중 선물반송센터 운영결과 집계

### 세금

| 구분 | 단위 | 2022 | 2023 | 2024 |
|---|---|---|---|---|
| 세전손익 | 억 원 | 4,402.2 | 7,207.3 | 9,248.6 |
| 현금으로 납부하는 법인소득세 | 억 원 | 2,897.6 | 1,539.3 | 1,037.5 |
| 당기손익으로 발생하는 법인세 | 억 원 | 1,372.9 | 1,676.8 | 2,382.2 |

### 해외 거점 현황[2)]

| 구분 | 진출 시기 | 진출 형태 | 단위 | 2022 | 2023 | 2024 |
|---|---|---|---|---|---|---|
| 뉴욕(미국) | 1992 | 현지법인 | 억 원/명 | 353/14 | 484/16 | 753/18 |
| 홍콩 | 1994 | 현지법인 | 억 원/명 | 7,321/27 | 7,934/30 | 9,679/30 |
| 상하이(중국) | 1996 | 사무소 | 억 원/명 | -/2 | -/2 | -/2 |
| 싱가포르 | 2008 | 운용사(법인) | 억 원/명 | 40/5 | 43/5 | 51/7 |
| 자카르타(인도네시아) | 2009 | 현지법인 | 억 원/명 | 55/180 | 416/176 | 470/162 |
| 하노이(베트남) | 2009 | 현지법인 | 억 원/명 | 702/73 | 717/109 | 784/117 |
| 베이징(중국) | 2011 | 현지법인 | 억 원/명 | 93/7 | 88/7 | 94/7 |
| 런던(영국) | 2022 | 현지법인 | 억 원/명 | 375/5 | 367/7 | 403/6 |

2) 연도별 값은 자기자본(억 원)/인원현황(명)

# 지속가능경영DATA-연결기준

## 기본 현황

### 임직원 현황

| 구분 | | 단위 | NH투자증권 | | | NH선물 | | | NH헤지자산운용 | | |
|---|---|---|---|---|---|---|---|---|---|---|---|
| | | | 2022 | 2023 | 2024 | 2022 | 2023 | 2024 | 2022 | 2023 | 2024 |
| 총 임직원[1] | 남성 | 명 | 1,821 | 1,791 | 1,781 | 55 | 64 | 62 | 31 | 28 | 30 |
| | 여성 | 명 | 1,315 | 1,314 | 1,347 | 29 | 24 | 31 | 17 | 19 | 17 |
| | 합계 | 명 | 3,136 | 3,105 | 3,128 | 84 | 88 | 93 | 48 | 47 | 47 |
| 임시근로자[2] | 남성 | 명 | 675 | 674 | 733 | 6 | 7 | 8 | 23 | 20 | 24 |
| | 여성 | 명 | 258 | 255 | 292 | 2 | 1 | 2 | 3 | 5 | 2 |
| | 합계 | 명 | 933 | 929 | 1,025 | 8 | 8 | 10 | 26 | 25 | 26 |
| 통상근로자[3] | 남성 | 명 | 1,146 | 1,117 | 1,048 | 49 | 57 | 54 | 8 | 8 | 6 |
| | 여성 | 명 | 1,057 | 1,059 | 1,055 | 27 | 23 | 29 | 14 | 14 | 15 |
| | 합계 | 명 | 2,203 | 2,176 | 2,103 | 76 | 80 | 83 | 22 | 22 | 21 |

1) NH헤지자산운용의 경우 상근직원 기준
2) NH투자증권의 경우 임원, 연봉계약직, 영업전문직, 단기계약직, 파트타이머를 포함하며 NH헤지자산운용은 계약직(프론트) 포함
3) NH투자증권의 경우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포함

### 임직원 다양성 및 기회 균등

| 구분 | | 단위 | NH투자증권 | | | NH선물 | | | NH헤지자산운용 | | |
|---|---|---|---|---|---|---|---|---|---|---|---|
| | | | 2022 | 2023 | 2024 | 2022 | 2023 | 2024 | 2022 | 2023 | 2024 |
| 연령별 임직원 구성 현황 | 만 30세 미만 | 명 | 353 | 353 | 353 | 26 | 17 | 23 | 3 | 3 | 0 |
| | 만 30세~만 50세 미만 | 명 | 2,065 | 1,982 | 1,970 | 46 | 54 | 53 | 39 | 39 | 41 |
| | 만 50세 이상 | 명 | 718 | 770 | 805 | 12 | 17 | 17 | 6 | 5 | 6 |

# 지속가능경영DATA-연결기준

## 기본 현황

### 법률 및 규제 준수

| 구분 | | 단위 | NH투자증권 | | | NH선물 | | | NH헤지자산운용 | | |
|---|---|---|---|---|---|---|---|---|---|---|---|
| | | | 2022 | 2023 | 2024 | 2022 | 2023 | 2024 | 2022 | 2023 | 2024 |
| 현재 보고 기간에 발생한 법률 및 규제 미준수 사례 | 벌금의 총 건수 | 건 | 1 | 3 | 4 | 0 | 0 | 0 | 0 | 0 | 0 |
| | 벌금액 | 백만 원 | 56.8 | 1,975.2 | 69.3 | 0.0 | 0.0 | 0.0 | 0.0 | 0.0 | 0.0 |
| 이전 보고 기간에 발생한 법률 및 규제 미준수 사례 | 벌금의 총 건수 | 건 | 2 | 5 | 3 | 0 | 0 | 1 | 0 | 0 | 0 |
| | 벌금액 | 백만 원 | 4,556.0 | 1,769.7 | 1,561.8 | 0.0 | 0.0 | 40.0 | 0.0 | 0.0 | 0.0 |

### 반부패

| 구분 | | | 단위 | NH투자증권 | | | NH선물 | | | NH헤지자산운용 | | |
|---|---|---|---|---|---|---|---|---|---|---|---|---|
| | | | | 2022 | 2023 | 2024 | 2022 | 2023 | 2024 | 2022 | 2023 | 2024 |
| 반부패 정책과 절차에 대한 공지와 교육 | 공지 또는 훈련을 받은 구성원 수 | | 명 | 2,827 | 2,881 | 2,911 | 84 | 88 | 93 | 44 | 45 | 41 |
| | 공지 또는 훈련을 받은 구성원 비율 | | % | 94.9 | 99.3 | 97.2 | 98.8 | 98.8 | 96.7 | 86.3 | 90.0 | 83.7 |
| 확인된 부패 사례와 이에 대한 조치 | 부패 사례의 수 | 내부자 제보 건수 | 건 | 2 | 2 | 1 | 1 | 0 | 2 | | | |
| | | 외부자 제보 건수 | 건 | 15 | 2 | 5 | 0 | 0 | 0 | | | |
| | 해고나 징계를 받은 사례 건수 | 내부자 조치 건수[1] | 건 | 2 | 0 | 1 | 1 | 0 | 1 | | | |
| | | 외부자 조치 건수 | 건 | 0 | 0 | 0 | 0 | 0 | 0 | | | |
| | 부패로 인해 파트너와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지 않은 사례 건수 | | 건 | 0 | 0 | 0 | 0 | 0 | 0 | | | |
| 내부제보 특별기간 운영 | | | 회 | 2 | 2 | 1 | 1 | 1 | 1 | | | |

1) 제보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임직원 조치가 이루어진 사항

# 지속가능경영DATA-연결기준

## FOCUS 1. 기후변화 대응

### 에너지

| 구분 | | 산정범위 | 단위 | NH투자증권 | | | NH선물 | | | NH헤지자산운용[1] | | |
|---|---|---|---|---|---|---|---|---|---|---|---|---|
| | | | | 2022 | 2023 | 2024 | 2022 | 2023 | 2024 | 2022 | 2023 | 2024 |
| 간접 화석에너지 사용량 | 전력 | 본사 | GJ | 16,486.5 | 17,201.9 | 15,934.5 | 2,061.0 | 2,101.0 | 2,138.0 | 128.9 | 131.6 | 135.4 |
| | | 영업점, 인재원, 어린이집 | GJ | 20,196.4 | 20,417.4 | 18,405.4 | | | | | | |
| | | IDC | GJ | 12,559.7 | 11,973.7 | 11,915.9 | | | | | | |
| | 도시가스(LNG) | 본사 | GJ | 6,817.6 | 4,548.9 | 5,166.2 | N/A | N/A | N/A | N/A | N/A | N/A |
| | | 영업점, 인재원 | GJ | 5,778.3 | 5,228.2 | 5,502.2 | | | | | | |
| | 스팀 | 영업점 | GJ | 350.0 | 363.4 | 496.8 | | | | | | |
| 이동연소 | 휘발유, 경유 | 본사 | GJ | 5,788.4 | 5,362.4 | 4,496.7 | 470.0 | 419.0 | 575.0 | | | |
| | 전력 | 본사 | GJ | 14.5 | 28.4 | 55.8 | N/A | N/A | N/A | | | |
| 총 에너지 사용량 | | | GJ | 67,991.4 | 65,124.4 | 61,973.6 | 2,531.0 | 2,520.0 | 2,713.0 | 128.9 | 131.6 | 135.4 |

1) Parc.1 건물 임대차 면적에 대한 전력 사용량으로, NH투자증권으로부터 매월 청구받는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

# 지속가능경영DATA-연결기준

## FOCUS 1. 기후변화 대응

### 온실가스 배출량[1)]

| 구분 | | 산정범위 | 단위 | NH투자증권 | | | NH선물[2)] | | | NH헤지자산운용[2)] | | |
|---|---|---|---|---|---|---|---|---|---|---|---|---|
| | | | | 2022 | 2023 | 2024 | 2022 | 2023 | 2024 | 2022 | 2023 | 2024 |
| Scope 1 배출량 | 도시가스(LNG) | 본사 | $tCO_2eq$ | 391.9 | 249.0 | 262.4 | 31.6 | 28.2 | 38.7 | N/A | N/A | N/A |
| | | 영업점, 인재원 | $tCO_2eq$ | 293.3 | 265.4 | 279.3 | | | | | | |
| | 휘발유 | 이동연소 | $tCO_2eq$ | 381.9 | 367.7 | 285.7 | | | | | | |
| | 경유 | 이동연소 | $tCO_2eq$ | 7.5 | 5.3 | 2.7 | | | | | | |
| | 합계 | | $tCO_2eq$ | 1,074.6 | 887.4 | 830.1 | | | | | | |
| Scope 2 배출량 | 전력 | 본사 | $tCO_2eq$ | 2,103.90 | 2,195.20 | 2,033.5 | 98.7 | 100.6 | 102.3 | 16.5 | 16.8 | 17.3 |
| | | 영업점, 인재원, 어린이집 | $tCO_2eq$ | 2,577.3 | 2,605.6 | 2,348.8 | | | | | | |
| | | IDC | $tCO_2eq$ | 1,602.8 | 1,528.0 | 1,520.6 | | | | | | |
| | | 이동연소 | $tCO_2eq$ | 1.9 | 3.6 | 7.1 | | | | | | |
| | 스팀 | 영업점 | $tCO_2eq$ | 20.9 | 21.7 | 29.7 | | | | | | |
| | 합계 | 전사 | $tCO_2eq$ | 6,306.8 | 6,354.1 | 5,939.7 | | | | | | |
| 온실가스 배출량 합계 | | | $tCO_2eq$ | 7,381.4 | 7,241.5 | 6,769.8 | 130.3 | 128.8 | 141.0 | 16.5 | 16.8 | 17.3 |

1) 온실가스 배출량은 'ISO 14064-1:2018' 및 'GHG Protocol:2004' 기준에 따라 산정
2) Scope 1 배출량은 이동연소(휘발유), Scope 2 배출량은 본사 전력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 지속가능경영DATA-연결기준

## FOCUS 2. 디지털 금융 및 플랫폼 전략

### 디지털 금융 서비스 이용 현황

| 구분 | 단위 | NH투자증권 | | | NH선물 | | | NH헤지자산운용 | | |
|---|---|---|---|---|---|---|---|---|---|---|
| | | 2022 | 2023 | 2024 | 2022 | 2023 | 2024 | 2022 | 2023 | 2024 |
| 디지털 고객 수[1] | 명 | 4,449,324 | 4,836,272 | 5,238,665 | 23,060 | 24,389 | 25,288 | | | |

1) NH투자증권은 나무/QV 비대면 계좌 누적 수, NH선물은 파생상품거래 서비스 계좌 보유 고객 수

## FOCUS 3. 정보보호

### 고객 개인정보 보호

| 구분 | | 단위 | NH투자증권 | | | NH선물 | | | NH헤지자산운용 | | |
|---|---|---|---|---|---|---|---|---|---|---|---|
| | | | 2022 | 2023 | 2024 | 2022 | 2023 | 2024 | 2022 | 2023 | 2024 |
| 고객 개인정보 보호 위반 및 고객정보 분실 사실이 입증된 불만 건수 | 개인정보 유출 건수 | 건 | 0 | 0 | 0 | 0 | 0 | 0 | | | |

# 지속가능경영DATA-연결기준

## FOCUS 4. 금융소비자 보호

### 금융사기 예방 현황

| 구분 | 단위 | NH투자증권 | | | NH선물 | | | NH헤지자산운용 | | |
|---|---|---|---|---|---|---|---|---|---|---|
| | | 2022 | 2023 | 2024 | 2022 | 2023 | 2024 | 2022 | 2023 | 2024 |
| 피해예방 건수 | 건 | 72 | 34 | 25 | 0 | 0 | 0 | | | |
| 피해예방 금액 | 백만 원 | 814.9 | 215.9 | 350.6 | 0.0 | 0.0 | 0.0 | | | |

### VOC 운영 현황

| 구분 | 단위 | NH투자증권 | | | NH선물 | | | NH헤지자산운용 | | |
|---|---|---|---|---|---|---|---|---|---|---|
| | | 2022 | 2023 | 2024 | 2022 | 2023 | 2024 | 2022 | 2023 | 2024 |
| 접수 건수 | 건 | 11,690 | 13,837 | 17,997 | 1 | 3 | 3 | | | |
| 처리 건수 | 건 | 11,690 | 13,837 | 17,997 | 1 | 3 | 3 | | | |
| 처리율 | %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

# GRI CONTENT INDEX

**표준 사용 성명** NH투자증권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지속가능경영 활동 및 데이터를 GRI 표준 부합(in accordance with) 보고 방식에 따라 보고하였습니다.

**사용한 GRI 1** GRI 1: Foundation 2021

**해당 GRI 산업 표준** N/A

| GRI Standard | | Disclosure | Location |
|---|---|---|---|
| GRI 2 : 일반공개 (2021) | | | |
| 조직 및 보고관행 | 2-1 | 조직 세부사항 | 2p, 25-30p |
| | 2-2 | 조직의 지속가능성 보고에 포함된 법인 | 2p |
| | 2-3 | 보고 기간, 주기 및 문의처 | 2p |
| | 2-4 | 기존 정보 수정 | 105-127p |
| | 2-5 | 외부 검증 | 145-146p |
| 활동 및 근로자 | 2-6 | 활동, 가치 사슬 및 기타 비즈니스 관계 | 31-34p |
| | 2-7 | 임직원 | 109p, 111p, 122p |
| | 2-8 | 임직원이 아닌 근로자 | 109p |
| 거버넌스 | 2-9 | 거버넌스 구조 및 구성 | 86-88p |
| | 2-10 | 최고의사결정기구 추천 및 선정 | 86p, 88p, 139p |
| | 2-11 | 최고의사결정기구 의장 | 86p |
| | 2-12 | 영향 관리를 감독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역할 | 36p, 88p |
| | 2-13 | 영향 관리에 대한 책임 위임 | 36p, 88p, 118p |
| | 2-14 |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역할 | 36p |
| | 2-15 | 이해상충 | 139p |
| | 2-16 | 주요 우려사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 88p, 118p |
| | 2-17 |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집단지식 | 87-88p |
| | 2-18 | 최고의사결정기구 성과 평가 | 87p |
| | 2-19 | 보수 정책 |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48p |
| | 2-20 | 보수 산정 프로세스 | 87p |
| | 2-21 | 연간 총 보수 비율 | 119p |
| 전략, 정책 및 관행 | 2-22 |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에 대한 성명서 | 4-5p |
| | 2-23 | 정책 | 133-141p |
| | 2-24 | 정책 내재화 | 6p, 78p, 79p, 80p, 84p, 89p |
| | 2-25 |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세스 | 72p, 78p |
| | 2-26 | 자문 요청 및 우려 제기 메커니즘 | 68p, 89p, 114p, 127p |
| | 2-27 | 법률 및 규정 준수 | 119p |
| | 2-28 | 협회 회원 | 149p |
| 이해관계자 참여 | 2-29 |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접근 방식 | 47p |
| | 2-30 | 단체협약 | 78p, 110p |

# GRI CONTENT INDEX

| GRI Standard | | Disclosure | Location |
|---|---|---|---|
| 중요 주제 | | | |
| GRI 3 : 중요 주제 (2021) | 3-1 | 중요 주제 선정 프로세스 | 41-42p |
| | 3-2 | 중요 주제 목록 | 43-46p |
| 경제성과 | | | |
| GRI 201 : 경제성과 (2016) | 201-1 | 직접적 경제가치 발생과 분배(EVG&D) | 105p |
| | 201-2 | 기후변화에 따른 재무적 영향 및 기타 리스크와 기회 | 49-62p |
| 간접 경제적 영향 | | | |
| GRI 203 : 간접 경제적 영향 (2016) | 203-1 | 사회기반시설 투자 및 서비스 지원 | 84-85p, 131p |
| | 203-2 | 중요한 간접 경제 영향 | 34p, 84-85p |
| 반부패 | | | |
| GRI 205 : 반부패 (2016) | 205-2 | 반부패 정책과 절차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 | 89-90p, 120p |
| | 205-3 | 확인된 부패 사례 및 조치 | 120p |
| 조세 | | | |
| GRI 207: 세금 (2019) | 207-1 | 세금에 대한 접근 방식 | 137-138p |
| | 207-2 | 세금 거버넌스, 통제 및 위험 관리 | 137-138p |
| | 207-3 | 이해관계자 참여 및 세금 관련 우려 사항 관리 | 137-138p |
| Material Topic: 기후변화 대응 강화 | | | |
| GRI 3 : 중요 주제 (2021) | 3-3 | 중요 주제 관리 | 42p, 46p, 49p |
| GRI 302 : 에너지 (2016) | 302-1 | 조직 내 에너지 소비 | 60p, 107p |
| | 302-3 | 에너지 집약도 | 107p |
| | 302-4 | 에너지 소비 감축 | 60p |
| GRI 305: 배출 2016 | 305-1 |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 60p, 107p |
| | 305-2 |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2) | 60p, 107p |
| | 305-3 |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 | 60-62p, 107p |
| | 305-4 | 온실가스 배출 집적도 | 107p |
| | 305-5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 60p |
| 용수 및 폐수 | | | |
| GRI 303 : 용수 및 폐수 (2018) | 303-3 | 취수 | 108p |
| | 303-4 | 방류 | 63p, 108p |
| | 303-5 | 물 소비 | 63p, 108p |

# GRI CONTENT INDEX

| GRI Standard | | Disclosure | Location |
|---|---|---|---|
| 폐기물 | | | |
| GRI 306 : 폐기물 (2020) | 306-3 | 폐기물 발생 | 108p |
| | 306-4 | 폐기물 전환 | 108p |
| 고용 | | | |
| GRI 401 : 고용 (2016) | 401-1 | 신규채용 및 이직 | 110p |
| | 401-2 |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 | 81p, 113p |
| | 401-3 | 육아휴직 | 113p |
| 산업안전보건 | | | |
| GRI 403 : 산업 보건 및 안전 (2018) | 403-1 | 직장 건강 및 안전 관리 시스템 | 80p, 134p |
| | 403-2 | 위험요인 파악, 리스크 평가, 사고 조사 | 80p |
| | 403-4 | 직장 건강 및 안전 관련 커뮤니케이션, 자문 및 근로자 참여 | 81p |
| | 403-6 | 근로자 건강 증진 | 81p |
| | 403-9 | 산업재해율 | 80p, 114p |
| 훈련 및 교육 | | | |
| GRI 404 : 훈련 및 교육 (2016) | 404-1 | 직원 1인당 평균 교육 시간 | 112p |
| | 404-2 | 직원 역량강화 및 이직지원 프로그램 | 79-80p |
| 다양성 및 기회균등 | | | |
| GRI 405 : 다양성 및 기회균등(2016) | 405-1 | 지배구조 기구와 직원의 다양성 | 87p, 111p |
| Material Topic: 정보보안 및 고객정보 보호 | | | |
| GRI 3 : 중요 주제 (2021) | 3-3 | 중요 주제 관리 | 43p, 46p, 74p |
| GRI 418 : 고객개인정보 (2016) | 418-1 |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정보 분실 관련해 입증된 민원 | 114p, 126p |
| Material Topics: 디지털 금융 및 플랫폼 강화 | | | |
| GRI 3 : 중요 주제 (2021) | 3-3 | 중요 주제 관리 | 43p, 46p, 65p |
| 조직 고유 지표 | - | 디지털 금융 서비스 이용 현황 | 67p, 115p, 126p |
| Material Topics: 금융소비자 보호 | | | |
| GRI 3 : 중요 주제 (2021) | 3-3 | 중요 주제 관리 | 43p, 46p, 70p |
| 조직 고유 지표 | - | 금융사기 예방 현황 | 73p, 114p |

# SASB INDEX

<table>
<tr><th>주제</th><th>코드</th><th>지표설명</th><th>단위</th><th>NH투자증권 대응</th></tr>
<tr><td>임직원 다양성 및 포용성</td><td>FN-IB-330a.1</td><td>(1) 경영진, (2) 관리자, (3) 전문직,<br>(4) 기타 모든 종업원의 성별 및 인종/민족 구성비</td><td>%</td><td>87p, 109p, 111p, 122p</td></tr>
<tr><td rowspan="3">산업 내 ESG 요소 통합성</td><td>FN-IB-410a.1</td><td>산업별 ESG 요소를 고려한<br>(1) 인수, (2) 자문, (3) 증권 거래 수익</td><td>수, 백만 원</td><td>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건수</th><th>금액</th></tr>
<tr><td rowspan="2">인수·주선</td><td>온실가스 감축</td><td>1</td><td>75,000</td></tr>
<tr><td>자원순환</td><td>5</td><td>1,243,000</td></tr>
<tr><td rowspan="5">ESG펀드 판매</td><td>뉴딜</td><td>11</td><td>24,903</td></tr>
<tr><td>ESG</td><td>20</td><td>93,529</td></tr>
<tr><td>SRI</td><td>4</td><td>861</td></tr>
<tr><td>해외ESG</td><td>1</td><td>64</td></tr>
<tr><td>사모ESG</td><td>1</td><td>700</td></tr>
</table>
</td></tr>
<tr><td>FN-IB-410a.2</td><td>산업별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 및<br>대출 상품의 (1) 수와 (2) 총 가치</td><td>수, 백만 원</td><td>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분</th><th colspan="2">총계</th><th colspan="2">기업신용공여</th><th colspan="2">채권</th><th colspan="2">집합투자증권</th><th colspan="2">ETF</th></tr>
<tr><th>건수</th><th>금액</th><th>건수</th><th>금액</th><th>건수</th><th>금액</th><th>건수</th><th>금액</th><th>건수</th><th>금액</th></tr>
<tr><td rowspan="3">녹색 금융</td><td>온실가스 감축</td><td>101</td><td>949,459</td><td>21</td><td>443,930</td><td>13</td><td>126,290</td><td>24</td><td>341,816</td><td>43</td><td>37,424</td></tr>
<tr><td>지원순환</td><td>13</td><td>186,243</td><td>8</td><td>166,709</td><td>0</td><td>0</td><td>5</td><td>19,534</td><td>0</td><td>0</td></tr>
<tr><td>지속가능한 수자원</td><td>1</td><td>0.1</td><td>0</td><td>0</td><td>0</td><td>0</td><td>0</td><td>0</td><td>1</td><td>0</td></tr>
<tr><td rowspan="4">사회적 책임</td><td>보건, 교육 등 공공서비스</td><td>59</td><td>700,798</td><td>12</td><td>587,837</td><td>0</td><td>0</td><td>25</td><td>82,242</td><td>22</td><td>30,719</td></tr>
<tr><td>공공 인프라</td><td>2</td><td>3,860</td><td>0</td><td>0</td><td>0</td><td>0</td><td>2</td><td>3,860</td><td>0</td><td>0</td></tr>
<tr><td>ESG 우수기업</td><td>25</td><td>31,069</td><td>0</td><td>0</td><td>0</td><td>0</td><td>3</td><td>8,419</td><td>22</td><td>22,650</td></tr>
</table>
</td></tr>
<tr><td>FN-IB-410a.3</td><td>해당 산업과 ESG 요소 통합 접근법</td><td>N/A</td><td>37-38p</td></tr>
<tr><td rowspan="2">비즈니스 윤리</td><td>FN-IB-510a.1</td><td>사기, 내부거래, 반부패, 시장 조직 등 기타<br>금융시장법 위반에 따른 금전적 손실의 총액</td><td>원</td><td>119p</td></tr>
<tr><td>FN-IB-510a.2</td><td>내부고발 정책 및 절차</td><td>N/A</td><td>89p</td></tr>
<tr><td>직업적 성실성</td><td>FN-IB-510b.4</td><td>주의의무를 포함한 직업적 윤리 및 성실성 이행을 위한 정책</td><td>N/A</td><td>89-90p</td></tr>
</table>

# SASB INDEX

| 주제 | 코드 | 지표설명 | 단위 | NH투자증권 대응 |
|---|---|---|---|---|
|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 FN-IB-550a.1 | 분류별 국제 금융상의 중요 은행 (G-SIB,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 점수 | Basis points (bps) | 해당사항 없음 |
| | FN-IB-550a.2 | 자본적정성평가, 장기 사업전략, 기타 사업활동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방식 및 결과 | N/A | NH투자증권은 정기적으로 매 반기마다 통합 위기상황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합 위기상황 분석은 '시나리오 설정-위험량 산출-손익 분석-자본비율 분석-보고 및 활용'의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거쳐 산출된 분석 결과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해 경영·자본·자금·리스크 관리계획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 임직원 인센티브 및 리스크 부담 | FN-IB-550b.1 | 중요 위험 책임자(MRTs) 선임에 따른 총 보수 변동률(인센티브 비율) | % | 리스크 담당 임원의 성과보수는 회사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연분(50~60%)을 정액(현금)으로 지급[1] 하고 있습니다. |
| | FN-IB-550b.2 | 중요 위험 책임자(MRTs)의 인센티브 중 삭감이나 환수 조치 적용 비율 | % |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는 성과보수 조치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별도 MRTs만의 비율은 없음), 삭감이나 환수 조치가 필요할 경우 보수위원회 의결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
| | FN-IB-550b.3 | 거래자의 Level 3 자산 및 채권[2]의 가격 책정에 대한 감독, 제어, 검증과 관련된 정책 | N/A | NH투자증권은 금융상품 평가기준을 정하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 및 트레이딩 포지션[3] 등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평가 및 리스크 산출에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평가주관부서는 금융상품의 평가에 이용되는 입력변수, 평가모델, 그 외 평가에 사용되는 정보를 거래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선택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관리합니다. 시장정보가 거래되는 시장의 변화 혹은 공정가치에 유의적인 정도에 따라 평가주관부서의 결정으로 공정가치서열(Level)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 발행된 상품에 대해서는 재무관리부와 합의하여 합리성을 검토한 후 Level을 변경합니다. |
| 활동지표 | FN-IB-000.A | 거래의 수와 금액(인수·자문서비스·증권화 거래별 구분) | 건, 억 원 | |

| 구분 | 건수 | 금액 |
|---|---|---|
| IPO 주관 | 15 | 5,034 |
| 일반회사채 대표주관 | 163 | 136,903 |
| 유상증자 주관 | 6 | 7,623 |
| 기업 인수/매각 금융자문 | 1 | 600 |

1) 일반임원은 회사 주가에 연동하여 지급
2) Level 3 자산 및 채권: 유동성이 매우 낮거나 상품자체의 활성화된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가치 측정이 힘들기 때문에 회사가 주관적 판단에 따라 가치를 결정하는 자산과 채권
3) 트레이딩 포지션: 트레이딩 의도(Trading intent)를 가지고 보유하거나 다른 트레이딩 포지션을 헤지하기 위해 보유하는 금융상품 포지션

# POLICY BOOK

## 인권경영정책

인권경영은 NH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정체성을 구성하며 회사 경영의 핵심 가치이다. 회사는 UN 세계인권선언(United Nation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 명시된 원칙을 수용하고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명시된 바와 같이 회사의 인권보호 책임을 인식한다.

1. 회사는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회사의 내부규정·기준을 수립하고 실천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규범은 회사의 국내외 사업장 및 자회사에 적용된다.

2. 회사는 임직원 고용 및 공급사·협력사와의 계약 등을 포함한 회사의 모든 단계의 업무 프로세스 및 제반활동에서 인권을 증진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3. 회사는 모든 구성원의 인권이 보호되는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전념한다. 자격 요건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고용 기회를 보장하고, 어떠한 차별과 괴롭힘도 존재하지 않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4. 회사는 경영 및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한다. 공급사 및 다른 협력사들이 강제 노동, 아동 노동 및 인신매매 등 모든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

회사는 인권을 중시하며, 인권경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회사는 책임감 있는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옹호할 것이다.

##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정책

NH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회사의 모든 직위 및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에서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회사는 다양한 인력, 형평성을 갖춘 제도 및 포용적 문화가 회사 발전의 핵심적 요소라고 믿는다.

### 1. 다양한 인력

회사의 인력 구성이 회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다양한 인력이란 성별, 학력, 출생지, 종교, 언어, 민족, 능력, 사회경제적 지위, 성 정체성 등을 다양하게 대표함을 의미한다. 회사는 다양한 관점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며 전사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 2. 형평성 있는 조직

회사는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승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회사는 개별 구성원들이 회사에 근무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회사는 각 구성원의 업무적인 발전과 성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3. 포용적 문화

회사는 포용적 문화를 조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모든 구성원이 회사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소속된 팀의 핵심 구성원이라고 느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한다. 회사는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에 대한 협력사 및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계획을 지원하는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다. 회사는 사업장 및 사업을 영위하는 광범위한 경제 및 사회에서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 POLICY BOOK

## 안전보건경영정책

NH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구성원 및 고객의 생명, 건강 및 안전보건이 경영의 최우선 가치임을 인식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성숙한 안전보건 문화 정착을 도모하며, 구성원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경영정책을 선언한다.

1.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하여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2.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한다.

3. 구성원 및 고객의 안전보건에 미치는 제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행한다.

4. 안전한 사업장 조성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5. 구성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고,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확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 사회공헌정책

NH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한다. 회사는 고객 및 회사가 소속된 사회의 구성원들이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사회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회사는 책임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앞장선다.

2. 회사는 사회공헌활동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3. 회사는 임직원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 도모를 지원하기 위한 사내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한다.

4. 회사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고객, 지역사회 주민, 관련 사회단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연대 강화를 도모한다.

5. 회사는 정확하고 투명하게 사회공헌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 POLICY BOOK

## 환경경영정책

NH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지구환경 보존을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지속가능한 경영 실행을 위해 적절한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체 ESG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환경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환경경영 정책을 선언한다.

1. 회사는 회사 운영과 관련된 투자활동 및 고객 서비스 제공과 연관된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 또는 사고위험을 감축하기 위하여 적절한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2. 회사는 환경 보호와 관련한 제반 법령을 준수한다.

3. 회사는 친환경 경영 및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반 경영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4. 회사는 관련 임직원에게 기후변화 대응 및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환경경영정책에 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고객, 협력사를 포함한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5. 회사는 환경 관련 경영정책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 환경사회투자정책

### I. 목적

NH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투자활동을 포함한 사업계획 수립 및 업무 수행의 전 과정에서 기업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이행하고, 환경 및 사회적 위험을 적극 관리하고, 이해관계자들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이하 'ESG') 가치를 창조하여 고객, 직원, 협력사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등 제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환경과 지속적 발전을 추구하고자 한다.

### II. 적용 범위 및 절차

회사의 경영 활동 전반에 본 지침을 적용한다. 회사는 투자 집행 시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 사업, 재무 분석과 함께 당사가 규정한 ESG 기준에 의한 비재무적 분석을 통하여 종합적인 투자 판단을 한다.

### III. 네거티브 스크리닝

네거티브 스크리닝은 ESG 기준에 근거하여 특정 산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는 책임투자 전략이다. 회사의 네거티브 스크리닝은 즉시 배제와 점진적 배제로 나눈다. 배제 영역은 그 유형에 따라 제품 배제와 행위 배제로 구분한다. 제품 배제는 전쟁에 관련된 무기 생산, 판매, 유통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와 신규 석탄 관련 사업 등이 해당된다. 행위 배제는 환경, 사회 및 윤리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행위에 의한 기업 및 프로젝트 등을 의미한다.

# POLICY BOOK

## 1. 즉시 배제

투자 대상 회사의 업무가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할 경우, 당해 투자 대상 회사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a. 제품배제

- **무기**
  EU Council Regulation No 1236/2005(수출 금지 상품 목록에 관한 EU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상품 중 '사형, 고문 또는 기타 비인도적이거나 잔인한 처벌 또는 행위'를 위한 용도의 장비를 생산, 판매 또는 구입하는 기업에 해당되며, 집속탄, 대인지뢰, 생화학무기, 핵무기 등 국제 협약에 따라 금지된 무기의 유통 또는 보관과 관련된 기업들이 해당된다.
- **석탄**
  석탄화력발전은 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및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시켜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므로,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관련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다.
- **유의영역**
  담배, 도박, 주류 및 성인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사회 및 윤리적으로 이슈를 일으킬 수 있는 영역에 해당되므로 유의영역으로 구분하고 그 영향도를 모니터링한다. 상기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적용, 비즈니스 모델 전환, 책임투자 조직을 통한 정책적인 고려 또는 Engagement 등 중요한 경영상의 목적을 포함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 b. 행위배제

UN 글로벌 컴팩트와 같은 국제 규범 및 협약 등을 위반한 경우 및 관계당국의 자금세탁방지 법령 및 테러자금지원방지법령에 따른 제재대상자에 포함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며, 심각한 인권침해, 심각한 기후변화 및 환경 피해, 중대한 부패가 그 범주에 포함된다. 생물다양성의 경우 아래 행위와 연계된 파이낸싱 제공은 즉시 배제한다.

- 불법 벌목, 불법 야생동물 밀거래, 국립야생동물보호구역 개발 등 육상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행위
- 다이너마이트, 화학약품을 사용한 어업활동이나 유해물질 불법 방류 등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

## 2. 점진적 배제

제품배제 및 행위배제 모두 ESG 추진 경과에 따라 적용하되, 향후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제품 배제 대상은 담배, 도박, 주류 및 성인 엔터테인먼트 등 유의영역이며, 매출 비중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행위배제 대상은 동물 실험 및 살아있는 동물 수출, 현대판 노예제도 및 아동노동 등에 관한 대상을 추가한다. 기타 이슈가 있는 경우 책임투자 조직을 통한 정책적 고려 또는 Engagement에 따라 판단한다.

## IV. 지속적인 투자대상에 대한 위험관리

1. 회사는 최초 투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 대상의 거래동향을 유의하고, 운영활동 및 재무변화 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상황도 적시에 검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2. 회사는 투자대상의 영업 및 경영활동이 ESG 관련 불이익 초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계획의 제정을 제안하고 그 실행상황을 추적한 후, 거래 계속 여부를 다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V. ESG 투자목표

회사는 UN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이행하고자 아래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목표에 부합하는 투자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 1. 빈곤 종식

-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서비스 확대
- 적정 신기술 및 소액 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 접근성 보장

### 2. 기아해소와 지속가능 농업

- 취약 계층의 식량 접근성 보장
- 농촌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 친환경 농업 사업 확대
- 농산물 시장 사회 기반 시설 연구 지원 및 파생상품 안전성 기능 확보

### 3. 건강 및 웰빙

- 만성 질환 및 감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
- 의료 서비스 접근성 확대 및 개선
- 위생 개선
- 유해 물질로 인한 대기, 수질, 토양의 환경오염 방지

### 4. 양질의 교육

-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
- 취약 계층을 위한 교육 지원
- 교육 시설 확충
- 안전한 교육 기반 시설 구축

### 5. 양성 평등

- 여성 고용 확대 및 차별 개선
-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 리더십 참여 기회 증진
- 토지나 다른 자산, 금융서비스 및 천연자원에 대한 여성 접근성 보장

### 6. 물과 위생

- 안전한 식수 공급
-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 수질 개선
- 생태 하천 복원
- 하수 재활용 확대 및 지속가능한 담수 공급 보장

### 7. 에너지

- 에너지 효율 개선
- 재생에너지 발전
-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 에너지 소외 계층 대상 겨울 난방 지원

# POLICY BOOK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창업 혁신 지원 및 금융 접근성 확대
- 청년 고용 지원
-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 지속가능한 산업 진흥

**9. 혁신과 인프라**
- 지속가능한 사회기반 시설 구축 및 금융, 기술 접근성 확대
- 취약 계층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강화
- 중소기업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향상
- 개발도상국에 대한 금융, 기술, 인프라 지원

**10. 불평등 완화**
- 차별적인 법, 정책, 관행 금지 및 모든 이해관계자의 동등한 권리 보장
- 저소득층 소득 확대
- 나이, 성별, 장애 등 집단 간 고용률 격차 감소

**11. 지속가능한 도시**
- 안전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 및 기본서비스 제공
- 교통 이동 편의 증진
-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 미세먼지, 폐기물 등 도시환경 영향 감소
- 공원, 녹지 및 수요자 맞춤형 공공 공간 확보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 친환경 소비 기반 확대 및 녹색 제품 시장 경쟁력 강화
-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효율적 재사용
- 생산, 유통, 폐기 과정의 지속가능성 손실 최소화
- 지속가능발전 교육 기반 마련
- 플라스틱 등 제품 선순환 체계 구축

**13. 기후변화 대응**
- 기후 관련 위험과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및 적응력 강화
-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경보시스템 및 역량 제고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14. 해양 생태계**
- 해양환경의 보호 및 개선
- 해양 쓰레기, 오염 및 산성화 방지
-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 확대
- 소규모 영세 어업인 지원
- 해양과학 연구 개발 확대

**15. 육상 생태계**
- 산림자원 조성 관리 및 산림 복원
-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존
- 산림 벌채 중단 및 토지 황폐화 방지
- 육지 및 내륙 담수 생태계 보존

**16. 평화, 정의 및 강력한 제도**
- 성폭력 아동폭력 등 모든 형태의 폭력 및 사망 방지와 피해자 보호
- 불법 자금, 무기 거래 감소
- 부정부패 및 뇌물 수수 감소
- 대중의 정보 접근성 보장
- 디지털 인권 보호 강화

**17. 파트너십**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 강화
-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 역량 강화
-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 조세정책

NH투자증권은 세법 준수와 법 준수 이상의 책임 있는 투명한 납세가 국가재정 기여와 주주 가치 제고, 이해관계자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중요한 요인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회사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근본 조건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NH투자증권은 세무원칙·정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세무정책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과세당국과 협조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다음 원칙에 따라서 투명한 납세를 이행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세무원칙**
- 세법 준수와 투명한 납세가 경영의 중요 일부분임을 인식한다.
- 책임 있는 세무 원칙에 따라 세금신고 및 납부를 충실히 이행한다.
- 조세 회피를 위해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악용하지 않는다.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정상 가격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따라 이전 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조세 회피 목적의 조세구조(Tax Structures) 사용을 지양하며, 조세정보 공유가 불가능하고 경제적 활동이 없는 조세피난처(Tax Havens)에 법적 실체를 운용하지 않는다.
- 과세당국과 건설적이고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세법에서 정한 협력의무 이행에 최대한 노력한다.
- 조세 리스크 감소를 위해 선제적 관리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세금신고 및 증빙서류, 회계이슈에 대한 의사결정 자료는 문서화하여 보관한다.

# POLICY BOOK

### 납세정보의 공개

법인세 관련 세부내용을 국내에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내 감사보고서를 통해 책임 있는 방식으로 공시합니다. 공시 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합니다.

1. 법인세 회계 산출 기준
2.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 세부내역
3. 일시적 차이의 구성내역
4. 법인세비용의 구성내역 및 세율정보

이 외에도 매년 통합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통해 국가별 수익과 납세액 관련 정보, 법인세 유효세율 및 법정세율의 차이와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공개합니다.

### 세무 관리조직 운영

세무 이슈는 현업 전반에 걸친 실무레벨에서 상시 모니터링 되며, 이슈 식별 시 전문성을 보유한 재무팀의 추가 검토 등을 통한 CFO 보고 절차를 거칩니다. 중대한 세무 이슈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신중한 검토 프로세스를 준용하며, 의사결정 필요시 이사회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 세원 잠식과 소득이전

국제거래가 빈번해지면서 국가 간 소득이전에 따른 조세 회피에 대해 국제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갈수록 국제적 차원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현지법인과의 거래가 증가됨에 따라 이러한 국제거래의 이전가격(정상가격)에 대한 세무리스크가 높아진 바, 2012년부터 해외 현지법인과의 국제거래 시 이전가격에 대한 검토(TP Study)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으며, 2014년 법무법인 자문을 받아 당사와 해외 현지법인들 간에 발생한 국외특수 관계 거래에 대하여 전반적인 이전가격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NH투자증권은 해외 현지법인과 신규 용역계약이 발생할 때마다 현지법인과의 계약을 총괄하는 Global 사업기획부, IB사업기획부에서 각 계약 건 별로 법무법인, 회계법인으로부터 이전가격 검토 보고서를 받는 형식으로 TP Study를 진행 중이며, 이전가격 관련 정책의 국제적 방향성 흐름에 따라 기존 계약에 대하여도 필요시 이전가격 검토를 재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검토 결과를 수수료 가격 결정의 근거로 삼아 국내 세무리스크를 줄임과 동시에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으며, 현지 세법상 기준으로도 적절한 납세의무를 이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POLICY BOOK

## 이사회 독립성정책

NH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위해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경영 의사 결정과정을 감독 및 견제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이사의 독립성을 검증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동법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이사회 다양성정책

NH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 이사회는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아래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지닌 이사들로 구성하여 주주, 금융소비자 및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1. 다양성

- 성별 : 이사회의 성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별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으며, 이사 전원을 특정한 성(性)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 경험 및 배경 : 금융회사의 특성을 고려하되, 특정 배경과 출신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 기타 : 국적, 인종, 종교, 문화적 배경 등의 다양성을 고려한다.

### 2. 전문성

금융, 경제, 경영, 재무·회계, 법률, 정보기술, 소비자보호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실무적 경험을 충분히 보유한 이사를 다양하게 선임하여 전문 분야가 특정 직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 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융 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나.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 시정 조치
   다.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이 법 또는 금융 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 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제6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다만, 사외이사가 됨으로써 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1.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 관계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 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2.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3.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였던 사람
4. 해당 금융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5.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6. 해당 금융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 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7.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
8. 그 밖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금융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된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③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POLICY BOOK

## 협력사 행동규범

### 서문

NH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국가 및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의 이행과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회사와 협력사(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법인 또는 개인)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하였다. 본 행동규범은 철저한 준법경영과 더불어 기업윤리, 노동 및 인권, 다양성/형평성 및 포용성, 안전보건, 환경보호 각 영역에서 최선의 운영을 권고한다.
회사는 협력사 및 소속 임직원의 인격을 존중하며 회사의 강제가 아닌 협력사 스스로 규범에 따라 관련 활동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다만 본 행동 규범에서 권고하는 내용과 법이 모순되는 경우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1. 기업윤리

#### 1) 투명경영

협력사는 기업 운영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임직원과 주주들 더 나아가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및 산업계 관행에 따라 공개하고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 2) 부패 방지

협력사는 부패 방지와 뇌물수수 금지에 관한 정책과 기준을 제시하고 임직원들이 엄격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 3) 공정거래

협력사는 자신의 협력업체와 상생을 도모하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통하여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감독해야 한다.

### 2. 노동 및 인권

협력사는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합법적인 근로와 권리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 1) 인도적 대우

협력사는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성희롱, 체벌, 정신적·신체적 강압, 언어폭력, 협박, 불합리한 제한 등 비인도적 대우를 하지 않는다.

#### 2) 자발적 근로

협력사의 모든 근로자의 근로는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고용을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정부에서 발행하는 신분증, 여권 및 취업비자 등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 3) 아동노동 금지 및 취약계층 보호

협력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15세 미만의 아동 근로자를 고용해서는 안된다.
만 18세 미만 연소자의 경우 노동관계 및 법규를 준수하여 고용하고 안전보건상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되며 여성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

#### 4) 근로시간

협력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근로 일수와 근로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5) 결사의 자유

협력사는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조합 결성, 가입 및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 POLICY BOOK

## 3.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1) 다양성 존중**

협력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별, 학력, 출생지, 종교, 언어, 민족, 능력, 사회/경제적 지위, 성 정체성 등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2) 공정한 기회 제공**

협력사는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승진 기회를 제공하고 근무 시점부터 각자의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열린 조직문화**

협력사는 모든 구성원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 4. 안전보건

**1) 안전보건 계획 수립 및 실천**

협력사는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하여 안전보건 목표 설정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실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개선해야 한다.

**2) 산업재해 및 질병 예방**

협력사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 관리, 추적 및 보고하기 위한 절차와 시스템을 확립해야 하며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식 및 인력 배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3) 위생 및 청결관리**

협력사는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화장실, 식당 등 거주시설의 위생 및 청결을 관리해야 한다.

**4) 안전보건 교육 진행**

협력사는 구성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자율적인 안전 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 등 관련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 5. 환경보호

**1) 환경경영 실천**

협력사는 기후변화, 지구환경 보호 및 환경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며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2) 환경 법규 준수**

협력사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3) 환경경영 정보 공개**

협력사는 환경과 관련된 경영정책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UNGC

## 2024 UNGC 이행현황

NH투자증권은 2011년 9월 UNGC(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대한 4대 분야의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각 원칙에 대한 활동 내용은 지속가능통합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으며, 아래 내용을 통해 상세한 보고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원칙 | 페이지 |
|---|---|---|
| 인권(Human Rights) | 원칙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 78p |
| | 원칙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 78p |
| 노동규칙(Labor Standards) | 원칙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 78p |
| | 원칙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 133p |
| | 원칙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 133p |
| | 원칙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 133p |
| 환경(Environment) | 원칙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 49-64p |
| | 원칙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 37-38p, 49-64p |
| | 원칙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 37-38p, 49-64p |
| 반부패(Anti-Corruption) | 원칙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 89-90p |

# UN SDGs

## 2024 UN SDGs 이행현황

NH투자증권은 UN이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고려한 사업활동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17개의 UN SDGs 목표 중 NH투자증권의 비즈니스와 연계성이 높은 목표를 중심으로 활동과 성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원칙 | NH투자증권 활동 | 페이지 |
|---|---|---|---|
| Goal 1  |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 • 사회공헌단 운영<br>•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 84-85p, 116p |
| Goal 2  | 기아 종식,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 농업 강화 | • 농촌지역 대상 사회공헌<br>• 중소농가 육성 크라우드 펀딩 및 라이브커머스 지원 | 14-17p |
| Goal 3  |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 | • 가족친화 제도 운영<br>• 안전보건 체계 구축 및 임직원 심리건강 프로그램 운영 | 80-81p |
| Goal 4  |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 • 1사1교 금융교육 결연 체결 및 청소년 금융교육 실시<br>• 100세시대연구소 중장년층 대상 은퇴설계 프로그램 운영 | 72p, 85p |
| Goal 5  |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 신장 | • 임직원 다양성 확대 노력<br>• 공정한 채용 및 평가 | 78-79p |
| Goal 7  |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 • 그린에너지 ESG ETN 상장<br>• 바이오차(Biochar) 탄소배출권 사업을 위한 생산공장 준공 | 11p, 38p |
| Goal 8  | 지속적·포용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 • 고용 안정화와 인재 확보<br>• 다양한 임직원 복리후생 제공 | 78p, 81p |

# UN SDGs

## 2024 UN SDGs 이행현황

| 구분 | 원칙 | NH투자증권 활동 | 페이지 |
|---|---|---|---|
| Goal 9  |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br>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 • 디지털 취약계층 서비스 접근성 확대<br>• NH 디지털 얼라이언스 펀드 운용 | 69p, 82p |
| Goal 10  |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 • 농촌마을공동체 지원 및 농가소득 증대 활동 추진<br>•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 지원 | 17p, 84p |
| Goal 12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 • 지속가능채권 등 사회책임 투자 비중 확대<br>• 탄소배출권 비즈니스 개발 및 추진 | 10-11p, 37-38p |
| Goal 13  |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 • 탄소중립 금융 체계 구축<br>• 탄소감축 사업 투자·주선·자문 | 10-11p |
| Goal 16  | 평화로운 사회 증진과 사법 접근성 확보, 제도 구축 | • 윤리헌장에 따른 윤리경영 체계 강화<br>• 비윤리 신고제도 운영 | 89p |
| Goal 17  |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 •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br>• UNGC(UN Global Compact) 가입 | 10-11p, 142p |

# 제3자 검증의견서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이하 'DNV' 또는 '당사')는 NH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NH투자증권')로부터 2025 지속가능통합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대한 독립적인 제한적 검증 업무를 의뢰 받았습니다. 본 검증성명서의 사용대상은 NH투자증권의 경영진과 이해관계자입니다.**

## 검증 기준

검증 활동은 당사의 전문적인 경험과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1]가 제정한 국제인증업무기준(ISAE 3000)[2] 등 국제 규격을 반영한 DNV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검증 프로토콜인 VeriSustain™ 6.0과 AccountAbility사의 지속가능성 검증 기준(AA1000AS v3)에 따라 Type 2 제한적 수준의 보증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DNV는 보고서가 AccountAbility 원칙 기준(AA1000APS (2018))의 4가지 원칙과 VeriSustain의 신뢰성, 완전성 및 중립성 원칙을 준수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검증 범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특정 지속가능성 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당사의 프로토콜은 당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제한적 또는 합리적 보증을 얻기 위해 검증을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한적 검증 업무 절차의 성격과 시기는 합리적 검증 업무 절차와 차이가 있으며, 절차의 범위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이에 따라 제한적 검증을 통한 보증 수준은 합리적 검증을 통한 보증 수준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이에 DNV는 검증 의견을 제공함에 있어 근거가 된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작업을 계획하고 수행함으로써 당사의 의견에 오류가 있을 위험을 줄였으나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았습니다.

DNV는 이번 보고 기간 동안 보고서 외부 또는 NH투자증권 웹사이트에 게시될 수 있는 기타 정보에 대해 어떠한 검토나 작업도 수행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결론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 검증 범위

당사는 보고서에 대한 독립적인 제한적 검증 업무 및 특정 지속가능성 성과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 업무 수행을 의뢰 받았습니다.

- 당사는 NH투자증권의 중대성 평가를 통해 식별된 중요 주제(Material Topics)와 관련된 GRI 주제 기준(Topic Standards)을 검토하였습니다.
- '특정 지속가능성 성과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에너지) 302-1, 302-3, 302-4, (배출) 305-1~305-5, (고객 개인정보 보호) 418-1 공시항목과 (Non-GRI) 디지털 금융 및 플랫폼 강화 및 (Non-GRI) 금융소비자 보호의 품질 및 신뢰성을 검토하였습니다.

1) 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 Board
2) International Standard on Assurance Engagements (ISAE) 3000 – 'Assurance Engagements other than Audits and Reviews of Historical Financial Information' (revised)

## 의견, 관찰 및 권고사항

검증 수행 결과, DNV는 AA1000APS(2018)의 4가지 원칙과 VeriSustain의 신뢰성, 완전성 및 중립성 원칙 측면에서 NH투자증권의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 및 데이터가 부적절하게 기술되었다고 판단할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성과 데이터의 신뢰성 측면에서, 보고된 데이터가 NH투자증권의 운영 중 관리된 실무 데이터와 적절히 대조되지 않았거나 적용된 가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DNV는 NH투자증권의 보고서가 중대성 관점에서 GRI Standards의 'in accordance'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검증 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증 범위'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DNV의 관찰 의견을 AA1000APS(2018) 원칙과 VeriSustain 원칙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 포괄성: 이해관계자 참여 및 의견제시

NH투자증권은 고객, 주주 및 투자자, 임직원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각 이해관계자별 소통 채널과 주요 관심 이슈를 보고하였으며, 수렴된 의견은 중대성 평가에 반영되었습니다. 수렴된 의견들이 경영 활동에 반영됨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해관계자 참여 강화를 위한 전략의 실행과 더불어 구체적인 이해관계자 요구에 대한 대응 활동의 효과성을 보고한다면 리스크 및 기회 관리 측면에서 조직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중대성: 중대한 지속가능성 주제에 대한 식별 및 보고

NH투자증권은 이중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여 재무적 관점과 사회·환경적 영향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주요 이해관계자 인터뷰, 미디어 리서치, 국내외 법·규제 검토 등을 통해 10개의 중요이슈를 선정하고, 이 중 '4개의 핵심 중요이슈'를 중요주제(Material Topic)로 도출하여 사회·환경적 및 재무적 영향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대응성: 중대한 지속가능성 주제 및 관련 영향에 대한 투명한 대응

NH투자증권은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통해 ESG 관련 쟁점사항을 식별하고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방향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으로 구성된 지속가능협의체를 통해 ESG 안건의 성과 점검과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중대 이슈와 연관된 GRI 주제 기준을 성과 지표로 활용하여 주요 지속가능성 영향과 성과를 관리하고 있으며 시계열 기반의 성과 정보가 제공되어, 정보의 일관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영향: 조직 활동이 조직 및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측정 및 설명

NH투자증권은 주요 중대 이슈의 관리를 위한 전략 및 목표를 수립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련 점검 및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강화, 디지털 금융 및 플랫폼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정보보안 및 고객정보보호 등에 대한 영향 관리 방향을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 등으로 구분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 제3자 검증의견서

**신뢰성: 보고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 비교 가능성 및 기본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품질**

샘플링 기법을 통해 데이터 수집 및 가공 과정, 근거 문서와 기록을 확인하였으며, 검증 결과로 판단하였을 때 보고서에 기재된 지속가능성 성과 정보에 의도적 오류나 왜곡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NH투자증권은 지속가능 성과의 출처와 의미를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었으며, 검증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나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최종 보고서 발간 전 모두 수정되었습니다.

**완전성: 조직과 그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로 확인된 모든 정보 중 보고되는 정보**

NH투자증권은 식별된 중요 주제의 운영 경계에 대해 적절한 GRI 주제별 기준 공시항목을 사용하여 중대 이슈와 관련된 2024년 보고 기간 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NH투자증권의 주요 비재무적 공시사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중립성: 보고서가 조직의 성과에 대해 중립적인 어조로 균형 잡힌 설명을 제공하는 정도**

NH투자증권은 보고 기간 동안 회사의 성과, 과제, 이해관계자 우려 사항을 중립적이고 일관되며 균형 잡힌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 적격성, 독립성 및 품질 관리

DNV는 ISO/IEC 17029:2019[3] 적합성 평가에 따라 품질 관리를 위한 자체 관리 표준 및 규정 준수 정책을 적용함으로써 윤리적 요구사항, 전문적 기준, 해당 법률 및 규제 요구사항 준수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 및 절차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DNV가 수립하고 있는 정책 및 절차는 DNV 및 그 임직원,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다른 모든 인원(DNV의 타법인 임직원 포함)에게 독립성 요건을 적용하고,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 검증 활동은 지속가능성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검증팀에 의해 실시되었습니다. DNV는 2024년 NH투자증권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보고서 검증에 대한 독립성이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3) Conformity assessment — General principles and requirements for validation and verification bodies

## 한계점

검증은 DNV에 제공된 NH투자증권의 데이터 및 정보가 완전하고, 충분하며, 사실이며, 중요한 왜곡 표시가 없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실시되었습니다. 한편, 표본추출(샘플링)과 내부 통제 절차 및 시스템에 대한 기타 내재적 제한들로 인해 중대할 수 있는 오류 또는 불규칙성이 감지되지 않았을 수 있는 리스크가 불가피하게 존재합니다.

보고서에 언급된 NH투자증권의 종속기업, 협력사 및 제3자의 지속가능경영, 성과 및 보고 관행 등은 본 검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DNV는 검증 활동 중 외부 이해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DNV는 보고된 재무 데이터, 거버넌스 및 관련 정보가 별도의 독립적인 법정 감사 프로세스의 적용을 받는 법정 공시 및 감사된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재무 공개 및 데이터는 검증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며, 검증은 정의된 보고기간 내의 범위에 있는 데이터 및 정보로 제한되며 해당 기간 이외의 데이터는 검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DNV는 본 의견서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어떠한 배상 책임 또는 공동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 NH투자증권 관리자 및 검증기관의 책임

NH투자증권은 보고서 내용에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데이터 수집, 분석, 집계, 준비, 정보의 공정한 표시, 데이터에 중요한 왜곡이 없음을 보장하는 내부 통제의 설계, 구현 및 유지가 포함됩니다.

DNV의 책임은 '검증 범위'에 기술된 관련 정보가 보고 요구사항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제한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업무를 계획 및 수행하고 이를 취합한 증거에 기반하여 독립적 검증의견서 형태로 NH투자증권에 보고하는 것 입니다.

당사의 성명은 독립적 의견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NH투자증권의 경영진과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DNV는 본 의견서를 제외하고 보고서에 포함된 어떠한 진술이나 데이터의 작성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 의견 판단 기준

본 검증 활동은 위험 기반 접근방식(Risk-based approach)에 따라 NH투자증권의 사업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관련성이 높은 중요이슈들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제한적 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다음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 보고 기간 동안 NH투자증권과 관련된 지속가능성 이슈를 식별하기 위한 피어 리뷰 및 미디어 검토 등
- 중대성 평가 절차와 결과, 주제 기준과 관련된 관리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요구사항에 따른 공시 내용 검토
-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 및 KPI를 통합, 관리 및 보고를 위한 주요 시스템, 프로세스 및 통제에 대한 이해와 평가
- 보고 원칙 및 요구사항 준수를 뒷받침하는 문서에 대한 검토
- 정보 모니터링, 데이터 집계 및 보고 전반에 책임이 있는 ESG 팀 및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의 인터뷰 수행
- NH투자증권 본사(서울) 방문을 통해 사업장별 지속가능성 데이터 샘플링 및 전략 이행 관련 관리체계 검토

DNV

AA1000
Licensed Report
000-10/V3-YW9C3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대한민국 서울
2025년 5월 26일

| 김소현 검증팀장 | 윤창록 검증팀원 | 박상연 기술검토자 |
|---|---|---|

#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 서문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이하 "DNV")는 NH투자증권㈜(이하 "회사")의 온실가스 성명서에 대해 제3자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회사는 검증기준, 'WRI/WBCSD GHG Protocol: A Corporat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IPCC Guidelines: 2006'에 근거한 온실가스 배출량 성명서를 준비할 책임이 있으며, 온실가스 성명서 내용에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DNV는 본 검증 의견서와 관련하여 계약 조건에 따라 검증 계약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검증 목적 및 범위

본 검증의 목적은 회사의 온실가스 성명서에 대해 독립된 검증 의견을 제시하는 데 있으며, 검증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조직경계 : 본사 및 국내 영업점(인터넷 데이터센터, 인재원, 어린이집 포함)
- 운영경계 : Scope 1(직접배출), Scope 2(간접배출), Scope 3(기타 간접배출)
- 보고대상 기간 : 2024. 01. 01 -2024. 12. 31

## 검증 방식

본 검증은 'ISO 14064-3:2019'의 검증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제한적 보증수준 하에서 수행되었습니다. DNV는 회사가 보고한 온실가스 성명서의 완성에 대한 검증 의견을 제시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검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보증 수준은 중요성 평가 기준 5%를 바탕으로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증 프로세스의 부분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 온실가스 데이터 관리 및 수집, 배출량 산정 및 보고 프로세스의 적정성
-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측정값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보고된 데이터의 수치를 계산, 추정, 확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유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 결론

회사의 온실가스 성명서와 관련한 정보를 상기의 검증기준에 따라 검증한 결과, 부적절하게 산정되거나 중대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적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단위: $tCO_2eq$)

| 구분 | 직접배출(Scope 1) | 간접배출(Scope 2) | 기타 간접배출(Scope 3) | 총 배출량 |
|---|---|---|---|---|
| 지역기반[1] | 830 | 5,940 | 886 | 7,656 |
| 시장기반[2] | | 5,618 | | 7,334 |

1) 지역기반(Location-based)은 국가 전력망으로부터 전력 사용에 따른 Scope 2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
2) 시장기반(Market-based)은 재생에너지 전력의 구매(RECs)가 반영된 Scope 2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
※ 상기의 온실가스 배출은 정수로 보고하기 위한 반올림 처리로 인해 ± 1 $tCO_2eq$ 미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Scope 1 & 2 배출량

(단위: $tCO_2eq$)

| 구분 | 직접배출(Scope 1) | 간접배출(Scope 2) | 총 배출량 |
|---|---|---|---|
| 본사 | 551 | 2,041 | 2,591 |
| 영업점 | 279 | 3,899 | 4,178 |
| 합계(지역기반[1]) | 830 | 5,940 | 6,770 |
| 합계(시장기반[2]) | 830 | 5,618 | 6,448 |

1) 지역기반(Location-based)은 국가 전력망으로부터 전력 사용에 따른 Scope 2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
2) 시장기반(Market-based) 은 재생에너지 전력의 구매(RECs) 가 반영된 Scope 2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
※ 인터넷 데이터센터(IDC), 인재원, 어린이집은 영업점 배출량에 포함됨
※ 상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수로 보고하기 위한 반올림 처리로 인해 ± 1 $tCO_2eq$ 미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Scope 3 배출량

(단위: $tCO_2eq$)

| 카테고리 | 기타 간접배출(Scope 3) | 총 배출량 |
|---|---|---|
| 1 | 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 | 82 |
| 5 |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 | 218 |
| 6 | 출장 | 589 |
| 합계 | - | 886 |

※ 상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수로 보고하기 위한 반올림 처리로 인해 ± 1 $tCO_2eq$ 미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025년 4월 11일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대표이사 이 장 섭

# 주요 수상내역 및 협회 가입 현황

## 주요 수상내역

| 수상일자 | 주최기관 | 수상부문 |
|---|---|---|
| 2025.04.03 | 매일경제 | 2025 매경 증권대상 - 금상(자산관리) |
| 2025.02.26 | 대한경제 | 2025 대한경제 IB 대상 - 종합대상 |
| 2025.02.25 | 아시아경제 | 제 16회 아시아펀드대상 - 베스트판매사 |
| 2025.02.18 | 머니투데이 | 제22회 대한민국 IB대상 - 최우수 부동산금융 부문 |
| 2025.02.18 | 한국경제신문 | 제 16회 한국 IB대상 - 채권발행 부문 |
| 2025.01.23 | 조선일보, FnGuide | 2024년 리서치 우수증권사 및 베스트 애널리스트- 해외분석 우수상 |
| 2025.01.23 | 딜사이트 | 제 3회 IB 대상 - ESG 채권 주관 |
| 2025.01.22 | 더벨 | 2025 Korea Capital Markets thebell<br>League Table Awards – Best Bond Deal(SB) |
| 2025.01.22 | 더벨 | 2025 Korea Capital Markets thebell<br>League Table Awards – Best Financial Bond House |
| 2025.01.22 | 더벨 | 2025 Korea Capital Markets thebell<br>League Table Awards - Best Right Offering |
| 2025.01.22 | 매경이코노미, 매일경제 | 2024년 베스트 애널리스트 종합 3위 |
| 2025.01.14 | 한경비즈니스 | 2024년 하반기 베스트 증권사 우수상 |
| 2024.12.26 | 아주경제 | 2024 아주경제금융증권대상 - 베스트 리서치 부문 대상 |
| 2024.12.11 | 조선일보 | 소비자가 선택한 2024 최고의 브랜드 - MTS 부문 |
| 2024.12.10 | 대한경제신문 | 대한경제 건설대상 - 건설금융부문 |
| 2024.12.05 | 아시아경제 | 2024 아시아자본투자대상 - 리서치부문 최우수상 |
| 2024.12.04 | 서울경제신문 | 2024 대한민국 증권대상 - 퇴직연금 · OCIO 부문 최우수상 |
| 2024.12.04 | 조선비즈, UN SDGs협회 | 2024 THE ESG AWARDS - 환경(E)부문 대상 |
| 2024.12.03 | 기획재정부 | 2024년 상반기 우수PD 표창 기관표창(NH투자증권) |
| 2024.11.28 | 한국표준협회 | 2024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보고서상(KRCA) - 금융부문 |
| 2024.11.27 | 이투데이 | 제 14회 올해의 마켓리더 대상 - 연금부문 |
| 2024.11.27 | 한스경제 | 2024 K스포노믹스 대상 |
| 2024.11.19 | 머니투데이 | 제 1회 대한민국 밸류업 대상 - IR상 |
| 2024.11.15 | 농수축산신문 | 2024년 제3회 농식품 ESG 경영대상 |
| 2024.11.13 | MTN머니투데이방송 | 제 13회 100세 시대 금융대상 - 금융투자부문 우수상 |
| 2024.10.30 | 헤럴드경제 | 2024 헤럴드 투자대상 - 최우수 퇴직연금 부문 |
| 2024.10.30 | 고용노동부 | 2024년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 종합평가 우수사업자 |
| 2024.10.30 | 머니투데이 | 제 12회 베스트 MTS 어워드 - 대상 |
| 2024.10.25 | 아시아경제 | 2024 아시아스마트금융대상 - 고객친화부문 최우수상 |
| 2024.10.02 | 아시아투데이 | 제 14회 2024 아시아투데이 금융대상- 자본시장부문 최우수상 |
| 2024.07.25 |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 2024 소셜아이어워드 - 금융혁신대상 |
| 2024.07.16 | 한경비즈니스 | 2024년 상반기 베스트 증권사 우수상 |
| 2024.07.03 | 머니투데이 | 2024 대한민국 금융소비자권익대상 - 소비자권익상품상 |
| 2024.06.28 | 기획재정부 | 2023년 하반기 우수PD 표창 기관표창(NH투자증권) |
| 2024.06.25 |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 2024 소비자가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 - 증권회사 부문 |
| 2024.06.13 | MTN머니투데이방송 | 제15회 대한민국 애널리스트 대상 - 종합대상 1위 |
| 2024.05.24 | 매일경제 | 2024 대한민국 퇴직연금대상 - 특별상 |
| 2024.05.09 | 헤럴드경제 | 2024 헤럴드 자본시장대상 - 투자상품대상 |
| 2024.04.25 | 이데일리 | 2024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 금융투자부문 최우수상(투자은행(IB) 부문) |
| 2024.04.11. | 매일경제 | 2024 매경 증권대상 - 금상(증권발행) |
| 2024.04.11. | 매일경제 | 2024 매경 증권대상 - 펀드부문(베스트 판매사) |
| 2024.04.03. | 뉴욕페스티벌 |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 - 증권부문 |
| 2024.04.02 | 한국자폐인사랑협회 | Autism Friendly Award - 기업부문 |
| 2024.03.27 | 뉴스핌 | 제 12회 캐피탈마켓대상 - 베스트IB상 |
| 2024.03.13 | 대한경제신문 | 2024 대한경제 IB 대상 - 베스트 주식발행 부문 |
| 2024.02.22 | 아시아경제 | 제 15회 아시아펀드대상 - 베스트판매사 |
| 2024.02.21 | 더벨 | 2024 Korea Wealth Management Awards<br>- 올해의 파생결합증권 NH투자증권 Safezone ELS |
| 2024.02.20 | 머니투데이 | 제 21회 대한민국 IB대상 - 최우수 ECM |
| 2024.02.01 | 한국경제신문, 마켓인사이트 | 제 15회 한국 IB 대상 - 주식발행 부문 |
| 2024.02.01 | 조선일보, FnGuide | 2023년 리서치 우수 증권사 및 베스트 애널리스트- 최우수상 |
| 2024.01.30 | 매경이코노미, 매일경제 | 2023년 베스트 애널리스트 종합 3위 |
| 2024.01.26 | 더벨 | 2024 Korea Capital Markets thebell<br>League Table Awards – Best Straight Bond House |
| 2024.01.26 | 더벨 | 2024 Korea Capital Markets thebell<br>League Table Awards - Best Financial Bond House |
| 2024.01.26 | 더벨 | 2024 Korea Capital Markets thebell<br>League Table Awards - Best Bond Deal |
| 2024.01.26 | 더벨 | 2024 Korea Capital Markets thebell<br>League Table Awards - Issuer's Favorite House |
| 2024.01.26 | 더벨 | 2024 Korea Capital Markets thebell<br>League Table Awards - Best Rights Offering |
| 2024.01.24 | 딜사이트 | 제 2회 IB 대상 - M&A 재무자문 부문 베스트하우스 |
| 2024.01.24 | 딜사이트 | 제 2회 IB 대상 - ESG채권 주관 부문 베스트하우스 |
| 2024.01.16 | 한경비즈니스 | 2023년 하반기 베스트 증권사 우수상 |

# 주요 수상내역 및 협회 가입 현황

## 협회 가입 현황

| | | | |
|---|---|---|---|
| 주한상공회의소 | 준법감시협의회 | 퇴직연금발전협의회 | 한국증권법학회 |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상장회사감사회 | SEOUL IB FORUM | 한국감사협회 |
| 한국연금학회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 한국빅데이터학회 | 서울파이낸셜포럼 |
| KOREA FOREX CLUB | UN GLOBAL COMPACT | 증권회사 감사실(팀)장 협의회 | 글로벌금융학회 |
| 도산법연구회 | 한국거래소 배출권 거래중개회원 | 한국경영자총협회 |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
| 한국자본시장연구원 | 배출권시장협의회 | 소액채권전담회원협의회 | 사모펀드운용사협의회 |
| 한국IR협의회 | 경영정보학회 | 증권금요회 | 한국거래소(연부과금) |
|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 온실가스국제감축산업협회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 한국리츠협회 | 한국경제인연합회 | 농민신문사 | UN SDGs 협회 |
| 한국퇴직연금개발원(기관회원) | 한국CFO협회 | 증권사 자금시장협의회 | 넥스트레이드 |
| 금융투자협회 | | | |


NH투자증권